

연수 자료집

2012년 커리어넷 상담위원단 슈퍼비전 자료집

2012. 8. 8(수) ~ 8. 10(금)

상담사례 목차

분반		성명	학교명	페이지
1반 (9명)	1	강미경	경북자동차고등학교	3
	2	강인실	인명여자고등학교	8
	3	강효자	성남여자고등학교	11
	4	고성인	애월고등학교	14
	5	권향수	수일고등학교	17
	6	권현자	송우고등학교	19
	7	김관호	화순중학교	21
	8	박정희	용인고등학교	24
	9	박종진	대진고등학교	27
2반 (10명)	1	김민환	김해율하고등학교	31
	2	김선성	성덕고등학교	36
	3	김성길	연수고등학교	39
	4	김성자	창원사파고등학교	41
	5	김수진	동대전고등학교	43
	6	김순애	경운중학교	46
	7	김연희	조대여자고등학교	49
	8	김영조	영광실업고등학교	52
	9	김정곤	대구상원고등학교	56
	10	김정래	부평여자고등학교	59
3반 (12명)	1	김정숙	삼척고등학교	63
	2	김창연	미원공업고등학교	66
	3	김태길	창원여자고등학교	69
	4	김향자	합포고등학교	72
	5	김홍중	북일여자고등학교	74
	6	남영희	학남고등학교	77
	7	남정문	소천고등학교	82
	8	문영주	전주솔내고등학교	85
	9	박기용	경상공업고등학교	87
	10	박명순	부산일과학고등학교	90
	11	박재조	대전둔산여자고등학교	94
	12	박재현	압구정고등학교	97

분반		성 명	학교명	페이지
4반 (10명)	1	박중학	인천만수고등학교	103
	2	배정희	설악고등학교	106
	3	서혜경	수완고등학교	110
	4	손석규	금천고등학교	113
	5	송기정	신서고등학교	116
	6	송선용	광성고등학교	120
	7	신영화	울산과학고등학교	123
	8	신일섭	성주고등학교	125
	9	안광윤	평창고등학교	128
	10	양동철	영천여자고등학교	131
5반 (9명)	1	양창수	대정여자고등학교	135
	2	양한주	울산경의고등학교	138
	3	이교배	괴산고등학교	141
	4	이동직	동명고등학교	144
	5	이은미	능동중학교	147
	6	이일주	경산고등학교	150
	7	이정림	성희여자고등학교	152
	8	장광재	송덕고등학교	156
	9	장귀숙	초연중학교	159
6반 (11명)	1	장창곡	인천진산고등학교	165
	2	정경수	웅천고등학교	168
	3	정영현	금오공업고등학교	171
	4	조도재	애니원고등학교	174
	5	조병금	북평고등학교	177
	6	조정자	청주외국어고등학교	181
	7	최현성	여수충무고등학교	184
	8	홍석훈	군자공업고등학교	186
	9	홍성미	보은정보고등학교	189
	10	홍숙기	군산여자고등학교	193
	11	황은주	김해임호고등학교	197

2012년 커리어넷 상담위원단 슈퍼비전 자료집

1반 사례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1반 - 사례 1 】

성 명	강 미 경	소속 학교명	경북자동차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내담자가 한 사례에서 호소하는 문제가 폭넓어 상담의 목표를 잡기 어려움
- 자신의 진로에 대해 갈팡질팡하고 있어서 필요한 답변을 제공하였는지 의문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자신감 부족, 낮은 성적, 진로 미결정 등 복합적인 고민을 가지고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내보이는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답변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진로를정했다고해야하나

녕하세요 ㅎㅎ고등학교2학년 여학생입니다TT

제 진로고민은 좀 제가봐도 철없고 답답하고 몇대때려주고싶은데요TT

잘들어주시고 좋은상담부탁드립니다TT

저는중학교때부터 장래희망이없었는데요 학교에서 장래희망같은거 적어내라하면 그냥 공무원이라적어내고 말았는데 고등학교와보니까 정말

아차싶은거예요TT중3년동안뒀나TTTTTTTTTT

목표가있어야 결과물도좋은건데 뚜렷한 목표가없다보니까 자꾸 갈팡질팡하게되고...

저는 일단 성적이안좋습니다. 중학교때는 상위권이었는데 고등학교와서보니까 환경도많이다르고...아직도저는 저만의 공부방법을 익히지못한것같아요 집중력도 엄청떨어진거같고..엄청게을러진거같고..

거의 중하위권이예요

요즘시대에 매일매일 피터지게공부해도 인서울갈까말까데 저는 체성적보면진짜 한숨밖에안나옵니다. 진짜 앞이깜깜하고...

열심히한다맘먹어도 제가자꾸 아이것만하고 이렇게 자꾸 미루고미뤄요TTTT!!!TTTTTTTTTT

이걸어떻게고쳐야할지도막막하고...욕심만늘어가는거같아요..

저는 원래 선생님이하고싶었어요 이거아님안되겠다!!



이런건 아니었는데 그냥 매일 학교에 다니면서
 선생님들 보면서 하나도 저렇게 애들에게 가르쳐보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제성적만 보면 그냥 꿈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머리로 그 치열한 임용고시를 볼 수 있겠나며...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약간 선생님을 동경했던 거 같아요 학교에 항상 학생들과 있잖아요
 학생들은 졸업하면 사회로 나가야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쭉 학교에 남잖아요
 그게 좀 부러웠던 거 같아요 저는
 저는 뚜렷한 꿈도 없고 스펙도 없다 보니까 "학교를 졸업하면"
 진짜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도 않고 잔소리도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서워서 그냥 평생 학교에 있고 싶다는 생각에 선생님을 하고 싶단
 생각도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장래 희망이라고 하기에 조금;;
 요즘에 관심 있는 직업은 사서 인데요 제가 독서를 좋아해서 사서가 하고 싶다는 진짜 단순한 생각
 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
 그래서 사서에 대해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사서라는 직업이 별로 현실적으로 좋은 직업은 아니더라
 구요 박봉이고.. 취업률도 낮고..
 찾다 보니까 한숨만 나오고..
 그냥 계속 진짜 한마디로 갈팡질팡하는 거 같아요 저는
 이거에 좀 관심 있는 거 같다 생각하면 제 현실 조건에 안 맞고
 아 이게 좀 적성에 맞을 것 같다 싶으면 또 나중에 아닌 거 같고..
 저도 제 진로를 딱! 정해서 한우물만 파고 싶거든요
 물론 정말 제 길이 딱 정해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긴다면요
 저는 진짜 밤새도록 공부할 자심 있어요 피터지도록 진짜 나를 위해서니까
 커리어넷에 온 건 이번 처음만이 아닌데요
 작년 고1 때 여기서 진로적성..?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는데요
 결과를 봤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
 저랑 한~군데도 안 맞을 거 같은 직업만 나온 거예요 TTTT
 저는 진짜 수학을 싫어하는데 막 이 공계열 직업 같은 거....
 질문지에 뭐 탐구하고 실험하고 그런 거 좋아하냐길래 좋아한다고 했을 뿐인데... TTTTTTTT 그리고
 저 문과 구요 TTT
 중1 때부터 수학 진짜 못했어요 진짜 ㅋㅋㅋㅋㅋ 맨날 하반... 제일 잘한 게 50점..? TTTTTTTTTTTTTTTTT
 TTTT
 막 변호사 이런 거 나오고... 검사가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검사가 다맞는건아니지만 저랑정반대로나오니까
 또 난대체 ㅍㅍ한숨만나오고 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
 도와주세요 ㅍㅍㅍㅍ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애민님!

커리어넷에서 만나게 되어 반가워요.

애민님은 진로를 빨리 정해서 한우물만 파고 싶고 또 열심히 노력할 자신도 있는데, 아직 진로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해 많이 혼란스럽고 답답한 마음인 것 같아요. 이런 저런 직업을 생각해봐도 관심 있는 직업은 현실조건에 안맞고, 적성에 맞다 싶으면 앞으로의 전망이 불투명하고.... 애민님 말 그대로 미래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네요. 지금 이런 자신의 모습이 맘에 들지 않아 몇 대 때려주고 싶다는 애민님을 선생님은 꼭 안고 톡톡톡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처음부터 하고 싶은 일이 정해져 있는 친구도 있지만 애민님처럼 진로를 정하지 못해 고민하는 과정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바뀌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았으면 해요.

일반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때는 다음의 과정을 거치게 된답니다.

첫 단계는 ‘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를 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탐색해 보는 것입니다. 꼭 직업이나 학교공부와 관련된 것이 아니어도 애민님이 이일을 할 때 제일 신났었다, 친구들과 이것을 할 때 정말 재밌었다, 예전에 이걸 잘해서 칭찬받았었다....등등 사소한 것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잘했던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생각날 때마다 메모장에 기록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고민하는 것보다 사소한 것이라도 기록해놓고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하다보면 생각을 점점 좁혀나갈 수 있게 된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찾아냈다 하더라도 그에 맞는 직업이 뭘지 모른다면 소용이 없겠죠? 그러니 관심을 갖게 된 직업이 하나라도 있으면 직업의 하는 일, 필요한 능력, 되는 길, 전망 등의 정보를 찾아보면 진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세 번째 이 과정을 통해 관심 갖게 된 일이 있다면 생각만 하고 그치면 안되고 그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대학 학과, 자격증), 현재 내가 부족한 점,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은 좀 투자해야 하지만 이런 노력을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을 알게 되어 지금보다 훨씬 발전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애민님은 공무원에서 교사, 사서까지 막연히 생각해 보았지만 현실조건이나 전망 등으로 인해 확실하게 진로를 정하지는 못한 듯 해요. 그러다 보니 목표가 없어 마음을 잡고 꾸준히 공부해 나가기 어려울 거예요. 선생님 생각에는 애민님이 흥미와 적성을 파악하고 직업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 없이 단순히 외적인 조건에 의해 직업을 결정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민님이 한번씩 생각해 보았던 직업을 비교해보니 애민님은 직업을 고려할 때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다소 자신감이 부족하여 결정하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너무 많은 조건을 고려하다보면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요. 그러니 본인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되 장애가 되는 요인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적이 부족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운 상황 :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인서울이 아니어도 조금 성적이 낮은 학교로 진학한 후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폭넓은 진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사나 사서, 공무원 등의 임용시험은 사실 어느 학교인가는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2. 교사가 되기 어렵다. : 미리 자신의 능력을 판단하지마시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인가, 나의 적성에 맞는가를 진지하게 탐색해 보고 실제 체험을 해보거나 학교의 선생님, 사서 등을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해보는 과정을 통해 확신을 얻거나 아니면 나에게 맞다 안맞다 결정을 내려 보세요. 확신만 있다면 위에서 애민님이 말한대로 정말 코피흘리며 준비하면 되겠죠!

3. 사서가 되고 싶은데 전망 때문에 고민이다 : 관심있는 일, 하고자 하는 꿈은 노력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정말 사서가 되고 싶다면 이 꿈을 버리고 다른 직업을 택했을 때 미련, 아쉬움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 하고 싶다면 한번 도전해 보라고 얘기하고 싶고 또 문헌정보학과(도서관학과)를 나왔을 때 꼭 할 수 있는 직업이 사서만 있는 것은 아니고 독서지도사, 기록물관리사, 서지학자, 독서치료사 등 직업의 폭을 넓힐 수 있으므로 관련 학과 진학도 한번 고려해보라 권하고 싶네요.

그리고 심리검사는 스스로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 객관적인 파악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검사로 참고로만 활용하세요. 아직 진로를 확실히 정한 것이 아니므로 검사 결과를 한번쯤 참고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로는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답니다. 아직 확실하게 꿈을 정하지 못했다고 너무 조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시간을 두고 과연 나의 특성에 맞는 직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남은 시간 동안 꾸준히 목표를 향해 노력하겠다는 굳은 결심과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있다면 불가능은 없다고 봅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는 공부하는데 집중이 안되는 문제, 게으름, 미루는 성격에 대한 고민이 자연스레 나아질거라 생각해요. 이곳에서 심리검사를 통해 나를 분석도 해보고, 이렇게 상담도 올리고 하는 애민님은 분명 하고 싶은 일을 찾으면 정말 열심히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학생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다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커리어넷을 찾아주세요.

커리어넷 드림



【 1반 - 사례 2 】

성 명	강 인 실	소속 학교명	인명여자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희망하는 특정 직업에 대한 정보를 알기 원하는 상담 사례보다는 되고 싶은 것을 찾을 수 없다는 경우가 내담자의 특성을 다 알기 어렵게 때문에 답변하기 조심스럽다.
- 고등학교 2학년이면 어느 정도 대학진학여부의 평가지표가 결정지어져 있는 상황에서 내담자의 희망대로 가능하지만은 않은 상황이므로 조언하기 조심스럽다.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면 이미 학교 내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진로 찾기가 있었을 것이므로 이미 각종 검사와 검색의 과정의 경험을 갖고 있다.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 내담자의 성격과 직업을 일관화하여 연결하기는 어렵다.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되고 싶은게 없어요...

제가 되고 싶은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적성검사를 해서 직업이 엄청 많이 나와도 그 중에서 되고 싶은걸 찾기가 어렵고...

제가 잘하는 게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성격도 소심하고 내성적이라서 친구들이랑 어색하기도하고 말을 잘 못하겠어요...

요즘 성격을 고치고 싶어서 친구들이랑 말도 열심히 하고 놀기도 하고 나서기도 하는데 말도 잘 못하겠고 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서두르지말고 차분하게 찾아보기로 해요..

닉네임이 귀여운 잠만보님, 안녕하세요?

커리어넷입니다.

잠만보님은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친구들에게 자신있게 말을 잘 못하겠고, 뭐가 될 수 있을지 진로를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군요.

아직은 성인은 아니고, 그렇다고 모든 걸 부모에게 모두 의존하기에는 아주 어리지만은 않은 나이..무언가 결정을 내리기에겐 겁이 나기도 하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군요. 청소년기에 많은 친구들이 잠만보님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한번 결정한 자신의 진로를 끝까지 확고하게 갖고 가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잠만보님만이 갖는 고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고민하고 상담을 신청할 만큼 잠만보님은 진지한 자세를 갖고 있으니, 그 또한 기특한 일이에요.

잠만보님, 결론부터 말하자면 너무 성급하게 결정 내려서 나중에 후회가 다가왔을 때, 건잡을 수 없어 방황하게 되는 경험을 알게 되길 바래요.

뜻하지 않은 기회에 진정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TV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의 직업이 멋지게 보여서, 친구가 말하는 직업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은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상담을 하다가 새로운 분야가 눈에 들어오고 나의 꿈이 되기도 한답니다. 다만 그때가 왔을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오거나, 정보가 없어서 많은 분야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너무 늦어서 되돌이킬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정보탐색을 통해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던가, 기본 소양을 갖추기 위한 노력 등, 차분하게 미래를 위한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이 언제 어느 때가 되더라도 당당하게 도전할 수 있게 말이에요.

사실, 문제는 고3이 되어 대학 진학을 하게 되었을 때 성적에 의해 뜻하지도 않았던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대학진학 후에 선택한 학과가 맞지 않아서, 또는 그로 인한 진로선택으로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해서 나라에서는 진로교육을 통해 청소년기에 많은 진로선택의 기회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잠만보님, 내성적인 성격이 나쁜 것만은 아니랍니다. 내성적인 성격은 반면에 타인에게는 차분하고 진지하게 보이기도 하죠. 어떤 친구들은 잠만보님의 그런 성격을 부러워하거나 다가오고 싶어 하는 친구도 있을꺼예요.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면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부정적인 면은 조금씩 바뀌나가고 긍정적인 면을 장점으로 살려서 진로를 개척해나가는 소양으로 키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타인들이 보기에는 너무 외향적인 성격으로 보기도 해서 걱정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내가 나를 판단해보면 조금은 소심하고 내성적인 면이 있다고 보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안보이나 봐요. 즉 누구나 양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 단편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는 거죠. 물론 경중과 빈도의 차이는 있겠죠. 아마도 잠만보님도 때에 따라서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험도 하게 될꺼예요. 마침 잠만보님도 성격을 고치고 싶어서 친구들에게 말을 걸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 장점은 장점대로 갖고 있으면서 적극적인 잠만보님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 기대되요.



요즘은 학교에서도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하여 교과외에도 많은 체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되도록 많은 경험과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소심하니까..’ 하고 기회를 찾지 않고 다가와주기만 기다리지 말고, 새로운 경험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보았으면 좋겠네요. 생각지도 않았던 흥미와 적성을 찾게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혹 실수나 실패하더라도 그 또한 잠만보님에게 보약이 되어 즐겨요. 지금은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는 실수와 실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청소년기에는 그것을 하나의 경험으로 받아들여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도 되는 관대함이 있는 시기입니다.

우선, 차분차분하게 메모를 해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지 않은 것.. 그리고 나는 무엇에 큰 가치를 두고 있는지.. 그리고 대학 진학을 할 경우에 어떤 학과를 선택하고 싶은지..

아래의 검사지를 활용해 보아도 좋을 듯해요.

[워크넷 > 직업.진로 > 직업심리검사 > 청소년 심리검사 > 대학전공(학과) 흥미검사]

잠만보님, 우리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찾아나가기로 해요. 그리고 ‘나는 진로에 대해 고민할 줄 아는 꽤 팬찮은 아이’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넋 놓고 다가와 줄 것만 믿는 친구는 아니니까요.

훗날, 오늘의 고민이 잠만보님의 발전을 위한 성장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예요. 그러나 열심히 찾고 연마해서 멋진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믿어요. 파이팅!

커리어넷 드림.

【 1반 - 사례 3 】

성 명	강 효 자	소속 학교명	성남여자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국가에 도움이 되는 직업

국가를 위해 일하는 직업이 되고싶어요.

통일부에서 일한다던가, 독도를 지키다던가....

뭐 그런일을 하고싶은데 이런일을 할만한 직업있나요?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매우 큰 포부에 박수를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이 없어 멋진님으로 부를게요.

이렇게 큰 꿈과 멋진 포부를 가진 멋진님을 만나게 되어 너무 반갑고 행복합니다.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아주 거창한 일일 것이라 생각되지만

우리들이 본인의 맡은 바 임무를 다하며 살아가는 것도 그 일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멋진님은 남들보다 한 발 앞선 곳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고 모범을 보이고 싶어한다는 것이 짧은 글이지만 강하게 느껴졌답니다.

통일부에 대해서 궁금한 것부터 풀어 나갈까요??

멋진님이 통일부에 대해서는 알아보았을 것같구요.



통일부 외에도 국가 기관에서 일하려면 우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공무원 채용에 관한 정보는 아래에 링크할게요.

[나라일터 공개경쟁채용정보](#)

그리고 멋진님이 원하는 통일부 등의 분야와 연관된 학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행정학과](#)

[2\)정치외교학과](#)

[3\)국제학과](#)

[4\)국제지역학과](#)

멋진님은 아직 중학생이니까

통일부의 [통일교육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통일교육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 올 해도 통일 한마음캠프라는 것을 운영해서 우수한 학생들은 통일미래리더캠프에 참가시키고 있기도 하구요 - 멋진님도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서 통일에 관한 정보 및 체험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미래의 꿈을 위해 조금씩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 독도 관련 일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텐데요.

독도 관련 단체 들을 소개해 볼게요.

[1\)동북아역사재단](#)

[2\)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3\)한국이사부학회](#)

[4\)한국해양재단](#)

[5\)경상북도청\(환경해양산림국\)독도정책과](#)

만약 학교에 관련 활동이 있다면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같구요.

모든 일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우선 학교 생활부터 충실히-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대학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가 중요하다고 하다는 의미도 모두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국가를 위하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충실히 생활하는 것부터가 그 첫걸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멋진님이 국가를위해 무언가를 하려는 것이 작은 것에서 출발함을 보여주는 분이 있어 소개해드리고 답변을 마무리 할게요.

===> 용량이 너무 커서 안내만 합니다 : mbc 황금어장 193회

[서경덕](#)님편(한국홍보전문가)

커리어넷 드림^^



【 1반 - 사례 4 】

성 명	고 성 인	소속 학교명	애월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3회기인데도 계속 처음과 비슷한 내용으로 상담
- 1회기, 2회기에서 상담 내용을 실천하지 않고 비슷한 내용으로 상담을 계속할 필요 여부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1회기 때 가고 싶은 고등학교 내신이 너무 높아서 걱정
- 2회기 때 중 1때 보다도 더 낮은 중간고사 성적표와 꿈에 대한 상담 내용 실천 여부 확인이 필요한지 여부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고등학교진학

안녕하세요 저는 중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1학년때나2학년때나 남들이 알아주는 정도의 성적을 갖지 않았고

능력이 있던것도아니고 개성이있는것도아니고 공부를 잘하는것도아닌

학생입니다 이제 중학교 3년의 반이 지나고 있는데 저는 위기감과 절박함을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느껴서 열심히 해보려고합니다. 저한테 꼭 가야하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저는 그학교를 가야되는데 성적이 많이 좋지않습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잠념이 생각나고 말도안돼는 공상을 생각하며 공부를 안하고있습니다. 아직 1년반이 남았고 여름방학이남았는데 그때라도 열심히한다면 제가 가고싶은 고등학교는 갈수있까요? 제가 가고싶은 고등학교는 인문계고 알아주는 고등학교입니다.(과학고,외고는 제외) 거기 는 내신300점 만점의 280점을 넘어야 갈수있는곳입니다 하지만 전 그렇게 좋은성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은 1년반을 잘하면 그고등학교를 갈수있을지 고민입니다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1년 반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가고 싶은 고등학교 갈 수 있습니다.

ㅎㅎ님! 안녕하세요?

이전에도 성적 고민으로 비슷한 내용의 상담을 신청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 고민이 많겠군요. 이번에도 공부가 잘 되지 않아 상담을 신청했는데 선생님이 이전 상담에서 학습과 관련한 자세와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조언을 준 것을 상담 받은 이후 실천해보았는지 궁금하군요.

선생님이 아무리 좋은 공부 방법을 알려주고 용기를 준다 해도 이 고민이 해결되려면 ㅎㅎ님 자신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하고 있는 이 고민을 몇 달 후, 1년 후에도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번 상담에서 선생님이 주는 조언을 꼼꼼히 마음에 새기고 잘 실천해나가면 좋겠군요.

꼭 가고 싶은 고등학교가 있는데 성적이 좋지 않아 걱정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위기감과 절박함을 느껴서 열심히 공부한다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ㅎㅎ님이 위기감과 절박감으로 무장하고 있는만큼 이번만큼은 각오를 단단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면 1학기 기말고사에 충력을 다하시어 내신을 일단은 잘 받으세요. 그 고등학교에 가겠다는 목표를 세우셨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ㅎㅎ님의 확고한 의지가 가장 필요할 거라 생각해요. 나는 못한다 생각하는 것도 하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이 무척 중요하겠네요. 우선 가고 싶은 고등학교의 입시요강을 잘 살펴보세요. 요강을 살펴보면 학년별로 내신을 얼마나 반영하는지도 알아야하겠지요.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인가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만은 않다는 걸 알겠지요. 하지만 조금만 더 높고 하면 이미 늦어버립니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입니다.

공부하다 힘들고 어려울 땐, 그 고등학교를 방문하세요. 마음속으로 이미 나는 그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생생하게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떠오르나요. ㅎㅎ님이 그 고등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공부하는 모습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행복하잖아요. 지나가면서 남들이 부럽다고 쳐다보네요. 남의 모습이 아니라 ㅎㅎ님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난 할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뇌는 정말로 그 말을 기억해서 그 말대로 됩니다.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거든 공부 잘 하는 친구에게 물어보세요. 같이 공부하면 벗도 되고 능력도 오릅니다. 사실 혼자하면 공부가 재미없거든요. 친구들과 도서관에 가는 것도 좋습니다. 친구들과 공부를 하면 ㅎㅎ님이 모르는 것들도 알게되고 더 친할 수 있게도 되고 정말로 좋은 시간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 말 해주겠지요. 따라해 봅니다. 공부하는 습관도 만들어지겠지요.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ㅎㅎ님의 성향에 맞춘 자기주도학습이 공부 효율도 높여줍니다. 방학동안 보람있게 보내셨나요. 그동안 생각없이 낭비했던 시간이 후회되지요. 그러면 자투리 시간도 아까워 집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생각해 보세요.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도 좋겠지요. 당장 성적이 오르지 않다고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름방학에는 영어 수학 중에 하나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방학이 끝날 때까지 가장 많이 공부한 과목이 영어라면 영어가 전보다는 자신이 있겠죠. ㅎㅎ님도 영어성적이 오르고 노력하면 되는구나하는 자신감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신감이 넘치면 말이죠. 그 효과가 수학과 공부하게하고 국어도 공부할 수 있게 합니다. 물론 사회나 과학, 기술 가정공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2학기가 되어서 학교 수업을 제외하고 최소한 자기 공부를 하는 시간이 2~3시간 이상은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9월, 10월, 11월을 보내면 공부습관이 형성됩니다. 모르면 친구에게도 물어보세요. 선생님에게도 묻고요. 모른다는 것을 절대 뒤로 미루지 마세요. 바로 부딪치는 그 순간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그때 모르는 걸 공부하고 복습하면서 터득해나가는 것만큼 즐거움을 주는 것도 없지요.

한번 몰두하면 만사를 잊어버리고 길 가다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잠옷 바람에 집 밖을 서성이는 줄도 모르고 생각에 몰입했던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28세에 도덕 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을 써서 유명한 저자가 되지요. 그 이후 대륙 여행을 통해 고향 스코틀랜드에서 10년 동안 집필에 몰두하여 국부론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국부론을 쓰고 '보이지 않은 손'의 이론이 탄생하고 세계적인 '경제학의 아버지'로 추앙받게 됩니다.

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ㅎㅎ님! 생각만으로 끝나면 공상이고 시간 낭비입니다. 이 중에 한 두 가지를 반드시 실천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가고 싶은 고등학교 갈 수 있습니다. 1년 반이면 충분합니다. 이제부터 ㅎㅎ님만의 성공 스토리를 쓸 차례입니다. 멋진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커리어넷 드림

【 1반 - 사례 5 】

성 명	권 향 수	소속 학교명	수일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모니터링 위원으로부터 수정 요청받은 것과 자신의 견해 간에 이견이 있었던 사례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내담자가 표현한 ‘빨리 진로를 정해야 꿈에 맞게 진학하지 않을까’ 의 ‘진로’란 계열을 의미하는가? 희망 직업을 의미하는가?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진로를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이○○ 라고 합니다. 내년이면 중3 이고 그럼 고등학교도 정해야 합니다. 저희 언니가 지금 고2 인데 정말 엇그제까지만 해도 어느 고등학교에 갈까 머리 짜팠던 언니가 이젠 어느 대학교에 갈까 머리를 짜매는 모습을 보니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도 내년이면 중3인지라 언니와 같은 길을 밟게 될텐데 빨리 진로를 정해야 꿈에 맞게 진학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 사이트에서 진로상담이라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수학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수학이 제일 점수가 안나와서 또 고민입니다. 사회랑 과학은 싫어해서 문과, 이과도 고르기 힘들어 또 고민입니다. 이 상담을 통해서 제 고민이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꼭 좋은 답변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문과와 이과의 선택

안녕하세요. ○○님!



언니의 진로 선택에 대한 고민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하게 된 중학교 2학년 학생이군요. 많은 고등학생들조차도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데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 있는 ○○님에게 큰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영어와 수학을 좋아하지만 수학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아서 고민이고 사회와 과학을 둘 다 좋아하지 않아 문과, 이과의 계열을 결정하기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하셨네요.

○○님은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을 하여 문과나 이과를 선택하여 공부하고 대학교를 진학한다’는 대략적인 진로를 설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언니가 겪어 온 과정들을 보면서 문과와 이과 중에서 어느 계열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된 것이구요. 그러나 문과와 이과의 선택은 어떤 과목을 잘하느냐로 결정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갖고 싶은 직업 분야가 어느 쪽인가를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더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님이 원하는 직업이 무엇인지가 결정이 되면 그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학과를 찾을 수 있고, 그 학과에 진학하는 데 필요한 계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문과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교과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며, 이과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를 중점적으로 공부합니다. 따라서 ○○님처럼 사회와 과학에 모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문과와 이과를 결정하는데 막막해질 수도 있어요. 또한 문과와 이과에서 모두 수학을 배우지만 이과에서 수학의 비중과 중요도는 더 큼니다.

○○님!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중학교 과정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은 모두 다 중요하고 필요한 과목입니다. 사회와 과학이 모두 싫다고 피하는 것은 편식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점수가 잘 나오지 않으면 그 과목이 점점 더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수학은 좋아하기는 하지만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 고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공부하는 시간과 노력을 더 투자해서 극복해야 합니다.

○○님! 기초가 탄탄하면 꿈을 이룰 가능성이 더 많아집니다. 지금 배우는 과목들을 고르게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내주기를 바랄게요. 아울러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질지에 대해 탐색하고 꿈을 찾아 정한다면 문과나 이과를 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꿈을 찾은 후에도 고민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또 방문해 주세요.

커리어넷 드림

【 1반 - 사례 6 】

성 명	권 현 자	소속 학교명	송우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노래를 좋아하지만 재능이 부족한 학생이 가수가 되고자 하는 되고 싶어 하는 학생
- 현재에 다수의 학생들이 희망하는 연예계관련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진로선택에서 적성에 기본을 둘 것인가? 아니면 흥미에 기본을 둘 것인가의 문제
- 현재 10대 아이들이 희망하는 가수나 연기자 등에 대한 희망사항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의 문제-재직하는 학교에서도 가수, 아나운서, 배우 등에 대한 직업을 선망하고 있음.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가수가되고싶어요

제가 지금 중3인데... 공부도 못하고 춤은 아주 쩌~끔추고 노래는 잘부르는편은 아니지만 노래를 좋아해요... 지금 피아노학원을 다니고있어서 피아노도 좀 칠수잇거든요....진짜 가수가되고싶은데 노래도 잘못하고 춤도 잘 못추는 저그냥 가수되는거포기하는게 좋을까요???? (답변써주실때 이름이랑 현재직업 청소년기꿈과 청소년기활동 실패의 경험과 극복방법 삶의특징도 적어주세요....)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노래와 춤을 좋아한다면

안녕하세요. 루피님 반갑습니다.

커리어넷입니다.

루피님의 글을 읽어보면, 루피님은 노래를 좋아하고, 피아노도 칠 줄 알고, 춤도 좀 추는 학생이네요. 루피님의 질문을 보면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노래를 너무 잘부르니까, 그리고 노래에 너무 빈틈이 없으니까 멘토들이 선택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음정이나 박자가 완벽하지는 않으나 필(느낌)이 좋거나, 목소리가 좋으면 선택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루피님의 고민으로 다시 돌아가서, 루피님은 노래하는 것을 취미로 가져야 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재능을 키워서 가수 준비를 해야 할까요? JYP, YG나 윤종신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본다면 어떤 답변을 할까요? ‘루피님의 음악적 재능과 수준으로 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고민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발표하겠지요. ‘탈락’ or ‘합격’ 입니다.

그런데 오디션 프로그램 성격상 ‘탈락입니다’ or ‘합격입니다’ 라는 둘 중의 하나의 판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는 ‘탈락’ or ‘합격’ 만이 아니라 ‘부분적 합격’ 과 ‘부분적 탈락’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노래, 작곡, 반주, 음반제작 등)중에서 어떤 것은 포기하고 또 어떤 분야를 살려서 음악관련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수를 하려면 보컬재능이 있어야겠지요. 음악이나 노래와 춤은 다양한 곳에서 활용 되고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에 재능이 있으나, 춤이나 보컬재능이 부족하다면 가수가 아니더라도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노래나 춤을 통한 심리치료, 음반 산업, 라디오나 TV 프로그램에서 음악 관련 작업, 영화나 드라마에서 음악관련 작업, 게임에서 음악관련 작업, 작곡 등. 노래를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작곡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노래, 악기와 춤을 겸비한다면 이벤트 사회자나 레크레이션 강사의 자질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상담을 하는 저 또한 청소년 시기에는 ‘나의 재능이 무엇인가?’ 를 고민했었습니다. 책을 좋아하니까 출판하나 잡지사예 취직할까? 여행을 좋아하니까 세계적인 여행가이드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하고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니까 교사가 될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때 좋아했던 것들이 일부는 직업이 되고 일부는 취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나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 를 고민하고 좌절했었지만 그때마다 생각하면서 위로했던 것은 ‘세상은 변하고 있고, 나의 꿈도 변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의 꿈은 이를 것이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내일을 준비하자.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꼭 온다.’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긍정의 힘을 믿고 오늘도 열심히...

커리어넷드림

【 1반 - 사례 7 】

성 명	김 관 호	소속 학교명	화순중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진로문제를 강박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례로 판단됨.
- 내담자가 원하는 진로의 결과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내는 듯한 검사결과 (표준화 검사 결과에 대한 무조건적 믿음.)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다수의 표준화 검사를 실시함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방안
- 표준화 검사에 대한 무조건적 신뢰자에 대한 상담 방법.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고민되네요.

제 꿈이 국제회의전문가인데요, 경영학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를 걱정하고 있는데요 주위 반응은 특목고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목고를 들어가자니 내신이 걱정되고 일반고를 가자니 수능이 걱정됩니다.

특목고를 들어가서 내신보다는 수능을 위주로 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일반고에서 내신을 위주로 하는게 나을까요?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국제회의장을 찾아가 보세요. 꿈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akdl***님!

akdl***님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매우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고민의 끝에서 마지막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용기가 참 아름답다는 생각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kdl***님 고민을 같이 해결해 볼까요.



먼저 "국제회의 전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듯 합니다.

국제회의 전문가는 컨벤션 능력, 즉 회의 계획, 회의 진행, 호텔예약, 손님접대 등 회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토대로 국제적 행사를 대행해 주는 업무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어민 수준의 어학능력과 컨벤션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컨벤션자격증은 [큐넷](#)을 참고하세요.

둘째, 대학입시를 통해서 어떤 고등학교에 진학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학 입시는 수시전형과 정시 전형이 있는데, 최근 경향은 정시전형 보다는 입학사정관 등의 수시전형의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3학년도 서울대 입시에서 수시전형으로 80%를 선발할 예정이고 2013학년도 전체 대학입시에 63%정도를 정시가 아닌 수시 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서울대2013학년도 입학전형 참조](#))

학교내신, 수학능력시험 모두 중요한 요소이지만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준만 되면 대학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대학은 입학사정관제도 등을 통해 akdl****님이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를 판단하고, 국제회의전문가가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할 것 입니다. 그러므로 특목고와 일반고를 혼자서 고민하기 보다는 akdl****님의 현재 학업성적이나 학업능력 등을 학교 선생님들과 진로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세번째로 경영학을 전공하는 문제입니다.

국제회의 전문가는 재무회계등의 경영학 또는 회계학 분야의 전공 지식도 중요하지만 회의 기획, 진행분야, 통역분야, 이벤트 분야의 공부가 더 필요합니다. 경영학을 전공하는 문제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정리해 볼까요.

국제 회의 전문가는 외국어 능력이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외국어 공부를 위해서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외국어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외국어고등학교) 진학이나 일반고 진학은 akdl****님의 현재 학업성적이나 학업능력 등을 학교 선생님들과 진로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참고로 서울에서 국제수학교육대회(ICME-12)가 서울 코엑스에서 7월 8일~15일까지 열립니다. 직접 체험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서울에 여러 곳의 국제회의 전문가 양성 기관들이 있습니다. 방문해서 전문가 선생님들께 상담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akdl****님. 고민보다는 직접 체험을 해보세요. 그리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중학교때 진로를 결정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가지 변수가 많이 발생하고, 아직은 멀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장 큰 고민 부터 해결하세요. 그것이 학교 성적이면 공부를 조금 더 하고, 관심이나 경험이 필요하다면 경험을 해보세요. akdl****님의 꿈을 향한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 질 것입니다.

akdl****님에게 가장 좋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akdl****님 언제나 꿈을 가득 품고 생활하세요.

커리어넷 드림.



【 1반 - 사례 8 】

성 명	박 정 희	소속 학교명	용인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자신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 뭔가 찾아달라는 내담자에 대한 공감이 어려움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결국 공부의 기본은 교과공부 즉, 국어, 수학, 영어로 귀결되는 뻔한 내용으로 결론을 낼 수 밖에 없었는데 좀 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고 우리나라 교육현실에 맞는 좋은 결론 방향에 대하여 논의 필요함.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인생의 목표

삶의 목표가 뚜렷하게 없고요

공부의 흥미도 없고요

여름방학때 무엇인가 (공부) 해서 2학기부터는 성적을 올려야 하는데 고민입니다.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인생의 목표를 세우시려면

안녕하세요 토란캔슈타인님~*^

삶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니 공부는 왜하는 것인지 또 어떤 공부를 해야할지 많이 고민이 되고 힘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우리 토란캔슈타인님은 방학을 맞아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여 2학기에는 성적을 올리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다니 매우 대견한 학생입니다.

우선 하나씩 생각해보시다.

사람에게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요? 건강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며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선 건강해야겠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또 그 일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면 됩니다(여기서 도움을 준다는 건 꼭 봉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돈도 버는 것이죠.

그러자면 가장 먼저 건강한 생활을 위해 방학 동안에 좋아하는 운동을 한 가지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아주 간단한 걷기, 달리기, 줄넘기도 좋고 친구들과 일정한 시간에 만나 함께할 수 있는 운동도 좋구요. 그냥 있어도 땀이 나는 여름이지만 온 몸이 땀으로 흠뻑 젖도록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나면 정신도 맑아지고 생각도 정리가 잘 된답니다.

다음은 자신이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운지를 생각해 보아야겠죠. 우리 토란캔슈타인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 다음 그 일이 왜 재미있는지 자신이 그 일을 할 때 어떤 면을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생각을 하다보면 그 안에서 자신이 즐거워하고 잘하는 면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 자신이 잘 하는 것을 살릴 수 있는 몇 개의 직업을 탐색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목표하는 방향이 생기면 그것을 위한 준비, 즉 공부를 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나왔는데 내가 어디를 갈이지 모르면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가 삶의 목표가 없는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죠. 어디를 가야할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에서 나오기 전 친구 OO이네로 가려고 방향을 정하고 나왔다면 가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죠. 걸어갈지 버스를 타고 갈지 자전거를 타고 갈지 또 버스를 타면 어떤 버스를 탈지를 결정할 수 있겠죠? 이 가는 방법이 토란캔슈타인님이 하여야 할 공부인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렇게 딱히 무엇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즉 모든 사람이 집에서 나오면 어디로 가야겠다고 정하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집에서 나오기 전에 운동하러 갈지 친구 집에 가는 것이 좋을지 도서관에 가는 것이 좋을지를 생각해 보고 또 친구 집에 갈거면 누구네 가서 그 친구랑 무엇이 하고 싶은지 그 친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지금 토란캔슈타인님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구체적 직업이 아니어도 됩니다)를 생각해 보고 필요한 능력 자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탐색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느 날 아침 집에서 나와서 할 일을 결정하듯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지만 자신에게 대화를 걸어 물어보며 하나씩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을 나누어 보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어느날 아침 일어나 친구와 만나 어디를 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장소일 수도 있지만 점점 더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곳을 많이 가게 된답니다. 그러면 우선 그 곳까지 갈 수 있는 교통비를 챙겨야겠죠? 그리고 가다가 길을 모를 경우가 생기면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봐야하고 또 친구와 어떻게 목표하는 지점까지 갈지 의논도 하고 친구와 서로 자신의 의견에 대하여 양보도 할 줄 알아야겠죠. 여기서 말하는 교통비와 길을 물어보고 또 친구와 서로 다른 의견을 하나로 모을 때 필요한 것이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능력이 바로 우리 토란캔 슈타인님이 지금부터 갖추어야할 능력이랍니다.

정리하자면 친구를 만나러 갈 때 필요한 체력, 즉 운동을 한 가지 하시구요.

둘째는 그 친구랑 어디를 갈지 방향을 정하고(내가 하고 싶은 일) 의사소통능력에 해당하는 국어와 영어가 필요하고 그리고 중학교에서 하는 수학은 가장 기본적인 기초공사에 해당한답니다. 물론 이 세 가지를 모두 시작하면 좋겠지만 가장 좋아하는 한 가지 공부부터 시작하시는 건 어떨까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는 일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탐색을 한 후 다시 상담실을 찾아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신나고 보람 있는 방학 보내길 기원할게요.

커리어넷 드림

【 1반 - 사례 9 】

성 명	박 종 진	소속 학교명	대구 대진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상담하기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다.
- 계열 선택의 갈등은 많은 학생들이 겪는 문제이다.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내담자 문과에 적성이 맞다고 하고 이과 쪽으로 가고 싶다는 이중성을 상담자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상담을 하여도 되는 것인지?
- 과연 내담자는 정말로 문과에 적성이 맞는 것인가?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학과선택과 직업

제 적성에 맞는 것이 이과 보다는 문과 쪽인것 같은데 주변에서 하는 말들이 거의 다 나중에 자신이 나온 학과랑 관계있좋은는 직업에 일하는 사람은 10% 밖에 안된다 이과가 문과 보다 대학교 학과도 많고 나중에 취직도 더 잘된다고들 해서 갈등이 정말 많이 되고 있어요ㅜㅜ 솔직히 저도 문과로 결정 하는 것보다는 이과로 결정하는게 심리적으로더 안심이 되요 근데 나중에 이과로 대학 학과를 갔는데 흥미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구여 ㅜㅜ 제가 관심있는 직업은 CEO랑 심리학자 등이 예요 보시다싶이 문과쪽인데 어렵고 돈도 잘 벌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좋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흥미와 적성에 맞게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에 맞는 전공 학과를 선택하여 미래의 삶을 행복하게 살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00님.

00님은 계열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군요. 반갑습니다.



문/이과 계열선택은 대학의 학과선택, 앞으로의 직업선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취업을 고려하여 계열을 선택하려는 00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취업이 잘되는 학과/계열이라고 할지라도 취업이 되지 않는 학생들도 있고, 아무리 취업이 어렵다고 알려진 학과/계열이라고 멋지게 취업에 성공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특성이나 관심분야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취업에 유리하다는 조건만을 가지고 계열을 선택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열선택의 문제는 단지 고등학교 과정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취업까지도 연결되므로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이과 계열별 관련 학과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학과를 선택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좋은 성적이 나오면 취업은 잘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된다면 돈도 많이 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전공과 관련 있는 직업을 구하여 일하면 소득이 더 높다.” 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클릭 ➡ 대학 전공과 직업 같으면 소득 더 높다

과거에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무시하고 대학에 진학하여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00님은 흥미와 적성에 맞게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에 맞는 전공 학과를 선택하여 미래의 삶을 행복하게 살기 바랍니다. 경영학과와 심리학과 중 어느 것에 관심이 더 있는지 관련 직업을 충분히 알아보고 선택을 한다면 확신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CEO의 경우는 꼭 경영학과에 가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과에 어떤 학과가 있는지 그 학과와 CEO와 연계해 볼 수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클릭 ➡ 미래의 직업세계 학과편

상담이 도움이 되셨나요. 고민이 해결되지 않았거나 또 다른 고민이 있으시면 저희 상담실을 다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님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커리어넷 드림

2012년 커리어넷 상담위원단 슈퍼비전 자료집

2반 사례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반 - 사례 1 】

성 명	김 민 환	소속 학교명	김해율하고
-----	-------	--------	-------

1. 사례 선정 이유

- 상담 내용이 상당히 길고 요약이 쉽지 않음
- 고2인데 상담한 내용 피드백 필요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상담 내용의 요약
- 응답 내용 논의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전과를 해야할지..

안녕하세요. 고2 학생입니다.

제가 이과인데요. 이과인 친구가 2학기 때 문과로 갈려다가
결국 계속 이과에 남아있었는데요.

2학기 때 문과로 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5월 중순부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몇일전 부모님과 상담선생님이랑 이야기는 좀 했습니다. 두 분다 가도 괜
찮다라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좀 짹짹해서..

제가 이과에 온 이유는 꿈 때문에 온건 아닙니다.

그냥 1학년 때 상담 같은 것도 안해보고 생각도 없이 그전에 (중학교때) 조금 수학을 했었다고
오게된 것 같습니다.

성적은 1학년 때는 '국영수'가 비슷했고 '사회'를 좀 잘했고
'과학'은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말고사를 치고나서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등급이 참... 국어는 그대로인데 영수과가 진짜 못했습니다.



공부 성향도 바뀌는지 수학은 1학년 2학기부터 점점 흥미를 잃어갔습니다. 그전에는 좀 재밌었는데 말이죠. 뭐, 수학 공부를 많이 안해서 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공부를 안한것도 아닌데 "수학"을 너무 못쳤구요. (등급은 안나왔습니다만, 중간고사 때 조금 잘 쳐놓아서 "수1"이 한 5~6등급 나올것 같습니다. 기말 점수는 반에서 뒤에서 한자리대)

"수2"는 4등급정도..

'영어'는 5등급인데 진짜 솔직히 1학년때보다 영어를 더 많이 했는데 이 모양이네요.

(공부방식이 잘못됐건가? 1학년 때 영어공부방식 그대로 해서 그런가?)

2학년을 맡으신 영어 선생님께서 갑자기 무슨 심보가 나셨는지 범위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안 그랬다던데 말이죠..] 2학기 중간고사는 벌써부터 범위를 가르쳐주셨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는 1학기 중간,기말 다 합친 양이죠. 아!, 헛소리가 좀 있었네요)

'과학'은 생물,화학이 5,6등급예요. 엄청 못쳤죠. 과학이 어려운건 아닌데 뭐라고 해야하나 흥미가 안가서(?) (이건 변명일려나요?) 공부를 많이 안 했습니다.

(결론은 노력 부족인가?)

사회는 1학년 때 생각해보면 좀 재밌게 한 것 같습니다. (사회 안한지 7개월이 넘어가니 그 기억도 가물가물해 지는 것 같군요)

중학교 때도 재밌게 한것같구요.

(많이 노력은 안했지만) 이대로 이과에 있다가는 성적이 바닥을 칠 것 같고.. 뭐랄까 솔직히 이번에 등급보고나서 이과에서 성적 잘 받을 자신이 없어졌어요.

또 문과에 가서도 갑자기 문과가 안 맞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고..

꿈은 "아! 이거야!" 이런건 없지만 흥미가는 과는 몇가지 있습니다.

심리학과,간호학과,생명공학과 // 생명공학과는 정말 유일하게 이과에서 흥미있는 과라고 할 수 있는데 계속 생각해볼수록 점점더 헤갈리구요.

이거 쓰면서 느낀건데 아마 전 뭔가 좀 편하게 할려고 전과를 할려는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드네요. 과학만 봐도 어렵게 느끼진 않았는데 등급이 그 따위인걸 보면..

근데 정말 전 공대쪽으로는 별로 흥미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솔직히 문과쪽도 흥미가 많은 것도 아니죠.

간호학과는 문이과에서 뽑고 심리학과도 심리학은 재밌긴한데 직업으로서 과연 잘 할수 있을지 의문이 가고요. 근데 간호사는 왜 흥미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순간 생겨버렸어요..

아.... 제가 뭘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헤갈리고 복잡만하네요...

앞에서 말했던 그 친구가 말하길 전과시에 전과목 80%의 성적을 가지고 옮길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일단 상관안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전과할지 안할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방학 때는 엄청 열심히 할 것 입니다.

※제가 썼지만 뭔가 좀 이상하게 쓴 것 같아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전과해도 괜찮을까요?"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자신이 확신할 때 전과

휴지님!

반갑습니다.

커리어넷 방문을 환영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복잡하면 휴지라고 했을까요?

하지만 저는 매일 매일 소중한 곳에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활용되는 “휴지” 라고 생각되네요.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전과” 에 대한 대답은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고스란히 자신의 몫이니까요?

일반적으로 2학년 때 전과를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반적으로는 안되는데...

휴지님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성적이 나오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성적이 생각만큼 나왔더라면 이런 고민을 하였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2학기 개학 때까지 확실하게 공부 계획을 세워서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난 뒤에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성적이 나오지 않아 전과했는데도 그곳에서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요?

그럼, 몇 가지 제안을 해 볼게요.

1. 심리검사를 통한 자기 이해하기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심리검사를 해봅니다.

* 커리어넷 : 커리어넷→ 검사프로그램→심리검사→중고등학생 심리검사 → 직업적성검사*직업 흥미검사*가치관 검사

* 워크넷→심리검사*직업정보→직업심리검사→청소년용심리검사→청소년 직업흥미검사*청소년 적성검사(고등학생용)

2. 자신의 결정 되 짚어보기

방학을 이용하여 공부하는 틈틈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가. 이과의 이점 30가지 적기(예, 이과가 대학 입학, 취업에 유리 등등)

나. 인문과로 전과해야 하는 이유 30가지(예, 이과 성적이 안 나옴, 사회과 성적이 비교적 좋음 등등)

3. 동기부여를 위한 책 읽기와 동영상 시청

가. “너, 외롭구나(김형태, 예담)”, “멈추지마, 다시 꿈부터 꿰 봐(김수영, 웅진)” 등 꿈 관련 도서 읽기

나. 역경을 딛고 성공한 사람(김수영, 김혜영, 이지성, 이지선, 최성봉 등등) -> 유튜브 활용

4. 학습계획 세워 실천하기

방학 중 학습계획을 세워 아주 구체적으로 세워서 실천하기(만약, 힘들면 램프온 스터디 활용)

휴지님!

위의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 외에 자신에게 맞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동원하여 알찬 방학을 보내시고 결론을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자신만만하게 확신이 서는 휴지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커리어넷 드림.



【 2반 - 사례 2 】

성 명	김 선 성	소속 학교명	성덕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자신의 진로에 대해 5회기에 걸쳐 상담할 때마다 바뀌 일관된 조언의 어려움
- 진로 미결정으로 조급해하는 학생들의 상담자에 대한 신뢰도 제고방법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상담자의 조언을 경청하지 않고 자기주장만을 되풀이하는 내담자 상담
- 실현가능성이 낮은 진로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기대하는 내담자의 상담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변하는 진로....

항상 좋은 답변을 해주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모습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상담을 온라인 상으로 3번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정말 좋은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 질문들이 저의 잠깐 잠깐 떠오르던 생각들이더군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컴퓨터 쪽 관련 직종을 가지면서 음악을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을 하게된 계기가 무엇이나면

음악은 소리를 기본으로 하는 활동인데 과연 내가 음악을 좋아하게 된 것은 고1때의 유학때문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하는 것을 생각해보려하니 다른 사람들보단 손이 빨랐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타닥타닥거리는 소리도 좋아했구요.

그러다보니 컴퓨터 쪽 직업도 생각이 나서 한번 알아보고자 다시 상담을 드립니다.

제가 원하는 직종은 정보보안쪽의 일입니다. 물론 공부를 하면서도 음악을 할 것이지만요. 이 정보보안 쪽 즉 컴퓨터 공학 (전산학과라고 하더라도?) 을 공부하다보면 아무래도 공학쪽인데 과연 음악에도 손을 대면서 할수 가 있을런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구요. 어떻게 하면 전산학과에 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이 됩니다.

제 지금의 성적은 고1 5~6등급 , 고2 1학기 총 성적 2~3 등급입니다.

이 성적으로 성적을 올리다 보면 최대한 제일 잘 갈수있는 전산학과는 어디일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구요.

전산학과에 가려는 이유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심이 조금은 가는것같구요 음악을 배우는데 있어서 전문가 즉, 학원을 다녀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배우는데 있어서 제가 돈을 벌면서 다니고 싶었구요, 또 강의가 제 체질에 맞다 싶어서 생각해보니 일단 학벌이 좋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좀 정리가 안되는데요 정리를 하자면요.

1. 제 성적으로 갈 수 있는 수도권의 전산학과는 어디일까요?(성적을 꼭 올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전제조건. 또 저는 싫어하는 단어 이지만 스펙을 쌓는다 하면 전산학과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봐주는 스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대학을 다니면서 음악을 같이 공부할 시간이 생길까요?

(알바를 할 시간도 생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바란 학원 같은 곳의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알바. 한달에 100만원 까지 가능할까요??)

3.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는 있지만 둘 중 하나를 먼저 잡는다고 생각을 하라 하셨는데 음악이라는 토끼를 먼저 잡을 수도 있겠죠??

정리가 잘 안되긴 하는데요 1, 2, 3 번 질문을 토대로 답변을 해주시면서 저한테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태껏 좋은 답변 해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함께 고민할 수 있어 기쁩니다.

안녕하세요. SU님.

커리어넷을 자주 방문하여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함께 고민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내신관리도 해야지 좋아하는 음악도 열심히 해야지 또 다양한 진로에 대한 생각도 정리해야지 등등 너무 바쁜 SU님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전산학과와 관련있는 학과는 컴퓨터공학과, 컴퓨터응용학과, 컴퓨터과학과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도권에서 전산관련학과의 평균내신등급은 2등급내외입니다. SU님이 지금처럼 내신관리를 이상향이 되도록 열심히 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정보보호전문가의 꿈을 안고 입학사정관제를 위해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디지털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그래픽스운용기능사, 국제공인 웹마스터



자격시험(CIW) 가운데 가능한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신다면 더욱 좋겠지요. 그러나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보통 6개월 정도의 공부기간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해커들로부터 안전한 정보보호를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음악을 병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정보는 커리어넷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산학과 입학과 관련하여 특별한 스펙이 없더라도 SU님이 내신성적과 성실한 학교생활이 담긴 생활기록부, 그리고 전산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와 지금처럼 다양한 진로탐색을 통한 노력의 과정을 소신있게 담은 자기소개서를 준비한다면 충분히 수도권 진학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산학 등 컴퓨터 관련학과와 음악의 관계는 요즘 아주 밀접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SU님도 미디(MIDI)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죠? 미디는 'Musical Instrument Digital Interface'의 약자로 각기 다른 악기를 공통된 전자 언어를 사용하여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컴퓨터 네트워크입니다. 미디는 컴퓨터 단말기와 관련 소프트웨어, 신시사이저 등만으로 가능한 모든 음을 창조해내는 장점이 있어 음악의 작곡과 연주에 유용하게 이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과공부에 음악공부, 그리고 학원아르바이트까지 SU님이 너무 힘들게 대학생활을 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여러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다보면 깊이있는 공부를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미래를 준비할 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집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시간배분을 잘 하셔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잡아야 할 토끼를 자꾸 늘리다보면 모두 놓칠 수도 있습니다.~o~

SU님. 진로고민도 많이 하지만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SU님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고2의 여름은 고3의 여름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3의 여름은 수시를 준비하느라 제대로 공부에 집중하기 힘들기 때문에 고2여름을 알차게 보내야 자신의 꿈과 미래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음악을 너무 좋아해 두번째로 밀어낼 수 없는 SU님에게 꼭 정보보호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전산관련학과 진학은 이과재학생으로서 유리한 선택일 뿐만 아니라 음악도 발전시킬 수 있는 상생의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대학마다 인재상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날 때 지망하고자 하는 수도권 대학과 학과를 검색하고 입학자료를 꼼꼼이 살펴 미리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입시의 중요한 팁입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방학되시길 바랍니다.

커리어넷 드림.

【 2반 - 사례 3 】

성 명	김 성 길	소속 학교명	연수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고교 선택을 적성과 흥미에 맞게 하는가?
- 성적과 실력에 의해 선택되어지는 것은 아닐까?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자신의 꿈이 있어도 실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적성과 흥미검사는 과연 정확한가?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너무 힘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중학교3학년이 한 여학생입니다

요즘 한참 고등학교 진학으로 인해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커서 되고 싶은게 있어야 진학을 선택할텐데 제가 조금이라도 하고 싶은게 생긴다해도 그 직업에 대해 조사해보다 보면 제 실력으로 어려울 것같아 실망하기도 하고 진로를 정할수 없습니다 확실히 하고 싶다 하는 진로를 선택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 적성 흥미 테스트를 해보아도 제가 생각한것과 다르고 그 테스트에 의존할수가 없고 혼자서도 어려우므로 이 글을 올립니다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진로선택

안녕하세요. 진로선택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군요.

진로 선택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자신의 진로를 완벽하게 설계한 학생은 많지 않습니다. 고3 대입 원서 쓸 때 정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아직 중3 이시니까 너무 조급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어릴 때 꿈이 있었고 꿈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OO 님도 자신의 꿈을 찾아 보세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먼저 적성과 흥미가 무엇인지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커리어넷에서 직업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 직업가치관 검사, 진로 상속도 검사를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구요, 또한 분야별 직업세계, 직업사전을 찾아보시면 직업정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아하는 직업을 찾기 어려우면 좋아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방법도 있으며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미래사회의 변화와 직업전망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래사회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이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직업군은 4가지로 단순화될 것인데 반복적인 단순노무직의 비중은 감소할 것이며, 판매직, 음식서비스직, 방법·방화직, 건물관리직 등 대인서비스직이 발달하고, 기초과학, 응용과학, 인문학, 사회과학 등의 연구자이거나 법조인, 경영인, 자동화기계 생산관련자 등의 연구·분석직 종사자는 수요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작가, 음악가, 미술가 등 문화·예술직으로 단순화 될 것입니다.

자신이 찾은 직업이 자신의 실력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실망했다고 하였는데, 노력도 해 보지 않고 포기하기에는 너무 빠르다는 생각도 듭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차선택이라도 찾으셔야 합니다. 꿈은 노력한 사람만 이룰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고민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다면 일반계고를, 취업을 원하시면 특성화고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특성화고의 경우 공업계, 정보계, 상업계, 디자인계 등이 있습니다. 이 역시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제 설명이 도움이 되었나요?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커리어넷 상담실을 다시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커리어넷 올림

【 2반 - 사례 4 】

성 명	김 성 자	소속 학교명	창원사과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시사적인 직업에 관심을 가지는 청소년들의 직업관
- 멋있는 직업에 대한 관심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무대에 오른 사람의 직업이 자사의 직원인지 아님 전문직업인인지 애매함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이런일 하고싶은데 어느분야에 전공해야 하나요?

이런일 하는 직업을 뭐라고 부르고 이런직업을 할려면 무엇을 전공해야 하나요?

예를들면 이번에 갤럭시3 나왔을때 외국인들 앞에서 무대위에 큰스크린 앞에서 영어로 갤럭시 3 소개하는 프리젠테이션하는 사람이요

또는 이번에 엑스포 개최했을때 외국인들한테 영어로 엑스포에 대해 설명하는사람

또는 SNBC뉴스에서 주식정보에 대해 영어로 말하거나 외국인들과 소파에 앉아서 인터뷰하는 사람이요

이런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그리고 어느과에 진학해야 하나요?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프레젠테이션 마스터, 여수엑스포 통역사, 증권분석가예요.

안녕하세요. ○○님. 커리어넷입니다.

○○님은 관찰력이 매우 예리하시군요. 그것을 직업인으로 생각하시고 직업명을 알고자 질문을 하시다니 대단한 관찰력이십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관련 회사에서 설명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것만 주문 신청 받아 며칠을 밤새워 연구하는 직업인이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마스터**라고 합니다.



마스터는 모든 과정을 혼자서 총괄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아직 마스터 단계까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 협력 관계로 디자이너, 기획자, 강사가 있습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마스터라고 할 수 있지요. 본인이 총괄하고 실행하여 개발상품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때부터 이런 직업인이 매우 부각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단체로 운영하기도 하고 개인이 프리랜서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관련대학이나 학과는 특별히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컴퓨터관련학과에서는 컴퓨터 운용능력을 기를 수 있지만 프레젠테이션은 컴퓨터 운용능력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스터 단계이전의 단계에서 알 수 있듯이 디자이너는 디자인 능력이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강사는 언어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어느 학과라고 지정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닙니다. 컴퓨터 공학과나 멀티미디어학과, 그래픽디자인학과를 나와서도 할 수 있고 국문학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개최에 대한 것을 외국에 영어로 설명하는 직업은 **통역사**라고 합니다. 통역사가 하는 일은 매우 다양하지만 각종 국제대회 개최 및 진행을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직업에서 매우 우수한 경우에 그런 업무를 맡을 수 있겠지요. 더 자세한 사항은 커리어넷 직업사전에서도 알 수 있으며 [국제통역사절단](#) 홈페이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학과는 언어관련학과는 모두 도움이 됩니다. 영어영문학과, 러시아어과, 독어독문학과 등입니다.

또 주식 정보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증권분석가**로서 전체적인 동향을 설명하며 소개하는 일을 하는 직업입니다. 여기에도 각 증권사마다 연구원이 있지만 [한국증권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학과는 통계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가 있습니다.

○○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 직업들은 우수한 영어능력과 언어표현력이 요구되는 직업입니다.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자신도 그 자리에 있게 된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진로를 위해 열심히 탐색하는 모습이 정말 대견스럽군요.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다시 방문해 주세요. ○○님의 꿈을 위해 파이팅!!

커리어넷 드림.

【 2반 - 사례 5 】

성 명	김 수 진	소속 학교명	동대전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내담자의 다회기 상담 신청이 오히려 진정성이 부족한 듯 판단
- 상담 신청 때마다 내담자의 인적 사항의 불일치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원하는 직업 정보가 상담 회기 때마다 상이할 경우 대처 방법
- 현실 감각이 매우 부족한 내담자에게 현실적인 답변 수위 수준 판단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 비리? 경찰비리나 국회비리
에 관심이 많은 20살입니다TTT

그게어릴땐 몰랐는데 요새들어 19살부터 알고싶다는생각이 너무커졌어요

근데 경찰대 갈려면 서울대만큼노력해야하는데 이미 수능 공부 한지 너무너무오래되서 수능공
부 버리기가 아까워서요TTT제가 수리가형 보는데 경찰대는 고작수리나형만 보고 제가 수학
한것들은 너무아깝고TT

아깝기도하고 나이도나이인지라..너무늦었고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직업을고를땐 내가정말그걸 잘하고 내가정말그걸좋아하고

내가그걸로 생계를꾸릴수있을지 보라고했는데

전 비리같은거 밝히고 싶고요 근데 이걸잘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생계는 솔직히 전 생계는 필요없거든요;; 부모님정도 챙길정도만되면..

음 역설일수도있겠네요 생계필요없다는데 부모님정도챙길정도라 역설일수도잇겠지만 TT 무
튼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일단대학가고 군대갔다와서 경찰공무원 준비해볼까요??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사법경찰이 되기 위한 방법

안녕하세요, 현철님.

저번 상담에 경찰이나 공무원 비리를 밝혀 내는 직업으로 검사와 국회의원, 기자, 감사직을 소개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관에 대해 문의를 해 주신 걸 보면 비리 척결과 사회 정의를 위한 직업에 뛰어들 열정을 가지고 있는 듯해요. 경찰관이 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 것 역시 구체화된 진로 탐색을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경찰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나이 제한이 없고 고교 졸업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늦은 것은 전혀 아닙니다. 현철님이 직업을 고를 때 고려했던 좋아하고, 잘 하고, 직업으로서 생계를 꾸려갈 수 있을 지 여부의 요건에 나이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현철님이 간절히 원한다면 충분히 준비하고 지원할 수 있어요. 경찰대학에 합격하는 데 높은 성적을 요구하는 게 현실이지만, 시도해서 성공하지 못 할지라도, 최소한 시도하지도 않고 미련을 갖는 것보다는 나올 거예요.

경찰관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나뉘는데, 행정경찰은 사회 질서의 유지, 즉 사전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려는 예방 경찰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이에 비해 사법경찰은 법익이 침해된 때에 범죄를 수사하는 활동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보조 기관이고요. 현철님이 바라는 경찰관은 민생 치안을 위한 행정경찰이 아닌 검사와 함께 비리를 밝히는 사법경찰관이라 생각해요.

경찰관은 경찰대학을 졸업해서 경찰 간부가 되는 방법, 경찰 간부 후보생 시험에 합격해서 1년간 교육 수료 후 경위로 임용되는 방법, 경찰공무원(순경) 시험에 합격해서 순경으로 임용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경찰 간부 후보생 시험은 학력 제한 없이 만 21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해요. 경찰공무원 시험은 일반 공채와 경찰행정학과(줄여서 경행) 특채로 나뉘는데, 일반 공채는 18세 이상, 경행 특채는 20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일반 공채는 학력 제한이 없지만, 경행 특채는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사람으로서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제한하고 있어요.

현철님이 경찰관이 되기 위한 여러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경찰대학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되어야 해요. 시험을 통한 채용은 필기, 신체, 체력, 적성, 면접을 거쳐야 하는데, 필기 시험에 합격하기에 유리한 학과는 경찰행정학과, 법학과, 행정학과가 있습니다.

현철님 생각대로 대학 진학을 고려할 경우, 위에 소개한 학과에 입학해서 학과 공부를 하는 게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대학을 진학하지 않더라도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병역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일단 군대를 다녀와야 시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경찰공무원에 채용되어 경력과 실력을 쌓으면, 현철님이 원하는 사법경찰이 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어요.

현철님처럼 비리에 분노할 줄 알고 정의를 찾기 위해 마음을 기울일 줄 안다면 현철님은 공정한 경찰이 될 기본 자격을 갖추었다고 여겨요. 꿈을 현실화시켜 현철님이 바라는 직업에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랄 게요.

올해 발표되었던 경찰공무원과 경찰 간부 후보생 채용 시험 공고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세요.

커리어넷 드림.



【 2반 - 사례 6 】

성 명	김 순 애	소속 학교명	경운중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일반고와 특성화고 졸업 후의 진로 경로와 관련하여 현실적인 차이점과 전반적인 유의사항 정리 필요함
- 가능하다면 고교명이 거론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근무 교사에게 배분되는 것이 더 좋은 답변 제공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짐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일반고와 특성화고 진학을 고민하고 있으면서 대학 진학을 계획하는 경우에 일반고와 특성화고 중에서 어디를 권유하는 입장을 가질 것인가?
- 특정 고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어떤 학교가 좋을지를 추천을 원하는데 상담자가 그 지역의 고교 정보가 현실적으로 부족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고등학교

안녕하세요 OO OO구 OO여자 중학교에 다니고있는 학생입니다

이제 삼학년이고 고등학교를 선택해야할 시점에서 인문계 말고 실업계를 갈생각을 하고있는데 강산여자공업고등학교하고 북바다정보산업고등학교 를 두고 갈등하는중인데요 제가 꿈이 요리사라 식품과학과(강여공) 식품조리과(북바다) 어디가는게 더도움이될까요?

대학안가고 바로 호텔주방으로 취업하고싶은데 어느학교가 더 취업이 잘될까요?

그리고 대학을간다면 수시로 가고싶은데 실업계에서 내신1등급이면 최고 어느대학을 갈수있는지..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고등학교 선택이 고민이군요

안녕하세요. 김하늘님

하늘님은 요리사가 되고 싶고, 고등학교 선택 문제가 눈앞에 놓여있는 중3학생이군요.
 강산여자공업고등학교(이하 강여공) 식품과학과 또는
 북바다정보산업고등학교(이하 북바다) 식품조리과 중에서 선택하려는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이왕이면 두 학교 가운데 호텔 주방 취업이 잘되는 학교를 가고 싶구요.
 또 만약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수시 선발로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면,
 어느 대학에 갈 수 있을지도 알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하늘님은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여 호텔조리사가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북바다는 식품조리과는 없으며, 호텔조리과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학교홈페이지에 있는 학과 소개를 보면 다음과 같아요.

강여공 식품과학과

- 식품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식품의 가공과 유통, 식품조리, 제과제빵에 관한 기술을 익혀 식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웰빙 식품과 바이오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는...

북바다 호텔조리과

- 호텔외식산업을 접속하여 세계화 흐름에 맞는 국제적 감각의 조리사 양성을 목표로...(생략)
 전문지식과 실기 능력을 가르쳐 조리 외식업계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늘님!

학교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학교를 평가하고 선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어느 학교가 더 호텔주방에 취업하는 것에 유리하다고 권할 수는 없지만
 두 학교의 학과가 교육목표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아요.

요즈음 대학에서 실업계 전형이 있긴 하지만 차지하는 비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앞으로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줄어드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마다 사정이 달라서 입시요강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데,
 대체로 선호하는 상위 대학에서는 최저학력기준을 맞추어야 합격이 가능하므로,



내신1등급을 받고도 수능 등급이 되지 않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저학력기준이 없는 경우의 학교는 면접이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하늘님이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학진학을 생각한다면 특성화고등학교 가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 또는 진로진학상담 선생님과 상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진학 희망 고교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정보도 알아보고
고등학교 졸업후 진로에 대하여 부모님과 의논하여 진로계획을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하늘님이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커리어넷 드림

【 2반 - 사례 7 】

성 명	김 연 희	소속 학교명	조대여자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모두 관심이 없고 안될것만 같은 진로인데 어떤 것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중학생입니다.

저는 항상 뭘하면 지겹고 짜증나고 우울합니다.

부정적이라고 하는게 맞겠네요

요즘 부모님께서 넌 커서 뭐가 될꺼냐

넌 왜 그러냐는 등.. 꿈도 없는데 할수 있는게 있긴하겠냐..

맨날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스트레스구요..

여기서 나의 적성검사를 했는데 음악이 80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노래를 잘 하는것도 아니고 그냥 감정몰입만 되는거지

실력으로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렇다고 작곡가를 하기에는 머리가 그렇게 잘 돌아가지도 않
구요ㅠㅠ

어떤 진로를 할지 가르쳐주세요..ㅠㅠ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진로를 이렇게 결정하세요...



안녕하세요. 커리어넷입니다.

혜림님은 자신의 진로문제로 고민이 많아서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는군요. 부모님과 갈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제 마음도 아프고 염려스럽습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알려주지도 않고 타박만 하시는 분이 주위에 계시면 저라도 속상하고 우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혜림님은 좌절하지 않고 커리어넷을 찾아 적성 검사도 해보고 진로상담도 신청하는 것을 보아 결코 부정적인 학생이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인 진취적인 중학생이라고 판단이 되어 칭찬해주고 싶네요.

혜림님!

자신의 진로를 중학교 때부터 이미 결정하고 준비하는 학생은 실제로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시절은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우며 자신의 성격이 내성적인지 외향적인지, 장점과 소질 또는 재능은 무엇인지, 흥미와 적성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혜림님이 하셨던 커리어넷 적성검사는 의미있는 행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그렇다고해서 작곡가라는 특정직업에만 한정지어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혜림님은 중학생이고 하니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좀더 진지하게 진로를 탐색하여 보기로 하면 어떨까요?

혜림님은 학교생활 중 어느 과목에 흥미를 느끼는가요? 또 현재 어떤 과목을 잘하고 있을까요? 등과 같은 현실적인 물음을 통해 학업 결과도 진단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담임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과 상담도 요청해보며, 또한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나는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 등 약간 추상적이지만 이러한 물음을 통해 자신에게 답을 구하면서 자아를 진지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

물론, 진로에 관련한 서적을 학교나 공공도서관에 가서 참고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지요.

혜림님의 진로에 대한 부모님의 염려스러운 말씀에 대해서는, 평상시 부모님과의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저는 무엇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등의 물음을 통해 혜림님 자신도 진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짐작하시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이러한 내용을 편지에 담아 부모님께 전하는 것도 좋을 듯하고요, 물론 지금 혜림님이 부모님께 진정 바라는 것은 격려와 칭찬의 한마디라고 살짝 덧붙인다면 혜림님의 고민스러운 마음을 헤아려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혜림님! 궁금한 것이 어느 정도 해결되셨나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또 다른 상담을 하고자 하시면 언제든지 커리어넷에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정성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커리어넷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커리어넷 드림.



【 2반 - 사례 8 】

성 명	김 영 조	소속 학교명	영광실업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실현이 어려운 꿈을 지닌 내담자에게 현실성 있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방법 고민
- 막연한 긍정적인 격려보다 현실을 직시하는 상담 요령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진로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내담자가 실현 불가능한 진로를 선택하려고 고민하며 상담을 요청할 때 내담자에게 상처가 아닌 용기를 줄 수 있는 방안
- 현실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의 자질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경찰관/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한 꿈없는 고등학생입니다.

아 꿈이 없다고는 할수 없죠..

저는 선생님이 되고싶은 꿈과 경찰관이 되고싶은꿈이 있습니다.

일단 저의 상황을 말해드리자면

다니고있는 학교는 실업계고등학교지만 저는 그 고등학교에서 실용음악과를 다니고있어요..성 적은 그닥 좋지 않은편이구요.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한다면 상위권에 들어갈 자신은 있습니다. 처음에 음악으로 가려다가 점점 관심이없어지고 진로에 대한 걱정을 하게? 獐 樗?. 제가 처음 부터 음악을 하려고 했던것도 아닙니다.

중학교때에는 형사가 꿈이였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하고 경찰대학교에 가려는 큰꿈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하고 해서 학교에서 중상위권까지는 올라갔는데 거기까지가 한계인것같아 음악을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되버렸죠.

음악이 싫은건 아니지만 미래에대한 걱정도 되고 해서 미래 직업을 장래희망을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에야 바뀌었자 늦었지만 노력은 해보고 싶어요. 노력을 안해보면 또 나름대로의 후회가 오겠죠.

일단 제가 생각해놓은 꿈은 중,고등 과학선생님과 경찰관입니다. 이두 직업은 연관이 없어보이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그저 하고싶은 직업일뿐입니다. 음악을 포기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관심이 가고 경찰관이라는 직업은 내가 중학교때 가? 병? 꿈인 형사의 핑대신 닭 이라고 표현할수있죠.

우선 선생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지금 나의 상황에서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질수 있기는 하는지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경찰이 되는 방법도요.

특성화고 실용음악과를 다니는 학생인데 저 두직업중 하나라도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노력하겠다는 그 마음이 바로 희망이에요~~

안녕하세요, 인섭님~

장래 꿈 중에 선생님이 있는 걸 보니 인섭님을 가르쳤던 여러 선생님 중에 훌륭한 분이 많았구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잖아요? 닭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건 멋진 세상을 살아가는 행복을 주고 반대로 닭기 싫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는 살지 말아야지!"하는 사회에 대한 정화, 변화를 추구하는 의욕을 주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하는 일인 "교육"을 교육학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인섭님의 두가지 꿈인 선생님과 경찰관이 연관이 없어 보인다고 했지만 사회가 추구하는 의지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인섭님은 사회 정의를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는 준법성이 강한 학생이네요~~ 듬직합니다.



인섭님~

사람들은 성장하면서 보통 4단계를 거쳐 진로를 선택하고 사회활동에 진입하게 된답니다.

1단계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기간이죠, 이 때는 진로가 장차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다는 소원이나 생각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시기랍니다.

2단계는 중학생시기예요. 1단계의 소원과 생각에다 흥미가 선택기준으로 추가됩니다. 인섭님이 이 때 형사가 되고 싶었던거죠?^^

3단계는 고등학생시기예요. 이때는 소원과 흥미가 사라지거나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학업성적, 신체조건 및 건강, 체력 등)과 적성, 가치관이 진로선택의 기준에 추가됩니다.

마지막 4단계는 고등학교 졸업 후부터 남학생이라면 군 병역을 마친 21살 정도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이라고나 할까요? 이 시기는 현실적인 기회라는 선택 기준이 추가 되어 진로를 선택하고 사회활동에 진입하게 된답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인섭님은 3단계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인섭님의 능력이나 적성, 가치관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해야할 시기죠. 과학선생님이나 경찰관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다면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데, 요즘 입시 추세는 수능위주의 정시보다 내신성적과 학과에 적합한 소양을 가졌는지를 보는 수시전형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나 진로목표를 확고히 하고 얼마나 그에 따라 노력했는지로 당락을 결정짓는 입학사정관제가 대학 입시의 주요 틀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중학교때 부터 경찰이 꿈이었다면 그 꿈과 관련되어 받았던 상이 있거나 인섭님만의 에피소드(일화)를 기억해보세요.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은 걸 보면 이와 관련된 사연이 꼭 있을거라 나름 추측해봅니다. 혹여 없을지라도 대학의 입학사정관 마음을 움직일 인섭님만의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입학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현재 부산지역에서 경찰관이 되기 위한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곳은 동의대, 신라대, 부산외국어대가 있는데요. 각 대학 입시정보사이트에 들어가 검색해보고 인섭님의 가정형편이나 능력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준비하면 될거예요.

한편,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도 경찰관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경찰공무원(순경)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되는데요. 자격은 만 18세 이상 30세이하의 고등학교졸업자면 응시가 가능하답니다. 시험과목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보면 더 쉽게 이해될거예요. 합격하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범죄예방, 공공질서 유지의 업무를 수행해요. 시험은 1년에 2회 있으며 전국단위로 매회 100명 내외를 뽑고있어요. 앞서 소개했던 경찰관련 대학들도 졸업 후 경찰관이 되려면 시험을 거치게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대학을 졸업하면 공개채용뿐만 아니라 특별채용에도 응시할 수 있어 고졸보다는 현실적으로 유리하긴 합니다.

다음은 과학선생님이 되기위한 방법인데요. 현재 인섭님이 다니는 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여서 아마도 과학 관련 과목은 1학년때 배운 "과학"이 전부일거예요. 그런데 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의 모든 사범대학이 관련학과와 직렬된 과목의 이수 여부와 내신성적을 다른 과목보다 가중치를 두로 반영하고 있답니다.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인섭님의 현재 상황에서는 사범대학 과학교육과(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에 진학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교직을 원한다면 과학교사만 생각하지 말고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학과목(실용음악과 전문과목교사)과 관련된 학과로 진학해서 교직이수를 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그러나 경쟁률이 치열해서 많이 어렵기는 할겁니다.

인섭님~ 인섭님이 특성화고에 진학하고자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는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느끼고 입학했었는데 왜 진로를 바꿔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을까요? 외적인 요인도 있을것이고 인섭님 내면에서 느껴지는 내적인 요인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 특성화교육정책은 선취업후진학을 목표로 기업들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취업률도 높아져가고 있답니다. 좋은것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와 성실, 노력이라는 과정을 거쳐야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과업이죠. 인섭님이 현재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무기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도전을 해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즘 대학에서는 "특성화고졸업자 전형"이라고 해서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취업 후 대학진학의 필요성을 느끼고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에게 많은 특혜를 주는 특별전형도 있답니다. 참고하기 바라요.

인섭님의 후회없는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그 마음이 바로 희망이예요^^

화이팅입니다!!!

커리어넷 드림



【 2반 - 사례 9 】

성 명	김 정 곤	소속 학교명	대구상원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내담자의 문구를 보고 감정을 읽어내는 기술적인 면을 배우고 싶음
- 내담자의 개성이나 감정에 맞추어 조화롭게 상담하는 기교를 배우고 싶음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내담자의 인지 수준을 모르는 상황에서 주관적으로 내담자의 수준에 맞추어 사이버로 상담 하는 경우 범할 수 있는 오류 분석
- 내담자의 인지 능력에 맞는 사이버 상담에서의 공감 표현 기법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자퇴생각중인데

학교가감옥같아영

왜내가학교에가는지몰르겻어염

똑같은옷을입고 똑같은시간에맞춰 똑같은것을배우는건

좀아니라고 생각해염

저는 음악을하고싶는데 학교에서는 음악이라는 과목조차없네영

학교를그만두고 음악을 하고싶어영

저는 공부라는것에 흥미도 없구영 하기도싫고 하지도못하는 공부따위에도전하고 싶진않아요
내인생은내가사는거니까영

공부만보면 토나와영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자퇴보다 좋은 대안은 없을까요?

세일러문 님 안녕하세요?

커리어넷 입니다.

같아영! 겻어염! 싫어영!

말의 끝마무리를 영으로 하니 참 재미있네용~~~ㅎㅎ

세일러문 님은

새로운 변화를 좋아하고 음악적 감성이 풍부한 학생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좋아하는 음악시간은 아예없고

그렇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과목들로만 짜여있는 학교생활이라면

누구라도 감옥같다는 느낌이 들거예요.

미래 사회는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틀에박힌 일을 실수없이 하는 사람보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일을 만들어 낼 줄 아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세일러문 님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잘 맞는 학생으로

창의적이며 예술적 감각을 필요로하는 그런 학과나 직업을 택하면 흥미롭게 잘 하리란 생각이 듭니다.

틀에 박힌 공부만 잘 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또한 노력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흥미없는 과목의 교과서적인 내용만을 암기하고 이해하는 것은 진정한 공부가 아닙니다.

참 공부는 하고 싶은 분야에 몰입해서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김연아, 박지성,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같은

성공한 삶의 주인공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세일러문 님!

음악을 좋아하신다면 음악 중에서도 구체적인 분야를 선택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음악관련 직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를 들면 성악이나 기악 또는 국악, 실용음악, 작곡 등

기악 중에서도 피아노, 첼로, 관현악 등

어떤 분야를 택하여 어떻게 공부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하시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찾고 방법을 확인해 보고 나서 지금 학교보다 더 적합한 교육기관이나 학교가 있다면 부모님과 의논해서 옮겨보는 방법은 어떨까요?

적합한 교육기관이나 준비방법을 찾지 못했다면 방과후에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라는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학교에서 음악관련 동아리 활동 등을 하면서 방과후에 실기 학원을 다니거나 예고로 전학을 가는 방법 등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학교를 떠난 후에는 학생의 신분이 아니기때문에 선택하기에 불리한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자퇴를 한다고 해서 음악 공부에 반드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뚜렷한 대안없이 자퇴부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일러문님!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니까'

귀중한 내 인생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내가 내려야 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여 옳은 판단으로 즐겁게 공부하시리라 믿습니다.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다시 연락주십시오.

커리어넷의 문은 늘 열려있습니다.

커리어넷 드림.

【 2반 - 사례 10 】

성 명	김 정 래	소속 학교명	부평여자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흥미와 적성사이에 올바른 선택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진로결정에 필요한 흥미, 적성 또는 가치관에 대한 내담자에 대한 판단 및 상담자의 자세와 태도 (부족한 내담자의 정보를 가지고 해석시 1회차로 상담이 마감되면 만족도가 매우 낮을듯하여)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뭘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여자입니다.

좋아하고 잘하는?건 운동밖에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저에 대해 잘모르기때문에 또 뭘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막상 운동하려니 건강이 안받춰주는거같고.. 운동안하려니 뭘해야할지 잘모르겠습니다.

적성검사테스트 해보니까, 여러가지가 나오긴했는데 고2라서 늦은거 같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잘모르겠습니다.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자기이해 및 탐색

안녕하세요! 커리어넷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기간에 접어들며 이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 시기가 다가왔네요. 이전 보다 더 많이 고민해야하는 어려움이 세희님을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고민을 통해 세희님의 미래가 멋지게 열리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고2라는 시간은 아직 늦지 않았고, 지금 제대로 다시 검토하고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한 시점이고 얼마든지 준비하기에 이른 시점임을 말씀드리며 제가 세희님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체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때 고민해야 하는 것이 흥미와 적성 그리고 가치관이라 합니다. 흥미나 적성 가치관은 그냥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검사가 진행되고 그에 따라 분석이 됩니다. 간혹 적성검사를 해보구 내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갈등 또는 고민이 시작되지요. 이 경우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이란 것이 흥미인지 성적인지 하기 싫은 것인지 등등 여러가지 오해의 요소들이 있을 것이니 이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적성검사테스트를 통해 나오는 직업이나 능력치는 세희학생의 경우에는 고2 여학생들의 수준에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 좀 더 뛰어난 부분과 강점으로 보일 부분등을 토대로 작성이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시된 직업이나 분야를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희님이 잘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건강으로 인해 좋아하는 운동을 유지하기가 어렵다하시니 빠른 시일내로 진지하게 자기이해 및 자기탐색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물론 중학교부터 표준화검사와 같은 심리검사를 받아보셨겠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올바른 해석에 대한 상담은 아마 원활하게 진행되어지지 않았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워크넷에서 실시하는 직업심리검사를 저희 학교 학생들과 진행해 보았는데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비슷한 학년의 세희님께서도 한번 꼭 검사와 해석을 받으셔서 미래에 대하여 의미있는 준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외에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나에 대해서 질문해 보는 등 혼자서만 진로를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어떤 성취를 했던 기억이 있는지, 무엇에 관심이 가는지 스스로를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확실한 진로를 선택하려고 하기 보다는 나에게 맞는 방향을 찾아보는 즉 나의 강점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딱히 나에게 맞는 방향찾기가 어려운 경우는 우선 아닌 것부터 가려내면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은 늦었다는 것은 없을 듯 합니다. 도리어 고민이 없는 그 자체가 더 문제일 듯 합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와 고민을 시작하신 세희님을 응원합니다.

궁금한 것이 해결되셨나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또 다른 상담을 하고자 하시면 언제든지 커리어넷으로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정성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커리어넷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커리어넷 드림.

2012년 커리어넷 상담위원단 슈퍼비전 자료집

3반 사례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3반 - 사례 1 】

성 명	김 정 숙	소속 학교명	삼척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그러므로 '관심분야가 꼭 심리라면 문과를 선택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등의 상담자의 주관이 들어간 문장은 적절히 수정 부탁드립니다. (수퍼바이저의 조언)에 대한 의문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내담자가 특정 의견에 대해 불안과 답답함을 호소해 올 때, 객관적인 사실만 제시해주는 선에 그치는 것에서 한 발 나아가 상담자의 주관이 들어간 정서적인 지지와 방향설정이 오히려 본인의 선택에 더 큰 긍정적 영향을 끼치리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 아직 1학년 초반 학생으로서 계열이나 학과가 미정인 상태에 상담해온 내용이라 상담가의 일반적이면서 방향 모색의 기회제공차원에서 건드려 준 표현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교차지원요

제가 고1이구요...수학쪽과 과학에 흥미가있어서 중학교때부터 이과를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와 진로에 대해 생각해보니

제가 정말 하고싶은 직업은 심리상담가입니다..

심리상담쪽은 심리학과에 가야하는데 심리학과는 인문계열입니다

이게 제가 고민하는이유데요

제가 사회는 잘하지만 국어를 정말 못해서 인문계를가면 성적이 정말 안나올거같습니다..과학은 어느정도하고 수학을 잘해서 자연계로 가는게 좋을거같은데..좋아하는 과목과 장래희망은 좀 달라서요....

인문계로 가면 정말 점수가 안나올꺼같고 자연계로 가면 제가 원하는 과에 교차지원을 해야되는데 그러면 불이익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더구나 저희 학교는 과학중점학교라서 대학의 심리학과로 보았을때 저는 심리학과를 그렇게 희망하지않는 학생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연계에서 성적이 잘나올꺼같은데 원하는 과가 인문계열이여서 교차지원을 해야한다...이게 제 고민입니다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교차지원에 대한 답글

‘반가워요 고딩님! 커리어넷입니다.’

이과생이면서 인문계열 심리학과를 가고 싶으나 관련교과 성적이 잘 안나오고 교차지원을 생각하니 불이익이 있을까 염려되어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

첫번째 상담 시, 인문계열의 사회과학부를 생각해보라고 권면한 것과 관심있는 서울대, 중앙대, 성균관대는 교차지원이 모두 가능한 학교라는 것을 알려드렸지요.

교차지원할 때 어려운 점은, 문과학생의 경우, 수학교육과나 공대는 거의 수리가형이 반영되기에 문과생으로는 이과생과 경쟁하기 때문에 진학에 힘들겠지요. 또한 과탐선택이 필수인 강원대학교 동물대의 경우라면 문과생으로서는 교차지원은 거의 불가능하구요.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내신이 좋다면 문과학생이 이과로 지원하는 경우나 이과학생이 문과로 지원하는 경우 모두가 가능합니다만 단, 면접 시에 교차지원한 이유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겠지요.

또한 문과라고 해서 수학이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니 수학, 과학을 잘하다고 해서 반드시 이과를 진학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관심분야가 꼭 심리라면 문과를 선택하는 것도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하기가 보다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과를 선택하고자 한다면 심리학과보다는 하고 싶은 다른 분야를 더 탐색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구요. 가령, 언어청각학과나 의대진학으로 임상심리를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하단 언어청각학과 소개) 심리학과와 언어청각학과 사이에는 업무상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목으로 학과를 선택하면 아무래도 나중에 지원동기를 준비할 때 힘들지요. 따라서 이과를 선택하고자 한다면 고딩님의 심리상담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적인 것들을 많이 준비해야 되게 되니 부담이 크리라 생각해요.

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과

언어병리학은 영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사람들이 전생애에 걸쳐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말·언어장애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아동기 언어발달장애를 비롯하여, 뇌졸중 또는 치매와 같이 두뇌기능 장애로 인한 신경말·언어장애, 발음에 문제를 보이는 조음음운장애, 성대와 같은 음성산출기관의 문제로 인해 목소리를 정상적으로 산출하지 못하는 음성장애, 말더듬과 같은 유창성

장애, 지적장애 또는 자폐범주성 장애 등과 같은 발달장애를 동반한 의사소통장애, 청각장애를 동반한 말·언어장애와 같은 의사소통장애의 원인과 특성을 연구하고 이를 평가 및 치료하는 과정을 공부합니다.

중학교 때 이미 이과를 정해두고 공부를 해 온 고딩님! 의사결정을 위해 더욱 도움 받고 싶다면 이과로 가서 좋은 점이 무엇이 있을까? 안 좋은 점이 무엇이 있을까? 등을 종이에 자세히 써보고 가까이에 계시는 담임선생님과 진로진학선생님 또는 대교협 대학입학상담센터 1:1 상담의 문을 두드려보라고 권하고 싶네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 성경의 한 구절 말처럼 열심히 찾고자 하는 고딩님의 노력이 꼭 결실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커리어넷 드림"



【 3반 - 사례 2 】

성 명	김 창 연	소속 학교명	충북 미원공업고
-----	-------	--------	----------

1. 사례 선정 이유

- 내담자의 상담 질문 및 정보 부족
- 낮은 상담자 평가에 대한 상담반응을 알고 싶음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내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담케이스에 대한 상담방법
- 상담을 이끌어가는 패턴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저는 미래가 막막해요

저는 솔직히 제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선생님이 되고 싶긴한데 과연 제가 할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가끔 경찰도 되고싶긴한데 제가 할수 있을지에 의문이 서질 않습니다
 그니까 결론은 제가 저를 못믿겠어요
 그리고 앞에 말했던 꿈들이 과연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들인지
 아님 부모님이 계속 되라고 하니까 내가 나의 꿈이 이런것들이구나
 이렇게 착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준비하는 미래는 밝고 아름답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원님. 커리어넷입니다.
 진원님이 미래에 되고 싶은 직업도 많고, 또 어떤 때는 미래의 꿈이 자주 바뀌기기도 하고. 그
 리고 마음먹은 미래의 직업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고 혼란스러워 하시는군요...

중학교 때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이 많을 때이기도 하죠, 그래서 10대를 꿈 많은 10대라고 해욤....우리가 많은 꿈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이지요, 꿈이 있어야 그것을 이루고 달성할 수 있고요, 오히려 꿈이 많은 것보다는 꿈이 없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럼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적성을 갖고 있고, 어떤 흥미를 갖고 있고, 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잘 알아야 내가 미래의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 더욱 훌륭하게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알 수 있겠죠?

자신을 알기위한 여러 가지 심리검사를 바탕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이나 이제까지 자신이 흥미를 갖고 읽었던 책이나, 또 자신이 자신 있어 하는 과목 그리고 자신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검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업심리검사, 직업흥미검사, 직업가치관검사 같은 검사가 있어요, 진원님이 이미 이런 검사를 해보았다면 그러한 검사 결과를 면밀히 잘 살펴보고. 진원님이 평소에 관심 있고, 흥미 있던 직업들을 모아서 커리어넷 직업사전에 그 직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직업정보를 찾아보면, 그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특성이나 전망, 그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일하는지와 같은 것을 알 수 있지요.

아니면 그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공부하기 위한 학과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진원님이 검사와 더불어 해볼 만한 중요한 활동입니다. 학과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면 진원님이 공부하고 싶은 분야나 미래에 하고 싶은 직업에 관련 있는 공부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고, 진원님의 흥미나 적성 그리고 가치관과 학과 공부가 잘 맞는지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원님이 교사와 경찰을 미래의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직업정보와 학과정보를 찾아본다면 나의 적성과 흥미 그리고 가치관과 어떻게 잘 맞는지를 알아볼 수 있고, 학과 공부는 나와 어떻게 잘 맞는지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진원님이 또 알아봤으면 하는 것은 진원님을 잘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친구, 선생님에게 진원님의 성격의 장점이나 강점은 무엇인지, 무엇을 할 때 가장 좋아하고 행복해 하는지 등에 대해서 물어 보면, 진원님에 대해 잘 알아볼 수 있지요.

진원님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했는지. 왜 그것을 하고 싶어 했는지, 잘 했던 분야는 무엇인지, 미래에 어떠한 집에서 어떠한 아내(남편)와 살고 싶은데 그럴려면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좋을지, 어릴 적 어떤 일을 하면 칭찬받고 잘했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 진원님에 대해서 좀더 잘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이기도 하지요...



진원님의 주변 친척이나 이웃 중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멋져 보이시고, 좋아 보이시나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직업 중에서도 멋져 보이는 게 있었나요?

심리검사와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관찰을 통해 진원님에 대해 알게 된 내용과 직업에 대해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상담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진원님 혼자만의 생각보다는 부모님이 이제까지 지켜보시면서 진원님에 대해서 갖고 계신 진원님의 장점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께서 진원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으니 학교 선생님과 상담을.

진원님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미래의 직업을 찾아가는 과정을 경험하고 결정한다면 분명히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좋은 직업을 결정하게 될 것이고, 그 직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미래에 진원님이 교사가 되어 학생들에게 좋은 가르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위해 걱정하는 것이 바로 진원님이 잘하려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 되요. 진원님은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또 커리어넷에 찾아와 상담하면서 진원님의 미래의 멋진 꿈을 실현해보아요....

커리어넷 드림

【 3반 - 사례 3 】

성 명	김 태 길	소속 학교명	창원여자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으로 소아과 의사라는 꿈을 이야기 하면서도 영화감독, 방송연출가, 작가, 매니저 등의 다양한 직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진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학생
- 상담의뢰자의 희망이 명료하지 않아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운 사례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학생이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희망 진로들, 특히 전혀 관련성이 없는 직업들 가운데서 상담의뢰 학생에게 가장 알맞은 진로를 명료화 시켜주고,
- 해당 진로를 가기 위해 현재 주어진 일에 집중과 최선을 다하게 하는 상담 방법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제 꿈을 어떻게 선택 해야 할지:~:

원래 제 꿈은 소아과 의사 였습니다.

이 직업을 선택 할때 앞서서 가만이 있는 날을 하지 못하는 나랑은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커리어넷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지를 보고 제가 학교에서 심사할때 마다 한번도 빠진적 없이 계속 나오는 직업들이 있었습니다. 그 직업은 영화 감독, 작가, 매니저, 방송 연출가, CEO, 운동 선수,체육선생님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았더니 이 직업들도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았고, 많은 추천을 받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작가는 초등학교 때도 선생님이 글을 잘쓴다고, 작가가 되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또, 영화 감독, 방송연출가,작가 매니저, CEO, 체육선생님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과 이과이고, 저 중에서 무슨 직업을 선택 하여야 할지 모르 겠습니다. 심정으로는 저 직업들을 한번 씩 체험 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적 도 많이 있었습니다.

빨리 꿈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학교 ,학과 등등을 정하고 준비 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꿈을 탐색하고 실천하는 법



신○○님 안녕하세요?

소아과 의사를 꿈꾸며 이과를 선택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님과 맞지 않을 거란 생각에 커리어넷을 통해 해 본 심리검사 결과도 여러 가지 다른 직업이 나와 당황스러운 상황이군요.

검사만으로 ○○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그에 맞는 꿈과 진로를 설정할 수는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성격은 어떤지, 장점/강점은 무엇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시간가는 줄 모르고 했던 일은 있는지,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지(직업가치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보려면 이런 활동을 해보세요.

(1) 주변에 ○○님을 잘 아는 사람들(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에게 '난 어떤 사람인가요?', '나의 장점 3가지만 칭찬해주세요.'라고 해보거나, (2)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바뀌었던 장래희망을 모두 써보고 왜 그것이 되고 싶었는지 이유 써보거나, (3) 작가나 영화감독, 방송연출가, 체육교사로서 각각의 직업에 대한 ○○님의 강점과 약점을 써보기 등을 해볼 수 있어요. 이런 활동들을 하다보면 내가 잘하는 일, 하고 싶은 꿈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낼 것이고,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님의 모습도 그려볼 수 있겠죠?

이러한 활동과 함께, 좀더 원하는 직업들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직업들을 전부 체험해 보고 싶다고 했는데 여러 제약들 때문에 그럴 수는 없겠지요. 그 대신 '커리어넷의 직업인인터뷰' 라는 코너에 가면 관련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링크해 두니 들어가 보세요. 아울러, 방학동안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소재한 잡월드라는 곳을 방문해 직업체험을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해당 홈페이지로 링크를 걸어 주세요.

또한, 탐색만으로 자신에게 꼭 맞는 일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님의 나이는 여러 가지를 꿈꾸고 바뀌는 시기이니깐요. 무엇보다도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먼저, 하나의 꿈을 정해 두고 이를 이루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며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는 직접 계획하고 실천하는 동안 ○○님의 몸과 마음이 훌쩍 더 자라서 지금의 혼란스러운 마음이 정리되고 자신의 꿈에 대한 확신도 생겨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만히 있는 일을 하지 못해 소아과 의사가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소아과 의사라는 직업은 매우 다양한 활동과 움직임이 필요한 직업이랍니다. 단순히 가만히 있는 일이 맞지 않아 소아과 의사의 꿈을 포기한다면 너무 아쉬운 일이 아닐까요. 의사는 환자의 상처를 고쳐주기 전에 마음을 고쳐주는 직업이니 환자와 교감을 위해 늘 대화해야 하는 직업이랍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차근차근 실천해 보고, 수치화된 목표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두고 실천하면서 ○○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충실히 보내길 바랍니다.

커리어넷드림



【 3반 - 사례 4 】

성 명	김 향 자	소속 학교명	합포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검정고시 수시 전형이 생소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제대로 잘 전달했는가
○ 내담자가 원하는 바를 채워주었는가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안녕하세요

제꿈은 상담사입니다. 그래서 심리학과가 있는 학교에 입학하고싶는데 검정고시로 중학교는 졸업했고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로 졸업할 예정입니다

대학에 수시로 진학하고싶는데 진학할수 있는 방법이랑 학교를 추천해주세요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검정고시 수시전형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진님, 커리어넷입니다.

상담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검정고시 졸업 후 수시로 심리학과에 진학하고 싶군요. 이 방법으로 진학 가능한 대학 정보도 알고 싶고요. 고민이 많이 되시겠어요.

검정고시 합격 후 대학을 수시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검정고시 수시전형이 있습니다. 검정고시 수시입학이 가능한 대학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고자하는 대학이 검정고시 수시전형을 진행하고 있는지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선진님은 심리학을 전공하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선 커리어넷 학과정보를 이용해서 심리학과를 검색하신 후 희망대학을 정하세요. 그 다음 해당대학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입시요강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대학에서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수시전형이 허용되는지를 봅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검정고시 성적 그 자체를 직접 학생부에 대체하여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논술고사, 면접/구술, 서류평가 등등의 결과로 대체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검정고시 성적 그 자체를 직접 학생부에 대체하여 반영하는 경우에는 검정고시 과목별 취득점수에 따라 등급이 정해집니다.

작년 기준으로 검정고시 수시로 심리학과에 갈 수 있는 대학들로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 등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 입시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준비해야 하므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전략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선진님의 꿈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커리어넷 드림



【 3반 - 사례 5 】

성 명	김 홍 중	소속 학교명	북일여자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학생의 막연한 진로 희망과 그에 대한 올바른 설명
- 직업의 참모습보다 겉모습에 대한 선호현상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자신의 올바른 이해를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하고 진행할 수 있을까?
- 여러 꿈을 좁혀주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꿈을 못 정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꿈이 3개가 있는데요... 지금 그 3개중에서 하나를 딱 못 정하겠어요... 전부 한번쯤 하고 싶은 직업인데요... 우선 확실히 그 3개의 직업은 문과로 알고 있어요.(틀리면 좀 알려주세요) 우선 첫번째 직업은 범죄심리학과를 나와서 일하고 싶고요. 두번째는 중고등학교 체육 교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부님 입니다.

이 세개중에 너무 고민에 되서 그러는데요... 정말 어떻게 낳을까요...

정말 미치도록 고민을 해도 세개다 너무 좋아요... 도와주세요..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자신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ㅁㅁ님!

꿈을 아직 결정하지 못하여 상담신청을 하였고요. 고민과 걱정이 많지요? 고민이 많은 ㅁㅁ님의 마음이 이해됩니다.

직업을 선택한다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어른들도 하기 어려운 일이지요. 고등학교때

직업을 반드시 결정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의 직업이 어느 분야로 나갈것이다" 하는 정도의 조금은 넓은 개념으로 보고 결정하는 것이 더욱 좋겠지요.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능력이 어느 부분이 가장 뛰어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고민하고, 부모님과도 이야기를 나누어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직업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보다는 본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선택이 최상의 선택임을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진로는 본인의 능력, 적성, 흥미 등을 고려하여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겠지만 성장의 과정이며, 이런 신중한 고민이 있을수록 더 나은 선택이 가능할 것입니다. 본인의 능력과 적성을 더욱 자세히 알고 싶다면 커리어넷에서 제공하는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검사 찾아가기(적성, 흥미, 가치관, 성숙도 검사) 클릭!

적성검사를 통하여 본인의 성격, 적성, 흥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고 그것들을 통하여 본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직업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향일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각각의 직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과 직접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직업의 좋은 면과 함께 잘 보이지 않는 단점 등을 알아본다면 본인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들도 파악할 수 있고, 본인의 성격이나 흥미와의 일치 여부도 파악해 볼 수 있지요. 혹시라도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요청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참고로 각각의 직업에 대한 도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죄심리학과에 대하여 안내드리지요.

현재 4년제 대학에서 범죄심리학과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곳은 없습니다. 대신에 심리학과를 진학한 후에 졸업하여 대학원 진학을 통해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경찰대 또는 경찰행정학과에 진학한 후에 마찬가지로 대학원 진학을 통해 지속적인 공부를 하여 범죄심리학을 전공할 수 있습니다. 학업을 마친후에는 경찰이 되어 관련 부서에 채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부분과 심리학에 대한 부분을 같이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조금은 쉽지 않은 학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는 학문이니 만큼 심리학에 대하여 많은 공부를 해야합니다. 논리적 사고력, 분석적 글쓰기 능력, 인내심, 정직, 꼼꼼함, 탐구적 성향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중고등학교 체육교사의 경우에는 사범대를 졸업하거나 비사범계를 진학했을 때에는 교직과목을 이수한 후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무엇보다도 체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하니 체력적으로 부담이 없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체육관련 활동 즉, 몸을 활용하는 활동적 측면을 좋아해야하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과 함께 생활해야하기 때문에 사회성이 좋으면 체육교사를 하기에 수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에 대한 통제력, 리더십, 판단력, 분석적 사고능력, 원만한 수업진행 능력 등이 필요합니다.



신부라는 직업은 아마도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교리 설명과 함께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하는 직업(성직자)입니다. 자신이 함께 생활한 가족, 세상을 떠나 다른 세상에서 생활을 해야하기 때문에 신부라는 직업, 성직자라는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합니다. 신부는 교리의 해석과 전달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언어전달능력과 상담능력, 희생과 봉사정신, 도덕성, 책임감이 높아야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보다 크고 원대한 꿈을 가지세요. 이상은 높게, 그러나 두 발은 땅위에 !

커리어넷 드림.

【 3반 - 사례 6 】

성 명	남 영 희	소속 학교명	학남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내담자의 고민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려니 내담자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상담의 방향을 잡기 어려워서....
- 내담자는 현재 다급한 상황인데 온라인 상으로 답변을 작성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자신에게 적합한 학과나 직업 선택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어하는데 내담자의 특성에 대한 단서(정보)가 너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 자신이 관심있는 것을 겨우 찾았는데 그 직업을 선택하자니 갖춰야 할 능력(영어)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긴 하는데 그 능력을 갖춰야 할 자세나 태도에 대한 의욕이 없을 땐 어떻게 하면 좋을지.....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진로에대해서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7월21일 여름방학을 앞두고있는 고3 학생입니다..

오늘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대학, 학과선택, 진로결정이라는 사한들이 어느새 발문턱까지 와있음을 느끼게 되어서입니다. 오늘 학교담임선생님께서 유인물을 나눠주시면서 미래의 진로희망에 대해서 알아보고 적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한번도 제대로 시간을 내서 알아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숙제?!형식으로 유인물을 받으니 지금까지처럼 그냥 "될대로 되라지.."라는 식으로는 못지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커리어넷에 접속해서 나에게 맞는 직업이 무엇이 있나하고 살펴보았는데 직업이란게 제가 알고 있던것보다 훨씬 많고 들어보지도 못한 직업들도 많더라고요.방대한 직업의 종류를 보고 나니 대체이렇게 많은직업들중 에서 어떤직업이 나에게 맞는 직업일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할만한 분야를 몇개찾아보았는데 그중 눈에띤 분야로는 "여행*관광" 분야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평소 여행다니기를 좋아하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는 편이라서 저에게 괜찮은 직업일거 같다고 생각했는데 아래에 잇는 몇가지 기사들을 살펴보니 여행가이드에게 영어는 필수일것만 같더라고요. 제가 정말 영어에는 잼병이라서 그 기사를 보고나서 또 확신이 없어졌네요.

대체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글을길게쓰다보니 너무 두서없이 쓴거같네요.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꾸벅!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진로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는 님에게

안녕하세요! 멘탈붕괴남님! 커리어넷입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온몸에 땀방울이 솟아나는 이런 무더위를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거기다 진로에 대한 고민까지 겹쳐 더 이겨내기 힘든 여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더군다나 현재 고3이라 진로에 대한 결정을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어서 더욱 답답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주어진 공부를 하기에 시간도 모자라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시간적 여유를 찾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담임선생님께서 진로희망에 대해 적어오라는 말씀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커리어넷에 접속해 보았지만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았지요?..... 맞아요! 장래에 자신이 가져야 할 직업을 찾는다는 것이 수퍼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선택하는 것처럼 달콤하고 쉬운 선택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에 자신의 입맛에 딱 맞는 아이스크림을 선택한다면 1시간 정도의 행복감을 맛볼 수 있겠지요. 더 나아가 자신에게 적합한 장래직업을 잘 선택한다면 멘탈붕괴남님의 남은 인생이 온전히 행복할 수 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진로를 선택할 땐 더욱더 신중을 기하는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진로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되셨으면 님네임을 ‘멘탈붕괴남’ 이라고 했을까? 하고 잠시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새벽 1시까지 자지 않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이 앞으로 자신의 진로를 잘 헤쳐 나갈 잠재력과 열정으로 보여져 칭찬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군요.

후회없는 진로선택을 하고 싶어하는 멘탈붕괴남님!

커리어넷에 들어가서 직업의 종류를 살펴보셨군요. 참 잘했어요. 이런 활동을 직업탐색활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직업탐색활동만으로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고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젠 장래직업을 선택해야 하고 직업을 선택한 다음 이 직업을 갖기 위해 진학할 학과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다다른 멘탈붕괴남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 줘야 도움이 될지 저도 고민이 되네요. 그래서 멘탈붕괴남의 글을 꼼꼼히 읽어 보니 그래도 현재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여행, 관광)를 찾은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것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자니 또 영어 실력을 쌓아야 한다는 또 다른 부담을 생겨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멘탈붕괴남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아요.

장래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직업을 찾고 싶어하는 멘탈붕괴남님!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몇 가지 질문을 해 볼까 합니다. 이 물음

에 답하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해요. 질문을 눈으로만 읽지 말고 지금 바로 노트를 꺼내어 적어 보세요. 자, 준비 되셨나요? 그럼 시작할게요.

1.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경험이나 일, 사건 등을 통해 성취감을 맛보았거나 칭찬을 들어서 기분이 우쭐한 적이 있었나요? 있다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노트에 적어 보세요.

2. 책이나 TV, 영화 등을 보면서 ‘저런 역할을 내가 하면 정말 잘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져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을 보면서 ‘정말 멋있다’ 라고 느낀 적은 없나요? 그냥 없다고만 하지 말고 어렴풋한 기억이 떠오른다면 그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3. 자신이 할 수 있는 일(해 본 일)들 중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 친구의 이야기 들어 주기(특히 친구의 고민이라든지), 책상 정리하기, 멋진 머리 스타일 만들기 등등

4.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일에 몰입한 해 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적어 보세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만 하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 경험 말입니다. 심지어 밥 먹는 것도 맛을 만큼 몰입한 경험말입니다.

5.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받은 성적표 중에 높은 점수를 지속적으로 유지한 과목은 어떤 과목인지? 시험공부를 해야 할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어지는 과목은 어떤 것인지? 별로 시험공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좋은 점수를 받는 과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공부할 때 그나마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과목은 어떤 것인지 한번 적어 보세요. 아마도 한쪽으로 모아지는 과목이 있을 겁니다.

6. 아직도 자신이 지닌 특성(흥미, 적성)이 속 시원하게 잡혀지는 것이 없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다음의 물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한번 적어 보세요.

내가 잘 하는 것 10가지,

내가 좋아하는 것 10가지,

내가 가고 싶은 것 10가지,

내가 하고 싶은 일 10가지,

내가 갖고 싶은 것 10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천천히 적어 나가다 보면 ‘아!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자신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7. 그래도 안 되면 심리검사를 한번 해 보세요. 혹시 커리어넷에서 심리검사(적성, 흥미, 가치관, 성격, 전공탐색검사)를 해 보셨나요? 이런 검사를 할 때 유의할 점은 솔직하게 현재의 자신에 대해 답해야 한다는 것과 검사 결과를 맹신하기 보다는 검사결과를 자신이 선택할 장래직업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멘탈붕괴남님은 고3이니까 다른 검사들은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전공탐색검사는 해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 해 보지 않았다면 워크넷의 대학전공(학과) 흥미검사를 권해 드리고 싶어요. 이 검사를 해 본다면 자신의 장래직업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제시한 일곱 가지 질문을 에 대한 답을 생각하시면서 자신에 대해 좀 정리가 되셨나요? 왜 이런 느닷없는 질문을 던지고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 약간 얼떨떨할 것도 같아요. 하지만 이런 질문에 대한 생각을 통해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어떤 직업을 장래희망으로 결정하고 준비해야 할지 회미하지만 전체적인 윤곽은 잡혀지리라는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해 보았어요.

위의 7가지 활동을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성격),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흥미, 적성), 어떤 강점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장점),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로드맵)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 본 후 다시 직업탐색을 하여 관심이 가는 몇 개의 직업을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선택된 직업이 요구하는 핵심능력, 인성, 태도와 멘탈붕괴남님이 7가지 질문에 대해 적어 놓은 답과 한번 비교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둘이 서로 맞아 떨어지면 선택된 직업의 장단점도 파악해 보고 그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런 다음 학과를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시간이 허락되면 필요한 자격증도 취득하고 관련 공부를 미리 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직업탐색을 해서 직업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면 요즘 대학마다 자율전공이라는 것이 있어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학과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대학에 가서 다양한 경험과 깊이 있는 공부를 하다보면 시야도 넓어지고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물론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이 탐색되어 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멘탈붕괴남님! 저도 긴 글을 적어 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괜히 글을 올렸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되네요. 장래 직업을 정하는 문제는 그 누구도 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특성을 꼼꼼하게 파악하여 결정은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쪼록 깊은 고민을 통해 신중한 진로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무더운 여름밤을 식혀줄 시원한 답변을 해 드리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글을 끝내려고 하니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그리고 제 글이 멘탈붕괴남님에게 어떻게 와 닿았는지 걱정도 되구요. 하지만 앞으로 좀 더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다시 글을 올려주세요.

멘탈붕괴남님! 핫팅! 힘내세요.



【 3반 - 사례 7 】

성 명	남 정 문	소속 학교명	소천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상담신청시간이 2012-06-11 14:09:27입니다. 즉 월요일 오후 첫 시간 쯤 되는 시간으로 진로수업으로 예상됩니다. 진로선생님이 커리어넷에 접속하여 진로상담사례코너를 소개해주신 것으로 추측됩니다. 상담자의 글 내용으로 볼 때 진정성보다는 신청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실험을 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 본인의 성적이나 참고사항도 없이 불쑥 대학입학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의 질문을 볼 때 성적은 중 하위권으로 생각됩니다.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기본적인 예의도 무시되고 내용도 즉흥적이면서 무성의함을 보이는 학생에게도 친절하게 좋은 내용만으로 상담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충고하는 말을 어느 정도 해도 될까요?
- 상담자에게 SWOT분석을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보라고 권하지만 상담자는 진로상담 선생님께서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더 쉽게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상담자가 자신의 정확한 성적을 밝히고 특정대학의 학과진학을 위해서 합불을 질문했을 때 늘 애매하고 추상적으로만 상담을 해야 할까요?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상담신청이요~

부산에있는 동아대에 가고싶는데
 동아대에갈려면 내신몇등급 이상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대학 선택보다 꿈을 먼저 만드세요

연이님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지만 연이님의 성적으로 입학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나보아요.

연이님이 상담을 신청하신 대학진학 부분은 고등학교 진학과는 다르게 학교마다 서로 다른 방

법으로 진학을 하고 있어요. 대학졸업후 직업선택, 대학선택, 학과 선택, 대입지원방법 등 절차와 방법이 간단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연이님이 원하는 대학의 학과에 입학할 수 있을거예요. 연이님이 동아대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대학교에 진학을 목표를 세웠으면 먼저 할 일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는 일이에요. 검사는 무료이지만 다른 검사보다 좋은 커리어넷의 아로 플러스를 이용하거나 워크넷의 청소년용 심리검사를 이용하는 것이죠. 심리검사결과는 학교에 근무하는 진로진학 상담선생님과 상담을 하면 좋은 조언을 얻을 수 있어요.

연이님의 적성과 흥미들을 파악하였다면 연이님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는 것이에요. SWOT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SWOT분석은 자신 내부의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을 발견하고, 주위환경에서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 요인을 찾아내어 이를 바탕으로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고, 기회는 활용하고 위협은 억제하는 자신만의 미래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에요. 분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쉬워요. 이것에 대한 상세한 것도 학교에 근무하시는 진로진학 상담선생님에게 상담하시면 자료와 분석하는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SWOT분석을 한 다음에 앞으로 연이님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될 이라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연이님이 되고 싶은 인간상이 그려질 것이에요. 하루 이틀 만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등학교 시절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인생의 목표를 빠르게 세울수록 성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으니까요.

다음에 할 일이 연이님을 다양하게 분석한 자료와 연이님이 하고 싶은 직업을 몇 가지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부모님이나 학교의 진로진학 상담선생님, 담임선생님, 커리어넷의 상담 등을 통해서 하고 싶은 직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직업이 선택되고 나면 연이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계획표를 짜는 거예요. 물론 단기, 중기, 장기 계획까지 말이에요. 혼자서 힘들면 주위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직업선택이 끝나면 연이님의 현재 성적과 대학진학에 대한 준비정도를 파악하여 수시와 정시 중에서 어느 전형에 비중을 두고 공부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이 연이님에 맞는 학과와 대학을 선택하시는 것이에요. 동아대학교를 선택하셨으면 동아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클릭하시면 입학에 대한 모든 내용이 있어요. 수시전형으로 진학할 계획이시면 수시전형 입시결과를 클릭하시면 지난 3개년도의 입학사정관제 전형결과와 수시1차 및 2차 전형결과에서 학과별 지원율과 내신 성적, 비교과 성적, 면접성적, 자기소개서 평균점수를 보실 수 있어요. 정시를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면 정시에서 입시전형결과에서 지원율과 수능평균점수를 참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연이님이 좋은 계획과 실천으로 연이님이 원하는 학과에 입학하여 우리나라를 빛내는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기원할게요. 연이님의 꿈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파이팅!!

커리어넷 드림

【 3반 - 사례 8 】

성 명	문 영 주	소속 학교명	전주술내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만족도 상담의견 평점에 대응 자세
- 2회기의 내담자 상담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상담을 진행할수록 상담역량 강화할 수 있는 역량 연수 필요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경제학과와 경영학과에 대해 알려주세요

생각하고 있는 직업이 두개있는데, 경영분야(전문직)에서 걸립니다.

경영분야(전문직)은 대체로 무엇이며

그중에 경제학과와 경영학과도 있나요?

경영분야(전문직)은 문과로 들어가야 될 수 있는건가요?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경제학과와 경영학과의 차이에 대해

안녕하세요? ○○○님! 커리어넷입니다.

다시 만나게 되어 영광이네요. 1회기에 ○○○님은 본인의 진로에 대해 매우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었어요. 다시 상담을 요청한 점은 아주 잘하셨습니다.

○○○님이 생각하고 있는 직업 두 가지가 경영분야에 걸림돌이라며, 경영분야(전문직)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경영학과와 경제학과에 대해 궁금한 것 같군요.



경영분야(전문직)에 대해 답변을 드리지요. ○○○님이 질문한 경영분야(전문직)은 커리어넷 직업 분류별 체계에 해당해요. 커리어넷 직업 분류별 체계에서는 각 직업에서 수행하는 활동의 유사성과 수준에 따라 16가지로 구분하는데 수준에 따라 전문직과 숙련직으로 구분하며, 커리어넷 직업흥미검사 결과가 이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죠. 특히 경영분야(전문직)은 사업체나 정부기관에서 조직의 인력과 자산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재무, 회계, 관리, 경영촉진 활동 등이 포함되고, 경영분야(숙련직)은 판매, 판촉, 마케팅을 포함하여 영업촉진과 관련된 재정 및 조직 활동이 포함되네요.

학과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커리어넷 학과 사전([경영학과](#), [경제학과](#))에서 검색이 용이하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상담센터](#) 에서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색해 볼 수 있어요. 아울러 학과 정보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해당 학과가 속해 있는 학교의 입시 정보를 찾아보면, 자신이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선택 과목 등을 미리미리 확인할 수 있지요.

경제학과와 경영학과의 차이를 살펴 보죠. 경제학과는 이론과 응용성을 조화시킨 경제학을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해요. 이에 따라 지도적 인격과 창조적 능력을 갖추고 사회의 제반 경제문제를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과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문 경제인 양성을 양성하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있어요. 경영학과에서는 경영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과 기법을 포괄적으로 교육함과 동시에 기업의 중요한 실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네요. 또한 기업을 주축으로 한 모든 경영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경영의 원리와 관리기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장래의 전문경영자를 양성하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있지요.

경제학과와 경영학과의 공통점으로는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보험계리사 등 관련된 자격으로 감정평가사, 경영컨설턴트, 회계사, 관세사, 국제회의전문가, 바이어(구매인), 부동산중개인, 세무사, 외환딜러, 기업고위임원, 증권중개인, 금융자산운용가(펀드매니저), 투자분석가(애널리스트), 인문사회계열교수, 금융자산관리사(FP), 기업분석가, 머천다이저(MD), 재정 및 신용분석가, 노무사, 국제무역사무원, 보험계리인, 선물중개인 등 직업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이죠.

경영 및 경제학과와 관련해서는 이과보다 문과를 선택하는 쪽이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학을 진학하는 방법에 있어 이과에서 교차 지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상담센터에서 진학상담을 받으면 효과적이죠.

○○○님의 질문에 만족한 답이 되었는지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주세요. 항상 개방되어 있으니 요청하면 즉시 도움이 되어 드릴게요.

커리어넷 드림

【 3반 - 사례 9 】

성 명	박 기 용	소속 학교명	경상공고
-----	-------	--------	------

1. 사례 선정 이유

- 내담자의 격한 상담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많이 고민을 했던 사례
- 나의 답변이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었을지 의문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상황이 힘든 학생의 심리적인 안정을 어떻게 도모 하는 것이 좋을지??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직업이 걱정이예요..

제가공부도 못하고 노는걸 좋아하는데요/

요즘은 공부를 잘해야 직업을 가질수있다는데/

에휴,,,ㅠㅠ 걱정이네요 저는 부모님 기대를 저버리기 싫어요

저주변에 삼촌이 백수예요—— 아 진짜 그렇게 살지 싫어요

저번에 엄마랑 싸운게 삼촌이 직장을 식당 주방에 일을 잡았어요 근데

지랑 말안통한다고 내팽개 치고 왔네요 성질 드리워서 엄마랑 싸웠네요

저 그렇게 살기 싫코..

저는 지금 꿈이 디자이너인데요 영어 잘해야되는데요!! 아 나 영어 제일 못하는데..TT 디자이너도 공부 잘해야 회사 들어가고 그러잔아요

그리고 저는 작사 같은것도 좋아해요 뭐.. 딱히 잘하는건 아니고요..

아직 저는 저에 재능이뭔지 모르겠어요ㅠㅠ 없는것같기도 하고..

저는 어떻게요TT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먼저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 답답님.

디자인관련 직업을 갖고 싶은데 영어를 못해 자신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확실한 본인의 재능을 찾지 못해 매우 불안하시군요.

인생의 중요한 의사결정 중 하나인 진로선택을 앞두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지혜님이 느끼는 막연함과 불안감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미래는 늘 안개에 가려진 듯 막연하고 모호하기만 하기에 그러한 불안을 완전히 벗어날 길은 없는 게 사실이지요.

답답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위에 영어를 잘 못하지만, 디자인을 매우 잘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을 뿐만 아니라, 중학교 때는 반드시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라기보다는 관심이 가는 직업들에 대해 정보도 더 찾아보고 어떤 직업이 나에게 더 맞을지 탐색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특별히 흥미를 느끼는 분야나 잘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가진 부족한 부분보다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보세요. 주변에 나를 잘 아는 사람들(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에게 '난 어떤 사람인가요?', '나의 장점 3가지만 칭찬해주세요.' 라고 해보세요. 자신이 모르는 특성을 다른 사람들이 잘 알고 있으니깐요. 커리어넷의 직업적 성검사 이외 다른 심리검사(워크넷 청소년직업흥미검사, 청소년 적성검사)도 해보시구요. 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에게도 꼭 진로상담을 받아 보세요.

답답님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포드 자동차의 설립자 헨리 포드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마다 의사를 부르러 10리를 넘는 거리를 달려갔어요. 그때 포드는 마차보다 더 빠른 운송 수단을 만들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는 그 꿈을 늘 가슴에 품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여, 결국 마차보다 빠른 자동차를 개발하신 것이구요.

답답님.

오늘부터 막연한 꿈을 간절한 소망으로 바꾸어 보세요. 그럼 놀라운 집중력이 생길테니까요. '습관은 내가 만들지만 습관이 나의 인생을 바꾼다'라는 말이 있어요. 늦지않았어요. 이제부터 시작해 보세요. 노는 시간을 줄이고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을 늘여보세요. 그리고 장기목표(디자인)를 향한 단기목표를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 이번 중간고사가 석차가 학급에서 20등이었으면 기말고사에는 15등을 하겠다 라는 것을 단기 목표로 정한 후, 과목별 세부 목표를 세워 공부를 해 보세요.(처음부터 너무 과한 목표는 잡지 마세요. 그럼 실패하게 되니까요.^^) 수업시간에 집중해서 듣고, 필기를 한 후, 필기한 내용으로 반드시 복습해 보세요. 그럼 성적은 반드시 올라갈꺼예요.

그럼 답답님이 원하시는 꿈을 반드시 이루길 기원하며 이만 줄일게요.

커리어넷 드림.



【 3반 - 사례 10 】

성 명	박 명 순	소속 학교명	부산일과학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자신에 대한 정보제공이 너무 부족하여 답변하기 곤란하여 화가 날 정도였음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이렇게 정보가 적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하고싶은거

하고싶은게연기자와 심리치료사를하고싶은데 둘중에 멀해야될지모르겠어요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자신의 특성 소개가 너무 부족해요

안녕하세요, 미진님.

연기자와 심리치료사 중에서 진로고민을 하고 있군요. 하지만 미진님의 특성에 대한 소개가 너무 적네요.

먼저 연기자를 하고 싶다고 하셨죠? 연기자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연기자의 종류로는 영화배우, 연극배우, 뮤지컬 배우, TV탤런트, 코미디언(개그맨), 성우 등이 있는데 먼저 연기자가 되기 위한 적성과 흥미가 자신에게 있는지 살펴보셨나요? 연기자는 배역에 대한 분석력, 창의력, 연기력이 필요하고, 다양한 배역을 소화해 내기위해 음악, 무용, 미술은 물론 풍부한 예술적 지식이 필요해요. 또 다른 연기자와의 원활한 대인관계도 요구되며,

자신의 연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다양한 배역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연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2년제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에서 연극영화과, 연기과, 코미디연기학과, 방송연예과 등을 전공하면 유리하지만 사설교육기관(학원)의 연기자 양성과정에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오디션을 통해서 발탁될 수도 있어요.

연기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인생을 살아 볼 수 있는 매력이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사생활을 어느 정도 포기할 각오를 해야 하고, 인기가 떨어질 때, 본인의 연기생활에 혼돈이 느껴질 때는 깊은 슬럼프도 겪습니다.

연기자는 항상 평상시에 내가 해 보지 못했던 것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노래, 춤, 승마, 발성, 영어나 외국어 공부 등 제2, 제3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을 나의 것으로 습득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이 필요하지요. 이렇게 항상 준비하고, 노력하며 기다리다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동안 준비한 것을 마음껏 발산해서 훌륭한 연기자로 탄생할 수 있습니다.

미진님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도전하면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멋진 연기자가 되는 길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겉으로 화려한 모습, 인기만 생각해서 연기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닌가요? 연기자는 가난한, 배고픈 직업일 수 있습니다. 또 얼굴이 예쁘다고 뽑아주는 시대도 지났습니다. 연기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2개월 정도 지나면 바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자신의 재능, 적성, 흥미, 부모님의 의견등을 종합해 보고도 꼭 연기자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연기자가 될지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진로계획이 필요합니다. 연기학원을 방문하여 과연 할 수 있을지를 몸으로 부딪혀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대학의 관련학과(연극영화과 연극학과 영화과 코미디연기학과 연예연기과) 진학을 희망한다면 관심있는 대학 사이트에 방문하여 입시전형방법을 확인하여 실기시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연기와 특기연습이 필요하며, 반드시 학원을 다니면서 준비하는 것은 아니므로 스스로의 재능과 끼를 발휘하여 합격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춤, 노래, 연기, 판토마임, 연주, 마술 등 다양한 자신의 재주를 발휘하여 실기시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진님의 능력과 여건에 따라 어떻게 연기를 시작할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로 연기에 대해 공부하고 싶다면 연극영화과가 설치된 예술고로 진학을 생각해볼 수도 있겠지만 일반고에 진학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연기를 공부하거나 오디션에 응모해보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방법들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리치료를 생각중이라고 했지요? 심리치료사는 임상심리사라고도 합니다. 심리치료사는 심리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해 심리평가, 심리검사, 심리상담, 심리재활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를 주로 합니다. 심리치료사가 되려면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교의 심리학과를 전공한 후 임상심리 관련 대학원에 진학해 전문적인 수준의 임상 관련 공부를 마치거나 수련 또는 경력을 통해 임상심리사 관련 국가 및 민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대학원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후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수련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실제 교육기간은 상당히 긴 편입니다.

심리치료사가 되기 위한 적성과 흥미로는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논리적인 분석능력과 이해력, 문제해결을 위한 추리력과 판단력 필요하며 내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상담내용은 비밀로 유지해야 하고, 내담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심리치료사와 심리상담사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데, 차이는 주로 상담을 하는 대상이 심리상담사는 비정신과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점과 이들의 주요 수련기관이 병원이 아닌 일반 상담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심리치료사는 좀 더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울, 불안, 적응문제, 중독, 정신분열, 섭식장애, 주의력 결핍, 자폐, 학습장애, 성격장애, 두통 등의 심리 생리적 문제 등 정신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미진님은 어떤 계기로 연기자나 심리치료사를 자신의 진로로 생각하게 되었나요? 진로를 결정할 때 학과나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관심 있는 직업을 정하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관심 있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학과 및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유리하고 적합한지 생각해보고 이에 맞는 준비와 노력을 해나가도록 해야하고요.

만약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충분히 생각해보고자 한다면 커리어넷 진로탐색프로그램(아로플러스)을 통해 나의 적성이나 흥미를 알아보거나 주변에 나를 잘 아는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에게 나의 성격이나 장점, 특징을 물어보고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미진님은 아직 중학생이니 좀 더 자신의 장점과 재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방법으로 각종 심리검사를 활용 해 볼 수도 있지만 커리어넷의 직업정보 / 학교,학과 정보 나 워크넷의 한국직업정보시스템 / 한국직업전망/ 한국직업사전 / 직업탐방 등을 통하여

그 분야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탐색해 보세요. 또한 여건이 허락한다면 두 분야에 대한 직업 체험을 해 보라고 권합니다. 방학을 이용하여 연기자 양성 전문학원 같은 곳에 가서 테스트를 받아볼 수도 있고, 심리치료사가 근무하는 대학병원, 정신과 등을 방문해서 직업 체험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미진님,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특성, 즉 성격, 흥미, 적성, 장점, 좋아하는 과목, 장래희망 등 자신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상세하게 알려준다면 미진님의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할 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만나면 좋겠네요~

커리어넷 드림



【 3반 - 사례 11 】

성 명	박 재 조	소속 학교명	대전둔산여자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내담자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때의 상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내담자 질문에서 모든 것을 분석하고 그에 적합한 답을 해야 한다는 점
- 사이버상담에서도 내담자 정보를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저는 어떤 학과와 직업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저는 현재영덕지역에 살고있는 17살 고1여학생입니다.

저는 실업계반에 소속되어있고,성적은 그리 나쁘지가 않습니다.

반에서 4등을 하고 있으며, 수행평가와 내신도 좋습니다.

하지만 중학생때는 지금처럼 우등생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저는 저도 지금부터 제가 가야할 대학과 어떤학과,또한 어떤 직업을 해야할지 결정을 내리고 준비를 하는것이 마땅할것 같아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진로를 선택하려고 하니,어떤길로 가야할지 잘모르겠습니다. 일단 제특기와 관심분야를 말씀드리면

저는 7살때부터 춤을 취았고, 중3때부터 지금까지 댄스동아리에 소속되어있습니다.중3때는 학교 축제때 입상해서 두무대를 뛰고 1등과3등이라는성적을 냈습니다.원래의 저의 꿈은 안무가, 가수,연기자,엔터테인먼트운영자 등이였습니다.모두 쉬운 길은 아니겠죠....

<저는 현재 ITQ자격증 B급,아래한글 자격증 A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예나, 방송쪽으로는 많은 관심과 그쪽에 대한 발전성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네요....커리어넷에서 검사와검사는 모두해봤지만, 그래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제가 어떤 학과와 그에 맞는 어떤직업을 골라야 할지....상담선생님께서 좀 대답해주시겠어요?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직업 및 학과탐색 방법

안녕하세요, ○○님.

커리어넷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하여 몇 년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들도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대학생활을 하는 내내 진로결정을 위해 고민하고 심지어는 졸업을 하고도 계속 진행이 되지요. 그런데 ○○님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알고 있어서 너무 대단하게 느껴져요.

진로 전문가들은 진로탐색의 단계를 자기이해, 직업탐색, 학과탐색, 진로결정, 진로준비로 보고 있어요. ○○님이 이 단계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한다면 자기이해의 단계는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지만 자신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업심리검사 결과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분석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커리어넷과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직업심리검사는 9가지 정도가 되지요. ○○님은 커리어넷에서 제공하는 검사만 실시했다면 이번 기회에 워크넷의 검사도 함께 참고해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면 해요.

고등학생들의 진로탐색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직업심리검사는 직업흥미검사, 직업적성검사, 직업가치관검사예요. 직업흥미검사는 직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흥미를 파악하고 다양한 직업들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탐색하는 목적으로 활용해요. 직업적성검사는 다양한 직업군에서 요구되는 능력들과 각 직업군에 대한 자신의 적합성을 알려줌으로써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의 폭을 넓히고 자기 발전의 가능성을 알려주는 검사지요. 직업가치관검사는 각 개인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검사라고 해요. 진로를 선택할 때 흔히들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흥미와 적성이 서로 다를 때의 혼란이지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잘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이지요. 이럴 때 개입하는 것이 가치라고 해요. 자신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외적 가치에 치중할 경우에는 적성을 많이 따르게 되고 내적 가치에 치중할 경우에는 흥미를 따르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님의 결과를 신중하게 해석하고 분석해 보면 자신의 진로를 찾으리라 믿어요.

직업심리검사는 학교에 계신 진로진학상담 선생님께 해석을 부탁드리고 자세한 안내를 받았으면 해요. 그리고 ○○님이 나열한 가수, 연기자, 엔터테인먼트운영자 등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이지요. 흔히 흥미라고 하는 부분이지요. 물론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수상을 한 경험이 있으니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봐요. 이런 능력을 적성이라고 하지요. 따라서 앞에서



실시한 직업심리검사 결과와 ○○님이 하고 싶다고 한 직업들을 서로 연결해서 분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그런 과정에서 공통점이나 새로운 진로를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직업은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커리어넷직업분류별>, <적성유형별>, <표준직업분류별>, <고용직업분류별> 직업사전을 참고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워크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국직업정보시스템>, <한국직업전망>, <한국직업사전>, <직업탐방> 등의 자료를 함께 더욱 좋겠지요.

○○님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있어요.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차분히 단계를 밟아서 진로를 탐색하면 좋겠지요.

그 다음은 검사에서 안내하는 직업 가운데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진로와 연관성이 있는 몇 개의 직업을 선택하여 체험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체험활동 만큼 좋은 경험은 없으니까요. 직업과 관련된 가장 좋은 체험은 그 분야의 직업인을 직접 방문해서 인터뷰를 하고 직업을 체험해 보는 것이겠지요.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잡월드를 방문하여 청소년체험관에서 직업을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이지요. 한국잡월드는 올 해 5월에 오픈했는데 경기도 분당에 있어요.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하여 청소년체험관에서 직접 직업체험을 해 보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게 되지요. 그런 가운데 직업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고 목표도 설정할 수 있어요. 물론 ○○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가수, 연기자, 엔터테인먼트운영자도 경험해 보는 것이 좋겠지요.

직업에 대한 탐색을 한 후 그 직업을 갖기 위한 다음 단계는 학과 선택이 되겠지요. 학과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상담센터에서 검색하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학과도 직업과 마찬가지로 먼저 정보를 수집하고 어느 정도 좁혀지면 해당 학과에 대한 체험을 하는 것이 좋겠지요. 요즘은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고등학교 단계에서 대학의 다양한 학과들을 미리 체험하고 학과를 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요.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행운이나 기회가 결코 보이지 않지요. 조금은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자신을 믿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어지게 마련이지요. ○○님에게도 그런 기회는 얼마든지 오겠지요.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서 자신의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기회를 꼭 잡으세요. 자신을 보다 사랑하고 믿어 보세요.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니까요. ○○님 힘내세요.

커리어넷 드림.

【 3반 - 사례 12 】

성 명	박 재 현	소속 학교명	압구정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내담자의 상담내용이 서로 다른 분야로 진로의 방향에 대하여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내담자의 상담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 내담자의 진로에 대한 의증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함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디자인학과와 경제관련 학과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의 일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가고자 하는 학과가 여러 개 있는데, 그것을 둘 다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가 생각하는 직업이 좀 안맞는 것 같아서요.

저는 얼마전까지 막연히 경제학을 배우고 싶어서 경제 관련 학과를 생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한 광고 디자이너분의 광고를 보고 정말 나도 저 일을 하고싶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공부가 싫증나거나, 이런것은 아니구요. 정말로 그 일이 하고싶어서 그래요. 지금와서야 한참 늦었지만 부모님께 용기를 내고 말씀 드려서 입시 미술학원에 지금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정말 대학교에 가서 디자인도 배우고 싶지만 경제 관련 학과를 포기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공부도 계속 제대로 하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저는 디자인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그 전문성을 살려서 그 쪽 관련 변호사가 되는것이 제 꿈입니다. 그런데 주위에서는, 그건 좀 너무 무리수인 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로 디자인 관련 일도 하고, 변호사가 되어서 변호사 일도 하고 살아가고싶습니다. 그리고 경제학과도 포기하고 싶지는 않구요. 제가 너무 세상모르고 허망한 꿈을 키우고 있는 겁니까? 정말 안그래도 고3이라서 불안한데, 제 진로도 확실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하죠....TTT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진로를 찾기위한 갈등은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급님, 반가워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진로가 확실치 않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겠군요. 진로설정은 누구나 급님과 같은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급할수록 차근차근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급님은 **경제학과**에 관심을 두고 공부해 오다가 광고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군요. 하고 싶은 일과 그 일이 실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막연하게 생각해오던 직업이 실제 체험해보고, 이야기 들어보면 모르고 있던 내용을 알게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급님이 광고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미술학원에 다니고 있지만 진정으로 한 번 더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초 중학교 때 뭘 잘해서 칭찬을 받았는지 뭘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또한 나를 잘 표현하는 행동과 활동 적어보기, 미래의 나의 모습 그려보기 등을 해보면 자신을 아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특성을 알아보는 객관적인 방법은 **커리어넷에서** 직업흥미검사, 직업적성검사, 가치관검사를 통하여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업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하는데 막연하게 생각만 하기보다는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들을 찾아보고, 실제로 내가 이일을 한다면 어떨지,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나에게 적합한 직업인지 충분히 고민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급님이 관심이 있는 **광고디자이너**와 **변호사** 직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또한 지금의 작은 노력이 삶을 사는데 더 큰 보람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급님의 특성과 맞는 직업을 찾기 위해서는 **커리어넷이나 워크넷**에서 직업정보 및 학과정보 탐색으로 다양한 직업과 관련한 학과를 탐색해 볼 수 있어요.

급님은 경제학과에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디자인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그 전문성을 살려서 그쪽 변호사가 되기 위해 충분한 고민은 해 봤는지 궁금하군요. 변호사에 우선권을 둔다면 변호사가 된 후에 디자인 관련 분야와 경제 분야에 전문성을 키우고(학위를 다시 받는 방법 등) 그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방법이 있겠죠. 변호사는 사법시험을 봐야 되는데 현재의 사법시험은 2017년에 폐지되고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과정 이수자에 한해서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3년 과정의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세워진 법학전문대학원을 말하는데 4년제 대학졸업생을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또한 급님 말처럼 경제학과나 디자인 학과로 진학해서 졸업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진학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광고디자이너를 우선으로 둔다면 그 일을 하다가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하겠죠. 이것도 법학전문대학원이 대안이 될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세 분야가 정말 달라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보조의 개념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겠어요. 광고디자이너이면서 동시에 변호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존 고다드는 개인의 목표와 목적을 가장 극적으로 성취한 기록을 가진 사람인데 그는 열다섯 살 때 자신의 할머니와 숙모가 말씀하시는 것을 엿들었다. "이것을 내가 젊었을 때 했더라면...". 고다드는 '했더라면'을 듣고 자신의 삶에서 하고 싶은 것 127가지의 목표들을 썼다. 그는 나이 47세에 127개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고액의 수입을 얻는 연사가 되었고, 자신의 모험담을 말하면서 세계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듯이 급남도 진정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어요.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루하루 시간을 목표를 위해 관리하고 작은 목표가 모여서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지금은 바쁜 마음에 시간이 뺏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로설정에 대한 고민할 가치가 있다고 믿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지만 진로에 대한 방향설정을 한 후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결국은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석공이 큰 바위를 깨기 위해 정으로 수백 번을 쳐야 바위가 깨지듯이 진로에 대한 목표가 확고하면 열정과 노력이 하나하나 쌓여 자신의 꿈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커리어넷 드림

2012년 커리어넷 상담위원단 슈퍼비전 자료집

4반 사례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4반 - 사례 1 】

성 명	박 중 학	소속 학교명	인천만수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꿈이 없는 학생으로 주위사람은 문과성향이 있다고 하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은 이과 과목, 그런데 이과과목 직업들은 본인에게 맞지 않음, 사회나 역사처럼 외우는 것은 싫어하나 영어는 괜찮고 논술은 잘 못함. 선생님은 문과 과목이 맞다고 말씀, 학원은 벌써 이과를 목표로 다니고 있음, 수학은 좋아하지만 점수는 나오지 않음, 최종적으로 미술에 관심이 많아 문, 이과를 다니지만 이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직업 원함
- 상담의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겠음, 그리고 상담자의 입장에서 경험과 확신을 주는 글은 위험한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내담자의 글 속에서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 친절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지만 내담자가 바라고 있는 충분한 답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진로와 직업선택에 대해서 (이과&문과)

제가 고민거리가 생긴지 1년정도 됐는데 그 고민거리가 바로 꿈이 없다는거예요. ㅠㅠ 언젠가부터 진지하게생각해보니까 제 꿈이 없더군요. 다른아이들은 꿈이 뭘지 물어보면 자신있게 말하는데 저는 맨날 꿈이 없으면서 의기소침해지곤 했어요... 고등학생이 되면서 문과 이과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내가 하고싶은 직업과 관련있는 정보들도 모으려고 노력해보았지만 확실한 꿈이 없었으니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수학기랑 과학을 좋아하는편인데 잘하는건 아니에요 국어는 독해력이 부족해서 점수가 잘 안나오는편이구요 영어는 그나마 자신있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사회나 국사세계사지리 이런 내용은 정말 싫어해요. 막 외우면서 복잡한것을 싫어해요,,근데 영어단어같은건 괜찮더라구요. 그리고 논술같은 글쓰는걸 잘못해요 주위에서는 잘한다고 막 그러는데 제가생각하기에는 아직 부족한것같아요,,주위에서는 성적같은거나 취미생활을 보면 문과성향이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좋아하는과목은 이과쪽이거든요,,제취미가 팝송을듣거나 외국영화 감상하는것을 정말 좋아해요..그리고 제가 이과쪽에 관련된 직업들은 또 약간 저한테는 맞지않는것들이 많더라구요 오히려 문과쪽에 저랑 맞는 직업들이 있어보인다고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하셨구요,,,쫓으시면 고2인데 정말 고민되요. 학원은 벌써 이과를갈것으로 목표를 하고 다니고는 있지만 정말 고민되요 수학같은 과목은 좋아하는데 점수가 잘 나오는편이 아니라서요,, 어떻게 꿈을 정해서 어느쪽으로 과를 정하는게 나올까요? 문,이과 둘다 가지고 있는 성향



은 어떻게 직업선택을 해야 맞는걸까요?...참고로 제가 미술쪽에도 많이관심이있는데 문과나 이과를 가면서 이특기를 살리면서 가질수있는 직업 없을까요?
긴 글 읽어주신거 감사하구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다시 빛날 H님의 진로에 대하여~

H님 안녕하세요?

불볕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만 어제는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만 세찬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빗소리마저 시원한 느낌이 들더군요.

H님은 정확히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문, 이과 성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직업 중 미술에 대한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직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군요.

H님의 글을 읽고 문, 이과와 미술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전공이 어떤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H님이 제시하신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선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진로를 선택할 때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더 생각해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H님은 문, 이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비하여 큰 장점입니다. 자신의 장점을 기반으로 꿈을 찾기 위해서는 진지하게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중하게 진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진로의 선택에 앞서 커리어넷이나 학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진로탐색 및 흥미도 검사를 통하여 자신의 장점 및 진로 유형, 직업 흥미도 등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워크넷에서도 Holland 검사를 통해서 몇가지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하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추천하는 검사는 청소년 직업흥미검사와 고교계열흥미검사 및 대학전공흥미검사 등도 실시하여 보다 자신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H님이 글 속에서 밝혔듯이 이과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이과 과목을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연계열을 선택한 부분에 대하여 좀 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역량을 키워 가는데 더욱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국어를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 국어보다는 영어를 잘하는 것도 좋습니다. 영어는 문, 이과 관계없이 글로벌시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누구나 공부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H님의 생각과 검사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문, 이과적 성향을 모두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전공은 통계학과나 경제학일 수 있습니다. 이런 학과는 사회적 현상에 대하여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 및 분석할 수 있는 분석적 사고가 필요한 학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술에 대한 특기나 재능이 있는 학생은 산업디자인 분야가 좋을 듯합니다. 요즘은 우리사회의

트렌드도 융합적 사고와 통섭적 학문이 대세입니다. IT와 콘텐츠가 강조되는 오늘날의 시대흐름 속에서 H님은 창조적이면서 직관과 통찰력을 갖춘 재능이 있는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진로를 선택한다는 것은 '최고의 것'을 찾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최선의 것'을 찾는 과정이라 봅니다. 남과 비교하여 더 뛰어난 것을 찾으려 하거나 절대적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면 결국 아무 일도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관심가지고 있는 것, 잘하는 것 중에서 나의 진로로 연결시키고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직업도 쉽게 되거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없기에 재능을 살리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로와 직업 선택에 대한 마음이 지금의 고민으로 약간이라도 해결될 수 있다면 좀 더 체계적인 학습플랜을 가지고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언제 내렸나 싶더니만 세찬 비도 이제는 멎고 먹구름 사이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다시 보이는군요. H님의 고민도 세상을 비추는 태양처럼 다시 밝게 빛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커리어넷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커리어넷 드림.



【 4반 - 사례 2 】

성 명	배 정 희	소속 학교명	설악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학교부적응과 진로고민(자퇴)이 결합된 복합적인 상담
- 내담자의 자기주장이 매우 강함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상담자가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내담자에게 균형잡힌 시각을 갖도록 상담하는 방법
- 자기주장이 매우 강한 내담자를 다루는 방법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중3검정고시..

제가 올해로 중3이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 학교시스템이 적응을 잘하지 못하고

아이들과도 친한아이들끼리만 좀애기하고 다른아이들과

크게 친해지지 못합니다.

학교에서는 공부도 잘안되는것같구요

오래동안 고민을 해보았지만 계속학교를 다니기는 싫더군요..

대인관계가 그렇게 엉망인편은 아니나 반에 불량한아이들도 좀많고

해서 어울리기 쉽지않네요

정말 오랜시간동안 고민해서 생각해낸것인데요

중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보아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싶네요

제가 성적이 좋은편은 아니여도 자퇴하고나면 정말 열심히 많은시간들을 컨트롤하며 분배할것 이라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좋은대학을 들어갈거고 직업도 들어가기에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직업을 가지고 싶습니다.

또한 그직업을 가지기 어려운만큼 큰보상이 있는 직업을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것은 바로 검정고시를 본사람이라 사회에서의 시선이 어떻냐는거죠
지금 자퇴를 선택못하고있는이유는 다른것없습니다.

바로 제가 열심히 노력을했어도 그노력을 검정고시출신이라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는게 아닌
가?하는 생각이됩니다

제가16살이니 20살이 되려면 4년남았으니까 2016년인데요

제가 성인이 되고나서 과연 검정고시생이라고 사회의 시선이 좋지 않을까요?만약 제가 좋은직
업을 가졌는데 그직업의 동료들이나 선배들이 제가 검정고시생이라는 이유로 좋지않은시선같
은것이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검정고시생이라면 아무래도 사회에 나갔을때 남들이 이상하게 보고 취직도 안되고 무시하고
그럴까요?

자퇴생각을 하고나서 지금전 16년인생 무엇보다도 진지하며 많은생각을 가지게되었습니다.

이곳이 돈이목적이 아닌 학생들의 고민을 덜어주기위한 좋은사이트인것같아서 제마음을 열고
질문하는것인데요

다른곳처럼 뻥하게 자퇴는 좋지않습니다,자퇴를하면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겨서 외톨이가 될수
도 있습니다라는 답변은 해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제가 고민할만큼해서 내린결정입니다.

자퇴는 이미 확정이라고 해도될만큼 확고합니다.

다만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 중학교는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안나가게 좋을까요?

전 하루빨리 자신만의 시간을가지고 앞으로의 계획을 짤수있는시간을 가지고싶습니다.

중학교졸업까지 반년정도 남은거 압니다..

하지만 반년이아니라 한달도 더있기 싫은곳이 되어버렸어요

학교에있는 제친구들과 조금 멀어지더라도 계속만나고 우정을 지킬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안된다면 어쩔수없는것이죠 이런일로 멀어질사이라면 어차피 시간이 지나 사회로나간다
면 그렇게 서로를 위해줄 친구들은 아닐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자퇴를 정원외관리대상자가 되어야하는데요 고등학교를 검정고
시로 졸업한사람보다도 훨씬더 제가우려하는 사회의 시선이 따가울거같은데요

중학교부터 검정고시를 봐도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이상하게 볼까요?

도데체 얼마만큼 어떻게 이상하게 볼까요?

저를 이상하게 봐도 심한것이 아니라면 그냥 자퇴를 하고싶군요..

요즘 우리세대는 검정고시에대해 크게 차별이 없다고 생각한다지만

그런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바로윗세대 어른들보다 덜하다 뿐이지 편견이 없진않을거같습니다.

그리고 윗세대인 어른들이 또 제선배인데 그들이 이상하게 본다면 그것도 곤란하죠..

물론 정식인 상담은 요즘은 검정고시에대한 편견같은건 없습니다 이런식의 답변을 주실수도
있지요 아직격어보지 못해서 잘은 모릅니다만



부모님이 검정고시에대한 사회의 차가운 시선이 심하다고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부모님이 말한것처럼 시선이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을수도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편견이 없을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중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본사람을 그렇게 이상하게 볼까요?그렇다면 그정도를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검정고시출신이면 공기업은 어렵겠군요
 사기업인 현대나 삼성기업쪽에서는 그런 편견이 적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제 상황이 절박하고 복잡합니다..
 제발 도움이 되주십시오
 제가 살면서 자발적으로 이런 고민글을 올리게될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자퇴..할껍니다.
 다만 얼마만큼 사회가 편견을 가질지가 궁금합니다.
 상담해주시는분의 경험과 지혜로 저의고민을 덜어주셨으면 합니다.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최선의 선택은...

안녕하세요, fa908님.

fa908이 자신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상담요청글을 써주어서 선생님은 fa908님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고 복잡한지를 느낄수 있었습니다. 중3이라는 나이에 이렇게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대견하면서도 큰 용기가 필요한 자퇴를 결심하고있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fa908님의 마음고생이 선생님에게도 안쓰러운 마음으로 전해져옵니다..

fa908님은 학교적응, 대인관계, 성적 등의 문제로 자퇴를 결심하고 검정고시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졸업후 직업을 갖게 되었을때 직장에서 검정고시 출신자라는 이유로 편견과 차별을 받게될까 두려워하고 있지요.

fa908님이 현재 자퇴를 하려고 결심하고 있지만, 막상 미래에 자퇴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차가운 시선과 차별을 겪게 될까 불안해하는 것은 fa908님이 집단 내에서 구성원들과 잘 어울리면서 융화되고 싶고 그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바람이나 욕구가 있기때문이 아닐까요...?? 선생님은 fa908님이 자퇴 후에 겪을수 있는 일들에 대해 미리 자세히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fa908님이 자퇴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검정고시 출신자라고 해서 대학진학이나 취업에 드러내놓고 차별을 받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사회적인 인식, 고정관념적인 시선은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fa908님이 알고 싶어하는 공기업은 어렵다, 사기업은 그런 편견이 적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fa908님에게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싶어요. 기본적으로 직장은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 일종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직 내에서는 자신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내가 남을 도와야 남도 나를 도와줄 것이고 그래야 내가 맡은 일을 더 쉽게 잘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조직 내에 자신과 같은 지역, 같은 학교 출신의 선후배가 있다면 동질감이 쉽게 형성되어 협력이 더욱 잘 일어나겠지요. 검정고시 출신자라면 서로 챙겨주고 도와주는 선후배가 없다는 의미이고, 그런 선후배집단 옆에 있는 나는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기에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차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있다고 봅니다. 선생님은 fa908님의 업무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이 검정고시 출신자나 아니냐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비록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차가운 시선으로 fa908님을 볼 수도 있겠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fa908님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알게 되면 그들도 달라질 것이고, 곁에서 fa908님의 인성을 점차 알게되어 fa908님을 신뢰하게 된다면 그들이 가졌던 싸늘한 시선과 편견은 서서히 사라지고 fa908님을 소중한 동료로 받아들여주리라 생각해요.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은데 현재 내게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다면 다소 마음에 들지 않고 부족하더라도 차선의 선택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노력하여 채워간다면 결국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것이라 생각해요. 중대한 결정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fa908님이 힘내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선생님이 응원할게요. fa908님, 힘내세요~화이팅!!!

커리어넷 드림



【 4반 - 사례 3 】

성 명	서 해 경	소속 학교명	광주 수완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대학 진학 여부 불확실성에 대한 고민
- 구체적인 학과의 합격 여부 문의시 어디까지 답변을 해야하나?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학생의 현재 성적에 따른 희망 대학 학과 합불 여부를 물어올 때 어느 선까지 답을 해야하나?
- 다양한 학과와 직업에 대한 문의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대학을 가야할지..

대학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성적이 어중간한 편이고 대학은 지방 하위권 4년제 갈 수 있을것 같아요.

지방 하위권 4년제라도 제가 원하는 학과라면 학교 이름이야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하지만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비싸면서 취업률 보장이 안된다는게 현실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열심히 하면 개천에서도 용이 난다지만 제가 가고싶은 학과는 광고홍보학과나 연극영화과에서 연출하는 분야인데 솔직히말해서 소질이 없는것 같아요. 그래서 비싼 등록금 내가면서 다녀도 그냥 취미?로 끝날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듭니다. 전문가한테 성격검사 받아본적도 있는데 창의력있는 분야보다는 경영학과처럼 딱딱한 분야가 맞는다고 하더라구요. 통역쪽이나 역사고고학도 흥미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광고홍보학과쪽이 가장 배워보고싶어요.

요약하면 가고싶은 학과는 있지만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에 가도 소질도 많지 않아 전공분야에 취업이 될지 확실할수가 없어 대학가기를 망설이고 있다는 얘기에요.. 혼란스럽습니다.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며..

J님 안녕하세요~~

등록금과 취업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대학진학여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걸 보니, 참 생각이 깊고, 현실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전망도 할 줄 아는 훌륭한 학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관심있는 분야는 광고홍보학, 연극영화과의 연출인데 성적과 적성에 자신없어하고 있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네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님이 하고싶은 분야는님의 꿈이 분명합니다.

J님의 꿈이 광고홍보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라면 그 꿈을 실현시킬 방법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먼저 이러한 질문들에 답을 해볼것을 권합니다.

- 많은 투자비용이 예상되는 대학진학을 통하지않고도 광고홍보관련 일을 할 수 있는가?
- 시간과 노력, 경제적인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꿈인가?
- 꿈을 위해 그 투자들을 헛되지않도록 할 의욕과 열정이 있는가?

지금님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선택에 책임지도록 어떤 곳에서든 최선을 다하면 결코 부끄럽지않은 삶을 살고 있을겁니다.

먼저, 광고홍보학과에 대한 적성에 관한 정보를 보면 님의 적성이 경영학분야라고 해서 전혀 광고홍보학과 무관한 건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 광고·홍보학은 광고 및 홍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므로, 시장, 제품, 소비자를 분석하는 능력과 광고 및 홍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창의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소비자의 심리와 시장의 경제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심리학, 경제학, 경영학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

다음은 온라인광고기획자의 직업인 인터뷰내용입니다.

온라인광고대행사에서 광고주를 영입하기 위한 영업에서부터 온라인 광고를 운영, 관리하고 광고전략 방안을 수립하는 등 온라인광고 전반에 대한 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광고 기획자라는 직업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생겨난 직업이에요.

대학에서 MIS(경영정보학과)을 전공했어요. 수업 중에 ‘인터넷 마케팅’이란 과정이 있었는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인터넷 마케팅에 대한 성장가능성을 알게 되었죠. 또 수업을 듣거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컴퓨터를 활용하는 시간이 많아보니 자연스럽게 궁금증도 생기고 관심이 가더라고요. 처음 인터넷을 할 때는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되는 결과들을 보고 해당 사이트 직원들이 정리해서 올리는 건 줄 알았어요. 스폰서링크, 파워링크 같은 것들이 광고라는 것조차 몰랐었죠. 하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다 보니, 취업을 할 때도 이 분야로 준비를 하게 되더군요.

이를 봐도 광고홍보가님의 적성과 동떨어진 분야가 아니란걸 아시겠죠?

대학 진학이 진로의 끝이 아니라고 얘기해드리고 싶네요.

성적으로 인해 모든게 불가능하다고 느껴지겠지만, 포기하지않는 한 실패는 없으며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는 있거든요.

중요한건 자신감이고, 스스로를 믿는 신념입니다.

J님을 한 번 믿어보세요!! 그리고 님의 꿈을 생각하세요!!

님의 현명한 선택 기대하며, 어려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실을 찾아주세요.

튼튼한 힘이 되어주기위해 노력하는 커리어넷이 있습니다.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커리어넷 드림

【 4반 - 사례 4 】

성 명	손 석 규	소속 학교명	금천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진로를 찾고 싶다고 했지만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 무엇을 상담하려하는지 모르겠다.
-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 쉽게 흔들리고 자신의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다.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내용이 너무 많아 답변을 해야 할 중심 내용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럴 경우 답변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할지~
- 이런 내담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상담자의 뜻만 따르려고 하지 않을지 ~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진로를 못 정하겠어요.ㅠ

제가 이렇게 상담 요청을 한 이유는 진로를 못정하겠어요..

사실 꿈이 있었던건 사실이에요.

초등학교 땐 연구원이 꿈이였고 중학교땐 자동차 디자이너였다가 잠시 꿈이 의사로 바꿨다가 다시 자동차 디자이너로 돌아왔는데 또 다시 꿈이 사라졌어요.

고등학교 올라오니 진로라는 과목이 있더라구요.

그 과목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대입 과정과 현실을 너무 느꼈네요.

그래서 자신감도 뚝뚝 떨어졌죠...

솔직히 집안 자체가 디자인쪽의 기질은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서 물려 받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제가 디자인 쪽으로 간다면 미술학원도 다녀야 되구..

미술학원 다니면서 성적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두 되고..

제가 미술학원 다니면서 영 제 적성이 아니면 그동안 시간을 낭비한 거잖아요..

또 제가 봉사활동을 올해 1월부터 준비한게 다 병원 관련으로 해서 이것도 좀 아깝구..

아...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ㅠ

또 여기 커리어넷에서 검사를 해보니 종합적으로 기상연구원이 저랑 잘 맞다고 하네요?! 제가 초등학교때 꿈이 연구원이다 보니 또 솔깃하고..



갈등이 너무 심하네요..

고1때 부터 빨리 진로를 결정해서 거기에 맞게 공부와 실천을 해야하는데 이 진로를 못정해서 힘들어요..ㅠ

도와주세요..ㅠ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긍정의 힘으로 꿈을 설계합시다.

조리미님, 안녕하세요? 커리어넷입니다.

조리미님의 상담내용으로 보아 디자이너, 기상연구원, 그리고 의료계열(봉사활동으로 보아)로의 진로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력도 아주 우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 수시로 바뀌는 본인의 진로, 막연하게 생각하던 대학진학과 미래 직업선택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큰 바위에 짓눌린 듯 가슴이 답답하겠지요.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버려야 할 길에 대한 미련과 결정해야 할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두려워하는 님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합니다. 이러한 혼란으로 인해 자신감과 꿈을 잃어가고 있는 조리미님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조리미님은 자기 이해를 위하여 커리어넷에서 심리검사를 하는 등 그 동안 진로 결정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현재 진로결정에 혼란을 겪고 있는 님의 경우 원하는 직업을 좀 더 심층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따라서 검사결과를 통한 자기이해와 함께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적성과 흥미 등을 고려하여 「[커리어넷→직업정보→커리어넷직업사전](#)」이나 「[한국직업정보시스템](#)」 등에서 관심직업을 탐색하고 님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직업에 우선순위를 매겨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진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갖거나 평소 관심을 가졌던 직업분야나 검사결과에 제시된 직업군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찾아가 직업의 성격이나 요구되는 능력 등에 대해 탐색해 보는 것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로와 관련된 전공학과, 즉 산업디자인학과(자동차디자이너), 대기과학과와 천문학과(기상연구원)에 대하여 대학교나 커리어넷 등을 통하여 학과의 특성을 탐색하여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조리미님, 디자이너를 꿈꾸든, 기상연구원을 꿈꾸든 대학을 진학하는 데에는 학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창의성을 중시하는 디자인계열도 성적이 우수하여야 진학이 가능합니다. 현재 홍익대와 경기대 등 일부대학교에서는 실기시험 없이 학업성적(정시의 경우 수능능력시험 포함)을 포함한 서류평가와 면접 등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진로를 결정하던 학업을 게을리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님이 활동하고 있는 모든 것(봉사활동 등)은 어떤 전공을 선택하든 입시에 영향을 준다고 보면 됩니다.

조리미님의 말씀대로 빨리 진로를 결정해서 거기에 맞게 학습계획을 수립하여 진학준비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직 확실하게 꿈을 정하지 못했다고 너무 조금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는 말이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나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 나의 특별한 흥미를 끝만한 직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탐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진로를 결정하되 결정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진정 가야할 길을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요? 「엘리너 루스벨트」는 “미래는 자신이 가진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신감을 가집시다. 중요한 것은 하고자 하는 집념과 도전하려는 정신입니다.

커리어넷 드림



【 4반 - 사례 5 】

성 명	송 기 정	소속 학교명	신서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상담위원이 되면서 했던 첫 번째 상담이었으며 관심분야가 많지만 자신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막연한 관심만을 갖고 있는 내담자 유형이 학교에서도 많이 있음
- 내담자가 실제 조언한대로 실행할 지 의문이 듦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관심 분야가 많은 내담자인 경우 자신에 대한 이해(특성)가 중요성함을 알려주고자 함
- 관심분야에 대한 구체적 정보 수집을 통해 자신과의 연관성을 생각해보면서 진로의 폭을 줄일 수 있도록 함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제가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보고 싶은게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뭘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목표가 아직없습니다. 장래희망을 여러개 정해보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인터넷으로 진로검사해도 다 못미덥고...

제가 하는걸 보면 지극히 문과계열이고 사회를 꽤 좋아해서 점수도 잘나옵니다, 하지만 그쪽으로 직업을 갖기는 별로입니다.

저는 스포츠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특히 축구에 있는데 중1부터 애들따라서 하다보니 축구한다면 그냥 즐겁고 괜히 붕붕뜨고 그렇습니다...그래서 축구선수도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ceo, 펀드매니저, 정치인 자동차디자이너. 제품디자이너.... 이렇게 있는데 디자인은 그냥 제가 차를 좋아해서 차 디자인을 해보면 어떨까해서 생각해보는중입니다. ceo는 제가 한번 경영도 해보고 싶고 또 돈도많이벌어보고 싶고 등등 드라마에서 나오는 ceo 처럼 한번 해보고싶다라는 마음에서 중1때부터 구체적이진 않지만 어렴풋이 진로를 이쪽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은 뉴스를 보다보면 내가 저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 이문제가 해결되지않을까? 라고 생각이들고

대통령이야기 나오면 " 아 진짜 내가 대통령 되서 바뀌버릴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직업에 대해서도 많이 찾아다니고 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보려했는데 정확히 마음에 드는게 딱 없습니다.

지금은 중3이라서 고등학생준비나 하고 주위에서 그러는데
 목표가 정해지지 않아서 공부도 설렁설렁 하게 되고.... 점점 그러는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막 무엇이든지 해보고싶다? 그런마음이 항상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기계를 만들어볼까?.. 배우를 해볼까... 자동차를 만들어볼까,, 디자인을 해볼까?
 이런생각이 마구 떠오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될까요...
 맨날 진로를 생각하다가 아 진짜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하다가 멈춰버리고 자버리거나
 컴퓨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제 직업을 어떻게정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진지하게 생각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해나가면 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진로를 정하고 싶군요.

반갑습니다. 진한님!

오랫동안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면에 관심과 열정이 많은
 씩씩한 중3 진한님을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가워요.

진한님은 현재 관심있는 직업이 너무 많아 무엇을 진로로 결정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군요.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관심분야가 없는 경우보다 긍정적이고 격려를 받을 만한
 일입니다.

진한님~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가 어떤 것인지
 (직업호미), 자신이 잘 하는 분야가 어떤 것인지(직업적성)를 생각을 해 보는 것인데요.

주변에 나를 잘 아는 사람들(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에게 "난 어떤 사람인지"인지 물어도 보고
 '나의 장점 3가지만 칭찬해주세요'라고 질문도 해보면서 나에 대한 탐색을 해보는 방법이 도움
 이 될 수 있어요.

이러한 자신에 대한 탐색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분야의 직업을
 선택해야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즐거우면서도 열심히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진한님처럼 하고 싶은 직업이 많을 경우 "어렸을 때의 장래희망"을 써 보고 "왜 그것이 되고
 싶었는지" 이유와 "지금 관심있는 직업을 언제부터 좋아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써
 본다면 막연히 관심을 가졌던 직업들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관심 직업에 대해 구체적이고 다양한 탐색과정(하는 일, 준비과정, 경로, 자격요건 등)을 통해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능력들을 잘 발휘할 수 있는지, 일을 해나가면서 겪게 될 힘든 점 등의 정보를 수집하며 자신이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 지 등을 충분히 생각해 본다면 진로의 폭을 조금씩 줄어나갈 수 있어요.

진한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축구선수에 관해 먼저 알아보까요?

일반적으로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초·중학교 때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 고등학교의 운동부를 통해 오랜 훈련을 거친 후에 진출하거나,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교에서 체육학, 사회체육학 등 체육 관련 학과를 전공하기도 합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것만으로 축구선수가 되어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진한님이 축구에 정말 소질이 있고 잘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축구가 있는 학교나 축구 클럽에 가입하여 체계적으로 운동을 시작해야해요. 축구가 좋아 아이들끼리 운동을 즐기는 정도로는 축구선수가 될 수 없으므로 학교 체육 선생님이나 주변에 있는 운동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해 보길 바래요.

진한님처럼 운동을 좋아한다면 스포츠 관련 직업 선택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스포츠 관련 직업에는 스포츠에이전트, 스포츠마케터, 스포츠타레이너, 스포츠마케팅전문가 등 꼭 운동선수가 아니어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운동 관련 직업들이 많이 있어요.

진한님은 사업가(CEO)나 정치인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이 드라마처럼 멋지고 성공적으로만 이루지기 어려울 때가 많으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가나 정치가로서 가상의 계획서도 만들어 보길 바래요. 두 직업은 모두 리더십, 사회성, 책임감을 필요로 한다는 점으로 진한님의 특성(흥미, 능력, 성격)과도 일치하는지 좀 더 꼼꼼히 살펴보세요.

펀드매니저는 진취형과 탐구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환율, 물가 등 경제 내외적 변수를 읽는 탁월한 수리력과 분석력이 요구되지요.

제품디자이너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제품을 디자인하지요. 조형미와 미적 감각, 창의성 등은 물론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취향과 심리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마케팅 감각과 상업적인 아이디어를 필요로 합니다.

위의 정보는 아주 간략히 요약한 정보로서 진한님이 직접 자신의 특성(흥미, 적성, 성격 등)에 비추어 관심 직업을 탐색한다면 자기 자신의 삶의 주체자로서 진로 결정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커리어넷 메인화면 >직업사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편드매니저, 운동선수, 디자이너" 등으로 검색하면 관련 직업에 대한 정보와 자료들을 다양하게 얻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진한님이 아직 중학생임을 고려할 때 특정 직업에 대한 빠른 결정보다는 자신에 대한 특성을 충분히 탐색을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또한 관심 분야에 종사하는 주변 사람들의 경험담도 들어 보고 관련 직업에 대해 단기간이라도 체험을 해보길 권유드려요. 만약 그런 기회를 가지기 어렵다면 커리어넷 메인화면의 직업정보> 직업인인터뷰 등도 함께 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진한님! 진로 결정이 늦었다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관심 진로 분야의 폭을 줄여 나가길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공부도 게을리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의 꿈을 향해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드리고 싶네요.

위의 답변이 진한님의 진로 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 상담실을 언제든지 방문해 주세요~

커리어넷 드림



【 4반 - 사례 6 】

성 명	송 선 용	소속 학교명	광성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공부하기가 싫어요

정말 공부하는게 재미있었고 다른 사람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좋아서 무리해서 전국 1, 2 위하는 특목고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도 1등 할줄 알았더니 7~8등급 때로는 9등급을 전전합니다

이대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었으나 공부를 많이해야 한다면 흥미를 잃었습니다(중학교 때는 그게 매력적으로 보였는데...)

공부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려고 해도 용기가 안나고 못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시간만 보내요

자퇴도 2년간 수십번 생각하고 생활기록부까지 찢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2학년이어서 자퇴도 힘듭니다

목표를 잃은 느낌입니다

되고 싶은 게 없어요

다른 애들은 너무 잘합니다 일단 영어에서 밀려요 저는 외국에서 안살다 왔거든요

못하겠어요

여기를 마지막 심정으로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목적없이 공부를 못하겠어요

요즘들어 문득 내 꿈이 뭔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인터넷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루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과 소양을 갖춰야한다는데 전혀 공감가지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요....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힘내세요. 절망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소녀님! 커리어넷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녀님은 심한 무력감에 빠져 있는 듯해요. 정말 고교 시절을 어렵고 힘겹게 보내는 소녀님의 심정을 누가 헤아리겠습니까? 나름 자부심도 있었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도 있었을 소녀님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오히려 멍멍합니다. 힘내세요. 절망하면 안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소녀님 자신입니다. 소녀님의 인생은 소녀님이 지금 현재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45억년 지구의 역사에서 지금 이 시점에 태어나서, 소녀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현재 상황이 어찌하든 지금 지나가는 시간들은 매우 소중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녀님에게 글을 남기는 저도 엄청난 인연으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소녀님은 조금 상대적인 좌절감에 빠진 것 같아요. 주변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고 의욕을 상실한 모습입니다. 2학년이면 성적은 1학년 성적만 확정되어 나온 것입니다. 2학년은 1학기 1회고사를 봤을 뿐이구요. 대학입시에서 일반적으로 내신 반영이 1학년은 20% 정도 반영된다고 봤을 때, 아직 80%가 남아 있어요. 좌절하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추스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전형요소 중 하나가 성적 향상도라고 봤을 때, 아직은 경기가 한창 중입니다. 어찌 창을 내려 놓으려 합니까? 다시 다부지게 창을 쥐고 돌진하세요.

혹, 소녀님은 다른 사람에게 잘보이기 위해 어느 만큼 살아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부터는 남이 아닌, 외부 시선이 아닌 소녀님 자신을 위해 인생을 설계해 보세요. 그리고 되고 싶은 게 없다 했는데, 이는 소녀님이 조금은 자신감이 없어서일 수 있습니다. 방법은 자신감을 찾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장점을 찾아 일단 실력을 쌓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목표가 생깁니다. 피나는 노력은 그 자체가 목표일 수도 있어요. 그 노력의 끝이 목표, 즉 찾고자 하는 소녀님의



목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보세요. 42.195KM을 노력합니다. 거의 목표의식 없이 달리지요. 하지만 끝에 골인과 영광이라는 목표가 나타나요. 과정은 노력만 있을 뿐입니다. 옆 사람이 달리든지 말든지 앞서가든지 말든지 소녀님이 스스로 달리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조건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자신이 잘하는 분야를 더 잘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영어, 도저히 안되면 포기해도 됩니다. 다른 과목을 더 잘 하세요. 대학입시가 매우 다양하므로 자신의 조건, 즉 장점을 잘 살리는 것이 훨씬 입시에서는 수월한 경우가 많아요.

소녀님은 학습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봐요. 중학교 때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컸잖아요. 고등학교 때 왜 그런 자존감을 찾지 못했습니까? 고교에서의 경쟁은 어느 학교나 중학교보다는 심해요. 일단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 했는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요. 좋은 것은 고통과 노력에 의해 얻어져요. 그것은 실력입니다.

자! 심기일전하고 책상에 앉아 활자를 보세요. 자신의 미래에 도움이 될 체험이 무엇인가 구상해 보세요. 소녀님이 다닐 미래의 너른 대학캠퍼스를 상상해 보세요. 소녀님은 할 수 있어요. 방향은 끝내세요.

커리어넷 드림

【 4반 - 사례 7 】

성 명	신 영 화	소속 학교명	울산과학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대학생의 경우라 접근하는 방법에 어려움이 있었음
- 심리적 위안 보다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음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대학생인데 전공에 갈등을 겪을 때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 열심히 하지 않고 의욕이 없는 경우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아직도 해야될일을 몰라서 방황해요TTT

과도 정해져있는데
아직도 해야할 일을 모르겠어서
열심히 하지도 않고
막막해요TTT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노력한다면 희망이 있을 거예요^^

qwqw님, 글 올려줘서 반가워요.

대학생이고 전공도 정해졌는데 아직 해야 할 일을 모르니 얼마나 막막하고 힘들겠어요.

장래희망이 정해져야 열심히 노력을 할 텐데 목표가 없으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어렵겠네요. qwqw님의 글을 읽고 자신의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채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 대학생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네요. qwqw님과 같은 고민을 하는 대학생들은 주위에 생각보다 많아요. 쉽지가 않았을 텐데 용기를 내어 상담신청을 한 걸 보니 자신의 진로 잘 개척할 수 있으리라 믿어요. 힘내세요.



공부는 왜 해야 하는지,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은 무엇인지를 먼저 정한 후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이 맞는 순서인데 공부만을 강조하다 보니 진학 후 진로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잘못된 대학선택도 많아 졸업 후 다시 학교를 다녀야 하는 경우도 많아요. 본인에게만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교육 현실에도 문제가 있으니 자신에게 용기를 주면서 지금부터라도 노력하세요.

우선 자신의 전공을 감안하여 맞는 직업을 충분히 조사해 보세요. 졸업 후에 어떤 직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 탐색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관심이 가는 직업이 있다면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현재 내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세밀하게 조사해 보세요.

물론 현재는 원하는 직업에 많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훨씬 나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여겨져요. 대학생이고 하니 마음은 많이 조급하겠지만 쉽게 결정되지는 않을 거예요. 전공을 살려 직업을 찾아보는 것이 지금에서는 자신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혹 전공과 관련된 직업 중 마음에 드는 직업이 없고 과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보다 세밀한 자기 자신의 이해가 필요해요. 적성과 흥미 검사에 대한 것도 생각해 봐야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도 폭넓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전공이 무엇인지 qwqw님에 대해 아는 것이 충분하지 않아 시원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더 상담을 올려 주세요

꼭 원하는 직업 찾길 바라고, 목표가 뚜렷하게 설정되길 진심으로 바래요^^

커리어넷 드림

【 4반 - 사례 8 】

성 명	신 일 섭	소속 학교명	성주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답변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상담내용
- 유학과 관련된 정보의 부족과 정보 수집 방법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답변에 제시한 [UAL의 대표 사무소]는 유학원인데, 사교육업체를 안내해도 좋은지, 안내한다면 어느 정도로 안내해야 하는지.
- 사교육업체인 유학원과 통화하고 난 느낌은 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유학 코스를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틀 안에서 코스를 안내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런 점까지 내담자에게 정보를 안내해야하는지, 안내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센트럴 세인트마틴학교에 다니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상담합니다.제가 인터넷에서 모은 정보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그런데 세인트 센트럴 마틴이라는 학교에 입학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나이제한은 업는지,학력제한은 업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향후 2년안에 미국에 갈 수도 있는데 미국에가선

디자인 공부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미국에선 고등학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사정이 라 혹시 입학할때 문제가 있을지 고민됩니다.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입학심사회에 참관인으로 참석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윤아님.

재상담을 환영합니다. 센트럴 세인트 마틴(Central Saint Martins)의 입학조건 등이 궁금하군요.



센트럴 세인트 마틴은 런던예술대학(Universty of the Arts London 이하 UAL)에 속해 있기 때문에 먼저 UAL의 일반적인 입학요강을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의 [입학요강]을 클릭하세요. 교육비, 영어 레벨, 포토폴리오 준비 등을 살펴봐요.

국내에 있는 [UAL의 대표 사무소]를 클릭하세요. 영국유학 탭의 여러 정보를 확인해요.

위의 두 사이트만 살펴봐도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네요. 특히 두 번째 사이트는 한글로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네요. 여기서는 첫 번째 자료를 토대로 두 번째 사이트에 없는 주요 사항 몇 가지를 설명할게요.

1. 정규 학위과정에 입학

1) 편입학하는 방법

2) 바로 입학하는 방법

1) 편입학은 국내 대학을 최소한 3년 이상 다닌 후, 2학년에 편입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실력이 뛰어나다면’ .

2) 학사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자격이 필요하고, 영국인이 아닌 경우는 곧바로 학사과정에 입학하기 어려워 1년간 예비과정(Foundation)을 이수하고 입학한다고 합니다.

2. 방문유학생 과정(Study Abroad)

Study Abroad는 국내 대학(국내 대학이 UAL과 연계되어 있다면)에 다니다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UAL에 유학 가서 공부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면, 국내의 대학에서 2학년을 마치고 UAL의 1년 과정을 수료한 후 다시 국내 대학에 돌아가 3학년이 되는 것이죠. (브로슈어 p.8의 step 4). 자격요건은 IELTS 점수 6.0 이상,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의 학점이 3.0이상과 포트폴리오이군요.

3. 비학위과정

- 1) 평생교육과정(ABC Diploma 등)
- 2) 예비과정(Foundation)
- 3) 여름학교(International Summer School)

1)은 1년 정도의 과정으로 우리나라의 대학부설평생교육기관의 일반인을 위한 교육과정과 비슷한 것 같아요.

2)는 대학의 여러 전공을 미리 교육받아 대학 진학 시 전공 선택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3)은 만 16세~18세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7월에 3주간으로 진행되는데, 포토폴리오 제작, 대학 입학 준비 등의 교육을 한다고 해요.

위의 유학 방법 중 가장 비용을 적게 들이는 길은 1-1)의 편입하는 것입니다. 영국은 학비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국내 대학에서 2, 3학년 다니다가 센트럴 세인트 마틴(Central Saint Martins)에 다닌다면 비용이 많이 절약될 거예요.

물론 여유가 있다면 여름학교(Summer School)에 참석하여 포토폴리오 제작과 대학 입학을 안내받는 것도 좋겠죠.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UAL의 대표 사무소에서 입학심사회를 7월 2일~4일에 한다고 하니 한번 방문해서 분위기도 파악하고 상담도 받아 보세요.

그럼 윤아님의 고민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진로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더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 신청해 주세요.

커리어넷 드림



【 4반 - 사례 9 】

성 명	안 광 윤	소속 학교명	평창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가장 보편적인 사례이지만, 답변하기 가장 어려운 사례
- 진로고민의 막연함을 해소할 명쾌한 답변은 무엇인지 고민이 됨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내담자의 고민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방법
- 어떤 형태로 답변하는 것이 내담자를 돕는 것일까?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진로 고민이 힘듭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 왔지만 아직까지 확실히 저에게 맞고 이렇다 말할 수 있는 직업을 정해보지 못했습니다.

적성검사도 그렇고, 타인들이 말해주는 것도 종합하여보면 저의 적성과 저의 흥미는 확연하게 드러나지만, 그렇다고 직업을 정하자니 고민이 너무 커집니다. 잘하는 것과 흥미있는 것 들 중에서 자신감도 부족한 듯 싶고, 그 길로 나가서 혹시 실패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많습니다. 요즘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진로에 대해 알고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직업선택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지고자 합니다.

흥미와 적성은 그런대로 알고 있지만, 막상 직업선택이 힘듭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실 경우도 걱정하고, 실패를 할 경우도 걱정하며 정말로 그 길에 나가 성공할 수 있을지가 가장 걱정됩니다.

만일, 그 길을 위해 학창시절부터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길에 섰을 때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한 길이 될까봐 직업선택에 있어서 너무나 고민이 큼니다.

현명한 직업선택의 길을 알려주세요.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진로선택엔 정보와 용기, 선행자의 조력도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커리어넷입니다.

적성과 흥미는 잘 알고 있지만 자신감도 부족하고 그 길로 나가서 실패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신다고요.

부모님의 반대도 걱정이 되지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걱정도 되고요.

초등학교때 부터 진로에 대해 생각하고 신중하게 노력하는 님들은 분명 훌륭한 선택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진로선택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1. 나의 선택이 올바른 것인지.
2. 정말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인지.
3. 이 선택이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지.

하지만,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와 자기이해를 통해 자신의 선택에 긍정적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에 따른 열정과 노력도 님들에게 매우 중요하지요.

선택에 대한 불안함은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가지 않는 길에 대한 동경도 선택 이후에 갈등의 요소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실패할까 두려운 마음이 너무 크면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아무 선택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성공한 직업인 그 누구에게 물어도 단 한번도 실패 없이 그 길까지 올랐다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길로 나가야겠다는 방향이 결정되었다면 그 길을 묵묵히, 꾸준히 밟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힘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실패에 대처하는 마음가짐과 해결방안도 찾게 되는 것이므로 시작도 하기 전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내기 바랍니다.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1. 자신의 결정에 대한 굳건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주변환경의 걸림돌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지요.
2. 그리고 자신의 진로선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자신이 선택한 길과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멘토를 만들어 보세요. 그 분은 이미 학생이 걷고 있는 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에 충분한 조력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커리어넷은 닭돌기님이 현명한 진로선택을 할 것이라 믿으며 그러한 진로선택을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닭돌기님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커리어넷 드림

【 4반 - 사례 10 】

성 명	양 동 철	소속 학교명	영천여자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미술 교사가 꿈인 학생으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대학을 가고자 함
- 포트폴리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에 대한 답변이 어려움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한정된 지면과 시간에 만족할 만한 입학사정관전형과 포트폴리오 준비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내담자에 대한 제한된 정보만 가지고 만족할 만한 입시 상담을 할 방법은?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입학사정관제

안녕하세요 미술선생님이 꿈인 한 학생입니다.

저는 사범대를 가서 미술교육과를 나와

중/고등 미술선생님이 되고싶은데요.

사범대도 입학사정관제로 갈 수 있나요?

만약 된다면 포토폴리오를 어떻게 준비해야될까요?

또 에듀팟 기록이 나중에 대학 입학때 도움이 될까요?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꿈을 이루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수진님! 커리어넷 입니다.

미술선생님이 꿈이고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하여 궁금하시군요

입학사정관 전형은 학교에 따라 전형기준이 다 다릅니다.

가고자 하는 희망 대학을 먼저 선택하고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 입학사정관전형에 대비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범대학에서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미술 선생님이 되려면 사범대 미술교육과를 졸업해야 하는데 사범대 미술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로는 경상대, 공주대, 한국교원대, 경남대, 목원대, 한남대 등이 있고, 이들 대학교 입학사정관센터에 전화해서 상담을 하면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 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입학사정관 전형의 전형요소는 자기소개서, 학교장(교사)추천서, 학생부, 에듀팟 자료가 사용됩니다.

따라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학교생활을 충실하고, 학생부 기록 및 에듀팟 기록을 충실히 하며, 진학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하고,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인재상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입학사정관 전형의 경우,

- 창의적 인성에 바탕을 둔 실천인
- 창의적 아이디어의 구현을 적극 수용하는 실천인
- 미적 체험과 표현을 생활에서 발견하는 실천인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마다 인재상이라던지 모집기준이 다르니까. 미리미리 챙겨 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따라서 에듀팟 기록 무엇보다 중요한 전형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에듀팟 기록 관리 충실히 잘 하기 바랍니다.

그럼 꿈을 이루어 멋진 미술 선생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2년 커리어넷 상담위원단 슈퍼비전 자료집

5반 사례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5반 - 사례 1 】

성 명	양 창 수	소속 학교명	대정여자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 학생들이 ‘인생 포기’ 라는 말을 자주 쓴다. 이 말은 말 그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의미하였고 그런 사례들이 있다. 내담자의 상담 내용에 등장하는 ‘인생 포기’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이 상담자는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가 없었다. 그리고 모호한 문장으로 서술되어 있다.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상담자의 심리 상태가 상담에 영향을 미칠 때 상담
- 난해하거나 모호한 내담자의 상담 내용이 있을 때 상담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저의 진로에 관해서

제가 가려고 하는 길은 토목기술공학자인데요.

제가 이 꿈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아버지가 이 일을 하시는 모습이 멋있어 보여서 입니다, 물론 제가 수학적 능력도 되고요, 아버지는 원자력 연구원에서 토목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힘들셨는지 스스로 그만 두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셨길래 그 일○르 스스로 그만 두셨는지...혹시 제가 아버지를 힘들게 해서 그런건 아닌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직업을 선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만약 그 직업을 선택해서 일이 힘들다면 아버지가 저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일이 힘들어서 포기하셨다고 생각이 될 테니까요.

중학교 때부터 이런 이유로 저도 토목기술공학자가 되서 똑같이 원자력 연구소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교에 와서 진짜로 제 진로를 정해야 되는 때가 오니 이게 정말 잘하는 일인지...자꾸 의문이 갑니다. 아버지가 왜 인생을 포기하셨는지는 제 인생에서 제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제 인생을 포기해야 하는지...

토목공학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학과 물리와 지구과학을 잘 해야 하는데, 수학은 항상 1등급이 나오고 과학 중에서는 그나마 물리와 지구과학을 좋아합니다, 적성에는 맞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진짜로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일인지 그 점이 자꾸만 의문이 갑니다.

막상 상담을 받아보려 하니 말이 두서없이 나왔는데 그래도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자의 답변내용]****제목 : 역할모델 아버지**

안녕하세요. 커리어넷입니다.

토목공학기술자인 아버지를 역할 모델로 삼고 자신의 길을 가려고하는 모습이 대견스럽습니다. 그 만큼 아버지께서는 가족들을 위해서 모범적이셨고 원자력 연구원에서도 인정받는 전문직업인으로 국가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까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가장 멋있었고 자신도 모르게 나도 토목 관련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노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일을 그만 두시면서 토목공학기술자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흔들리고 있군요.

토목공학기술자가 되어서 아버지가 하던 일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매우 자랑스럽고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 동안 일에 몰입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느낀 감정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아마도 아버지께서 일하는 자세나 그 일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이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혜정 님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토목공학기술자의 꿈을 키웠겠죠. 그래서 일을 그만 두신 이유에 대해 더욱 궁금해 하고, 알고 싶어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열정을 갖고 하던 일을 그만 둘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개는 더 나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주위의 여러 환경적 요인들 때문에 등이 있을 수 있어요. 문혜정 님의 질문 글을 읽어보면 아버지는 딸을 무척이나 사랑한 것으로 생각돼요. 지금까지 딸에게 그만 둔 이유에 대해서 딸을 야기는 것은 딸이 행복하기만을 기원하면서 딸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선 공학기술자가 되겠다는 진로에 대한 큰그림을 그리면서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흥미와 적성에 맞는다고 공학기술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을 설득하거나 아버지께서 그만 둔 이유를 알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진로 결정은 주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토목공학기술자가 지금도 멋있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토목공학기술자에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돼요. 자신의 흥미, 적성, 가치관, 학업능력, 환경적 요인을 이해하고 토목공학기술자로서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설명이면 더욱 좋겠지요. 그리고 부모님들과 많은 대화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대화는 있어야 하고 대화를 나눔으로써 가족간의 유대가 더욱 돈독할 수 있고, 그러면 가족 구성원 서로간의 궁금한 내용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슬기로운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생활 속에서 스스로 해답을 얻지요. 부모님들에게 직접적으로 의문 사항을 여쭙어볼 수도 있지만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궁금증을 풀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문혜정 님은 인생 포기란 말을 했는데 이 대목이 궁금했어요. 아버지가 일을 그만 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토목공학기술자의 길을 포기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버지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토목공학기술자이든 또 다른 일이든 신중하고 논리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나' 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겠지만

객관적인 자기 이해가 필요해요. 자신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성찰을 해 보세요. 인생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모님의 문제가 문혜정 님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겠지요. 진로 선택에서 자신의 의지가 중요하잖아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직업 세계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생생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기 자신과 직업에 관계되는 중요한 요인을 최대한 고려한 직업 선택이 바람직한 진로 결정이겠지요.

참고로 다음 사이트를 통해서 토목공학기술자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토목공학기술자\[클릭\]](#)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진로에 대한 다른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 주세요.

커리어넷 드림



【 5반 - 사례 2 】

성 명	양 한 주	소속 학교명	울산경의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정확한 학업수준을 알 수 없어 진로결정 지원을 위한 상담 곤란
- 수시지원을 앞두고 문과, 이과 계열 어느 쪽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고3 수험생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내담자의 학업수준을 정확히 알지 못할 때 상담의 범위
- 진로상담과 진학상담 갈등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제가하고싶은게 뭔지 모르겠어요

1학년 때는 초등학교 교사가 꿈이었고요

2학년 때는 심리치료가 꿈이었어요

3학년이 되어서는 갑자기 간호학과를 지망하게 되었구요..

근데 대학을 알아보다 보니까 너무 막막하고 내가 잘 선택한 건지도

모르겠고.. 이제 곧 수시 시작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과를 다시 정해야 하는 건지... 호텔경영쪽도 재밌을 거 같고..

정말 고민이에요 어떡해야 할까요

진로를 정확히 정하지 못해서 걱정이예요..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학과선택에 어려움이 있나보군요

경의님 안녕하세요.

경의님은 대학입시를 앞둔 고3이군요. 더운 여름 공부도 해야 하고, 수시를 눈앞에 두고 진학 결정하러 많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되네요. 아무래도 고3이다 보니 이제 수시, 정

시 대학진학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할 때이지요. 그런데 고등학교 생활동안 꿈도 바뀌고 이제는 어떤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혼란스러운가 보군요.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갈등이 나 고민 없이 명확하게 이루고 싶은 꿈이 있고 또 그 꿈을 이룬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경의님이 꿈꾸고 있는 직업을 보면 경의님은 책임감이 강하고 침착함이 있고 원만한 성격으로,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고 봉사하는 마음,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인내심이 있는 착한 여고생으로 생각되네요.

경의님은 대학에 대해 알아보다 보니까 너무 막막하고 내가 잘 선택한건지도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어떤 점이 막막한 건가요? 혹시 지금의 성적으로 경의님이 희망하는 대학의 간호학과에 합격할 수 있을지, 아니면 경의님의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궁금해서인가요?

경의님!

지금은 수시 지원을 앞두고 있는 고3이니까 성적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를 고려하여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네요.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자신에게 딱 맞는 직업임을 알고 선택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그 분야에서 요구하는 적성능력과 자신의 능력이 일치할 때 보다 더 그 일을 잘 해나갈 수 있고 흥미도 생기는 것이예요. 경의님이 꿈꾸워 왔던 직업 중 특별히 흥미가 가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에서 경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를 검토해 보아도 좋아요. 호텔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 호텔경영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의 적성능력과 견주어 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경의님.

혼자서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친구, 선생님, 부모님 등 경의님을 잘 아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조언을 듣고 하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는 것에 도움이 될거예요. 그리하다 보면 직업의 특성에 대해서도 잘 이해해 나갈 수 있을 거구요.

경의님.

진로에 대한 확신을 하는 데는 직업 및 관심분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답니다.

경의님이 생각하는 직업과 대학의 관련학과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해보았던 직업적성검사나 흥미검사, 가치관 검사의 결과나 [커리어넷]의 심리검사 결과를 담임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해석하고, 그 결과를 진로선택에 대한 참고 자료로 활



용하는 것도 필요해 보여요.

또한 [커리어넷]의 직업사전과 학교학과정보란을 통하여 관심 직업의 '하는 일'과 필요한 '적성 및 흥미' 외에도 준비방법, 관련학과/관련자격, 직업전망, 문의기관, 뉴스기사, 동영상 인터뷰 등 풍부한 정보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또한 실제로 희망하는 대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해 학과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학과의 커리큘럼이나 졸업 후 취업률 등 진로가 어떤지도 꼼꼼히 살펴보세요. 재학생 및 졸업생이나 학과 조교에게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경의님. 당장 수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목표학과와 대학교를 정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의 진학담당 선생님 혹은 담임선생님과 꼭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권해요. 또한 진학 및 입시에 관련한 상담은 4년제의 경우 한국대학교육협회의 대학입학상담센터에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자신의 성적에 맞는 목표 대학과 그에 따른 입시정보를 알아볼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상담센터] (클릭)

경의님. 조금한 마음이 들겠지만 멀리 보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과 가치는 무엇인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에 따른 진로 및 진학계획을 세우길 바래요. 진로에 대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신청 해주세요.

경의님. 화이팅입니다!!

커리어넷 드림.

【 5반 - 사례 3 】

성 명	이 교 배	소속 학교명	괴산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원하는 대학에 현실적으로 가기 어려운데 이러한 현실을 감정을 상하지 않게 안내하기 어려웠기 때문
-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실을 실망하지 않게 상담해 줄 수 있을까?
- 희망의 답변 내용을 제시했지만, 의례적인 답변 내용을 뛰어넘는 참신하고 감동적인 답변을 해줄 수 있을까?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대학....

제가 hsk 4급을 따서 성결대를 지원할까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때 좀 아파서
 제입으로 말하긴 좀그렇지만 장애인 3급이거든요
 부모님은 저보고 사회배려대상자로
 한양대에리카 들어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4급 수준인데 6급인 애들이랑 경쟁해서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 대학 들어가도 학점안좋으면 졸업 못한다는데..
 엄마아빠가 아는게 없어서
 졸업못해도 가까운데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전 어떡하죠??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hsk 자격증을 활용한 대학 선택

안녕하세요. 커리어넷입니다.



도전님은 장애3급의 어려운 처지임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hsk 4급을 따셨군요. 도전님의 용기와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나름대로 hsk 4급을 활용하여 대학에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대학정보를 분석해서 대학에 도전하고자 하는 모습이 멋져 보입니다.

두 학교를 놓고 어디를 가야할지 고민하고 있군요. 문의한 내용상의 맥락으로 볼 때 두 대학 중 가고 싶은 대학은 한양대학교에리카에 중국학과인 것 같습니다. 집도 가깝고 부모님이 원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갔을 경우를 생각해 보니, 자신보다 hsk 성적이 높은 학생과 경쟁한다고 생각하니 쉽지 않을 것이고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군요. 그래서 내 능력과 처지에 맞는 성결대에 가려고 하니 부모님이 말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구요.

도전님,

성결대 입시 전형을 살펴보니 수시에서 특기자 전형으로 중국어학과를 모집하고 있더군요. 자격 제한 조건으로 hsk4급이상(구hsk는 5급, 신hsk는 4급)을 요구하고 있어서 다른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 제한 조건을 통과한 학생들은 또 다시 내신 성적이나 대학별 고사로 선별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양대(에리카) 수시 2차에서 사회적배려대상 모집하는 사랑실천전형이 있는데 여기서는 중국어과는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어 문화학부, 프랑스 문화학부와 같은 곳에서는 대학별고사인 적성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어우수자 전형에서는 중국어과를 7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공인어학성적을 상,중,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은 hsk 9급이상, 중은 hsk 6~8급/ 하는 hsk : 5급 이하로 점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급수를 올리는 것이 합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급수를 올리기 위한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대학에 응시하고자 할 때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한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문의한 내용으로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내신 성적이나, 비교과 영역 준비도, 기타 내용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이 없어서 더욱 자세한 안내를 해줄 수 없어 아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도전님이 고3인지 고1,2학년인지 불분명해서 더욱 자세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고3이라면 짧은 기간에 급수를 올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2라면 hsk 급수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지원가능한 대학에 대하여 찬찬히 알아보면서 대입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님,

올해부터 수시는 6번 지원이 가능합니다. 두 학교 말고도 지원 가능한 다른 대학도 찬찬히 알아보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대학교육협의회 상담센터에 문의해 보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다소 풀렸는지 모르겠군요. 어려움을 딛고 자신의 꿈을 향해 한발 한발 가고 있는 도전님이 꼭 가고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화이팅!!

커리어넷 드림



【 5반 - 사례 4 】

성 명	이 동 직	소속 학교명	동명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학교 내신 성적에 기초한 대학 및 학과 상담의뢰
- 수도권 지역에 국한하여 대학 추천 요망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전형적인 대학 입시상담 요청 시 답변의 한계 논의
- 구체적 대학에 관한 입시 정보제공의 타당성 논의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서울쪽 4년제 유아교육학과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다니는 1학년 학생이에요ㅠ
 저의 고민은 서울쪽 4년제 유아교육학과에 가고싶어서요 ㅠㅠ
 저가 꼭 서울쪽으로 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설도 좋고
 실습, 체험의 기회도 많고 경험도 많이 해보고 싶어서요 ㅠ
 성적은 ㅠㅠ 음 아직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반에서는 4~6등정도 하고요
 전교에서는 30~65등 사이를 하는 것 같아요 1학년이라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ㅠ
 전문대 보단 4년제가 좋은것같아서요 ㅠ
 흠...ㅠ 성적...ㅠ 성적은 만약 이렇게만 나온다면 서울쪽 어느대학을 가야할까요?
 그리고 서울쪽이 안된다면 4년제 유아교육학과 로 좋은데좀 추천해주세요 ㅠ 고민이 너무 만
 앓네요
 정리하자면요ㅠ

- 1.서울쪽4년제 유아교육학과 가고싶어서요
- 2.성적은 반3~6등,전교는 잘모르겠네요 ㅠㅠ

3.성적으로 간다면 어느 4년제대학이 낡은곳인지 ㅠㅠ
 4.만약 서울이 안된다면 경기쪽 아니면 다른곳이라도 ㅠㅠ
 ㅠㅠ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학년때부터 미리미리 준비하고 싶어서요 ㅠㅠㅠ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유아교육과에 대해 궁금해 하는군요.

안녕하세요? 현○○님

유아교육과를 지망하는 고등학생이군요.^^

우선 자신이 가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님의 적극적인 모습이 참 보기 좋고 듭직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위해 구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꾸준히 노력해 간다면 가까운 미래에 원하는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행복감을 만끽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이 ○○님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님은 현재의 성적으로 유아교육과, 특히 수도권 4년제 유아교육과의 정보에 대해 궁금해 하는군요. 사실 본 상담 사이트는 입시 전문 컨설팅 사이트가 아니며, ○○님의 내신 성적 또한 학교별 수준에 따라 상이하며, 수학능력시험의 성취수준에 기초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므로 명확한 합격여부의 진단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님이 앞으로의 진로설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내용을 참고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유아교육과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 모두 있습니다. 유아교육과가 있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으로는 덕성여대·삼육대·성신여대·이화여대·중앙대·총신대가 있고, 전문대학으로는 명지전문대·배화여대·서일대·숭의여대·한양여대 등이 있습니다. 이들 대학은 모두 수시와 정시 모집으로 신입생을 뽑는데, 대체로 수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논술 및 면접고사 등으로 선발하며 수능 성적을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합니다. 정시는 수능만으로 뽑거나 학생부와 수능으로 선발합니다. 하지만, 수시에서는 일반전형 말고도 입학사정관제 등 다양한 특별전형이 실시돼,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 공인 외국어 성적, 봉사활동 실적 등을 전형 유형에 따라 반영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덕성여대 유아교육과의 수시 글로벌과트너십 특별전형은 토폴·토익·토픽가 일정 성적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공인 영어 성적과 영어 면접으로 뽑습니다. 이화여대 수시의 고교 추천 특별전형은 학생부와 추천서, 수상 및 리더십 활동 실적과 공인 외국어 성적 등의 증빙서류, 구술·면접고사 등으로 선발하면서 수능 성적을 최저 학력으로 적용합니다. 또 학업 능력 우수자 특별전형은 학생부 교과 및 비교과 성적과 학업계획서로 뽑으면서 역시 수능 성적을 최저 학력 기준으로 적용한답니다.



2. ○○님이 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 수시 모집에 지원하려면 학생부와 논술 및 면접고사 위주로 선발하는 일반전형과 함께 특별전형에는 어떤 게 있는지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최근 확대되는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중·고등학교 때 어떤 활동을했는지와 지원 동기 등을 중시할 수 있으므로 고아원이나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왜 유아교육과에 지원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관련 독서활동을 많이 했으면 합니다. 물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지요.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수시 모집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모두 학생부 성적만으로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시 모집에 지원 가능한 학생부 등급 컷은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4년제 대학은 대략 2, 3등급 이내, 전문대학은 3, 4등급 이내는 돼야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3. 그리고 ○○님은 현재 1학년이니까 계열 선택은 이과보다는 문과 쪽으로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유아교육과가 문과 계열의 학과이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때 더 열심히공부해야 할 교과목은 대학이 어느 교과목을 반영하느냐에 달렸습니다. 현재 대다수 대학이 국어·영어·수학·사회 또는 국어·영어·사회 위주로 반영하므로 이들 교과목에 치중해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님이 치르게 될 2015학년도 대학입시는 대학의 학생선발이 완전 자율화되기 때문에 희망 대학이 신입생을 어떻게 뽑는지 항상 관심을 갖고 그에 맞춰 대비했으면 합니다. 즉, ○○님이 원하는 대학의 유아교육과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목표하는 대학의 입학정보를 탐색하여 기록하며, 현재의 자신의 학업적 성취역량과 대학이 요구하는 역량을 비교하여 꾸준히 노력해가야 합니다.

4. 그리고 유아교육과의 학과 특성 및 진로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커리어넷 (<http://www.careernet.re.kr/>)의 [학과사전]과 [미래의 직업세계 학과편]에 들어가서 [유아교육과]를 검색하면 관련 학과와 관련 직업의 진출분야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아울러 학과 교수님의 인터뷰도 볼 수 있어서 꽤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님! 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옛말에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지요. 뭐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은 없답니다. ○○님이 꿈꾸고 원하는 대학에 꼭 입학하여 재능과 포부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구체적으로 노력해 보아요~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언제라도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커리어넷을 방문해 주세요.

커리어넷 드림

【 5반 - 사례 5 】

성 명	이 은 미	소속 학교명	능동중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중학생이 가장 흔히 고민하는 분야인 자신이 흥미있는 분야는 알고있지만, 현실적인 안정성을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하는데 고민이 되는 상황에서의 진로 상담
- 중고학생이 가장 흔히 고민하는 분야인 자신이 흥미있는 분야와 자신이 잘 하는 분야가 일치 안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진로 상담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자신이 흥미있는 분야는 알고있지만, 현실적인 안정성을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하는데 고민이 되는 상황에 어떻게 진로를 정해야 하는지를 논의해보고 싶어요.
- 자신이 흥미있는 분야와 자신이 잘 하는 분야가 일치기 안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진로를 정해야 하는지를 논의해보고 싶어요.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진로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뭘 잘하고 좋아하는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서 뭘 어떻게 정해야 할지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요.

일단 언어 부분에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국어, 영어를 잘 하는 편이고요.

독서, 글쓰기를 좋아합니다.

또 만화 쪽 그리는 걸 아주 좋아하고 또 잘하는 거는 자타가 인정합니다.

된다면 이쪽으로 가는 것도 생각해 보았지만 이쪽은 실력도 중요하지만 운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막연히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 이러는 게 아니라 현실적 안정성까지 고려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을 많이 좋아합니다. 수의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아무래도 확실히 문과 쪽이다 보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정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하나 생각하면 아, 이건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다른 거 또 생각해 내면 괜히 또 불안한 마음에 아, 이것도 저래서 안될 것 같은데 해서 결국 하나도 못 정한 겁니다.

어떡해야 하죠?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천천히, 그리고 한 단계씩 생각을 잘 정리하여...

선빈님~

반갑습니다. 커리어넷입니다.

선빈님은 좋아하는 분야가 독서, 글쓰기, 만화, 동물 등 다방면에 있군요.

다방면의 진로 선택에 있어 어느 한 부분을 선택하려하면 다른 부분의 매력도 아쉽고,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하고 고민하며 불안한 마음이 커진 상태같군요~

사람은 누구나 여러가지의 진로 중 하나를 선택할 때, 다른 선택하지 못한 진로가 신경이 쓰이며 혹시 내가 잘 못 선택한 것은 아닌지, 또는 미래의 내가 선택한 진로가 과연 현실적으로 안정성까지 보장할 수 있는지..등등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도 과거를 되돌아 보면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렇게 진로에 대하여 고민했던 경험들, 그리고 지금의 진로를 선택하기에 앞서서 다른 진로분야에서 겪었던 경험들이 모두 헛수고가 아니며, 현재 선택한 진로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되며 도움을 받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진로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이 흥미있어 하는 분야이어야 합니다.

흥미있는 분야를 몇가지로 정해졌다면 그 다음은 그 흥미로운 분야중 어떤 분야가 내가 잘 할 수 있는지(적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겠지요.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것이 무엇일까?(가치관)라는 질문도 자신에게 수시로 해보아야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는 것보다는 "나는 우리나라의 빈곤층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우리나라의 빈곤층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해보면 진로를 선택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진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선빈님은 좋아하는 분야가 독서, 글쓰기, 만화, 동물이며, 국어와 영어 과목을 잘 하는 편입니다.

최근의 책 작가는 다양한 매체와 영상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텍스트(글)만을 매개로 독자에게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여 독자들에게 다가갑니다. 예를 들자면 강풀이라

는 작가(만화가)는 휴머니즘과 다양한 삶의 무게있는 이야기를 만화라는 매개를 통해서 글과 함께 전달하는 것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만화가 영화로도 만들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지요.

이것은 많은 독서, 글쓰기 능력, 만화를 그리는 능력과 휴머니즘이라는 가치관이 현재의 강풀이라는 사람을 만들어낸 것이겠지요~

동물을 돌보는 수의사의 직업은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의사가 되어 동물을 돌보고 치료하는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사람들이 알고 이해하기 쉽도록 만화와 글로 이루어진 책을 출간할 수도 있겠지요. 또는 사람들의 반려동물이 유기견이 되지 않도록 널리 알리는 만화로 된 책도 출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작가든 수의사든 선빈님이 국어, 영어 과목을 잘 해야 할 수 있는 일인데, 선빈님이 잘 하니깐 좋은 밑거름이 될 것 같군요~

선빈님~

선빈님은 아직 중학생이기에 진로에 대하여 많이 고민한 후에 결정하고, 그 결정에 후회가 생기면 다시 진로를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한 단계씩 생각을 잘 정리하여 결정하세요~

고민이 생겨나면 커리어넷, 학교의 교과선생님, 담임선생님, 진로진학상담선생님과 상담하여 조언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커리어넷은 선빈님의 꿈을 응원합니다.

커리어넷 드림



【 5반 - 사례 6 】

성 명	이 일 주	소속 학교명	경산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꿈 정하기가 없는 무기력한 학생들의 대처 방법 난해
- 상담을 해주어도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함.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기존의 방법외에 특별한 꿈 정하기 방법이 있는가?
- 무기력한 상담자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꿈정하기에 결정하기가 어렵네요

제가 요즘따라 체대를생각하고있는데 어떻게보면 또아니다싶구요

적성검사나 진로상담을해도 딱맘에드는게없습니다 그래서인지 공부도 점점더 하기싫어지구요
성적도않좋구요 어떤방법으로 저에대해 하고싶은일을찾아야하나요?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꿈 정하려면 좀 더 진지한 고민이...

mp6784님 안녕하세요 ?

mp6784님은 꿈을 정하기가 쉽지 않았나 봅니다.

상담을 하는 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쉽게 정하여
그 꿈을 향한 열정이 쉽지는 않은것 같더군요.

mp6784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mp6784님은 처음에는 체육대학 진학을 원했던 같아요

아마 체육학과에 관심과 흥미가 조금이나마 있었던 같아요

여기에 대하여 좀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체육대학이 진학이 싫다면 왜 싫은지를 좀 구체적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싫은 이유가 무엇인지, 싫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모든 학과가 전부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학과든 좋은 면과 싫은 면이 있기 마련이지요.

체육학과에 대하여 커리어넷에서 한 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고 : 체육학과 살펴보기)

또한 한양대학교 오상덕 교수님의 동영상 인터뷰도 한번 봐두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참고 : 한양대학교 오상덕교수 동영상 인터뷰)

여러 진로심리검사를 하여도 꿈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런 방법도 좋을 듯합니다. 좋아하는 것 10가지, 주변에서 잘한다고 칭찬 받았던 것, 잘하는 교과목, 오랫동안 집중했던 일 등을 적다보면 자신의 장점과 흥미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부이외에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의 여러 진로 가능성을 타진하여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미국이나 아일랜드 등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정한 기간을 할애해 주는 기회를 주고 여러 사회에서 진로 체험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인생은 철이 들면 진지하고 매사에 임하는 자세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지금은 진로가 결정되지 않고 고민이 많이 가겠지만, 여러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기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진로가 결정이 안되었더라도 이 기간을 자신의 진로를 위해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조금한 마음이 덜 할 것입니다.

mp6784님도 여러 사회적 진로 체험을 통하여 자신의 진로를 발견할수 있도록 노력해 보았으면 합니다. 공부가 사회적 성공요인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은 꼭 공부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능력, 성실성, 긍정적 사고, 신뢰성의 덕목을 갖추려고 노력한다면 새로운 진로 희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mp6784님에게 새로운 진로 희망이 생기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커리어넷 드림



【 5반 - 사례 7 】

성 명	이 정 립	소속 학교명	성희여자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내담자의 질문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 구체적으로 답을 해야 할 부분을 찾기 어려웠다.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내담자가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질문을 할 경우 상담 포인트를 어디에 맞추어야 할까?
- 내담자가 제공한 정보가 적거나 혼란스러울 때 상담자는 내담자의 정보에 대한 이해정도를 어떻게 조절해야할까?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이과 학생입니다

저는 수학과 과학을 특히 과학에 흥미를 갖고 있는 이과 학생입니다.

사실 누구든지 간에 신비한 과학 세계에 흥미를 갖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점이 문제라고생각해요

저는 과학 외에도 악기를 하고 미술도 조금배웠습니다. 공부하면서 배우고싶은 것도 배우보자는 식으로 같이 했었는데 저는 참 내가 뭘 광적으로 특히 좋아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요즘 화학과에 관심이 생긴건

사실이지만 진짜 그쪽으로 가고싶냐 하고 많이 묻고 , 거기서 저는 또 이리저리 생각만 깊어지고 그렇습니다.. 이해돼셨을지 모르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막상 하고자했던걸 한 후에 보니까 그냥 왔다갔다한 것같고, 이래서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하고싶어하는지 더 헷갈리게 되는 상황이 와서 이 과정을 어떻게해야하나 하는 제 고민입;니다 ..

어디서든 많이 물어보고 그랬는데 항상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던것같아요.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요 비난이있다면 그것도 감사하게 받을 것이에요 ! 읽어주신것도 감사 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활동에 목적성을 더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고등학생님~

고등학생님은 수학과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분야에도 관심이 많아 다양한 경험을 해왔군요. 하지만 돌아보니 열심히 시도해왔던 부분이 고등학생님에게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역할을 하지 못한 느낌이 들어 고민이 생겼군요. 많이 혼란스럽고 힘들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고민해결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으니 순차적으로 잘 해결될겁니다. 화이팅을 외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봐요~

고등학생님의 고민은 ‘다양한 관심과 재능을 가진 학생’ 들이 흔히 겪는 문제입니다. 조금 시각을 달리하면 지금 고등학생님의 고민은 행복한 고민일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으니깐요. 지금 고등학생님이 고민하는 과정은 과도기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고등학생님은 자신감을 가지고 추측이나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로설계를 차근차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님의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고등학생님은 여유롭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공부와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공부하면서 배우고 싶은 것도 배웠다면’ 흥미가 있어 즐거운 분야이더라도 그것은 취미활동정도의 수준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산을 좋아해 매주 등산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직업으로 가진다는 의미와 동일시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시작을 하고 보니 미술이나 악기를 다루는 것이 즐겁고 그와 관련된 미래의 직업이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그려진다면 그 부분을 차분히, 구체적으로 점검해봐야 합니다.

그럼 고등학생님의 걱정을 시원하게 정리해볼까요~

첫째, 여러 경로를 통해 화학과 미술, 악기연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즉, 책, EBS, 인터넷(커리어넷, 한국고용정보원 등), 해당분야의 직업인과의 만남 또는 이메일 교환, 진로진학교사와의 상담등을 통해 직업이 가지는 특성, 그에 필요한 능력, 준비과정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직업으로 가졌을 때 가장 잘할 수 있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기위한 과정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과 현실적인 만남이 어렵다면 커리어넷의 직업정보란에 방문하여 미래의 직업세계/분야별 전문가 인터뷰를 활용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님의 전공 선택에 도움이 될 책을 추천 드립니다. 나의 미래 공부-03 MT 화학, 나의 미래 공부-10 MT 음악학입니다. 전공의 특성과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 직업의 종류와 전망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름 방학동안 읽어보시길 적극 권합니다. 특히 MT화학에는 과학의 신비한 세계에 대한 비슷한 언급이 있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둘째,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흥미)과 해당직업의 직무를 잘 수행하는 능력(적성), 직업가치관 등을 파악해보세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흥미만으로 직업을 선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직업에 대한 가치관, 주변 환경, 미래사회의 변화 등을 함께 고려해서 진로설계를 해야 합니다. 상담내용을 보면 고등학생님은 이러한 자신에 대한 탐색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로수첩(제가 붙인 이름입니다)을 마련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내가 원하는 미래의 나의 모습, 내가 이루고 싶은 100가지 등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방법입니다.

셋째과정은, 고등학생님 자기특성과 부합되는 분야를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하고 싶어 하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학을 전공해서 얇으면서 보온성이 뛰어나고 또 땀을 잘 흡수하는 신소재 섬유를 개발하고 싶다’ 던가, ‘미술을 전공해 무대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등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흥미 있는 분야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그것을 자신의 미래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 분야마다 자신의 특성(흥미, 적성, 직업가치관 등)과 부합되는 부분을 기록해본다면 좀 더 수월하게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고등학생이므로 학과에 대한 탐색도 함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화학과에 관한 자료를 통해 고등학생님이 화학을 전공하여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업의 세계에 대해 찬찬히 살펴 보면서 자신의 관심분야를 구체화 시키고 깊이를 더 하십시오. 대학에 개설된 화학관련학과는 신소재부터 공학, 의학까지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예를 든 것처럼 자신이 화학 관련 일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범위를 정하는 것인 학과선택이 유리합니다.

고등학생님! 자신에 대한 질문과 깊은 생각은 대부분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목적성 있는 고민과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간낭비가 될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활동하기 전에 반드시 목적을 분명히 하길 바랍니다. 그 목적을 적고, 근거있는 자료를 찾아 참고하며, 행동(실천)하고 다시 기록을 통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광적(maniac)'이라는 표현은 해당분야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최고의 단계를 위해 노력하며 그러한 과정을 즐긴다는 뜻입니다. 고등학생님의 미래의 어느날, 좋아하는 분야에서 이러한 수준에 다다를 자신을 상상해보길 바랍니다.

뜨거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평소 학교생활에서 가질 수 없었던 여유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위에서 말한 단계별 내용들을 실천해서, 고등학생님의 진로설계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기둥을 세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커리어넷 드림



【 5반 - 사례 8 】

성 명	장 광 재	소속 학교명	승덕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내담자의 상담내용이 너무 막연함
- 지나치게 본인 위주의 질문을 함으로서 답변을 먼저 한정해 버림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검사도구를 활용한 후에도 진로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대처 방안
- 상식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범위를 먼저 한정하여 상담을 요청한 경우에 대한 대처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아직도 꿈을 못정했습니다.

아로플러스 검사를 다 했습니다. 대학에 무슨과가 있는지 아직 잘 알지는 못하구요.

대학에 들어갈때 무슨 전형이 있는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냥 막연하게 꿈을 정해보려고 합니다.

의사, 과학자, 연구원 이쪽에 흥미가 있었습니다. 이쪽뿐만아니라 탐구. 개발 . 연구, 경영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한곳에 잡혀있는것이 아니라 좀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것, 먹고살수있는 연봉... 남에게도움이 될만하고 부모님이 괜찮아 하실 직업

맞는 직업이 있다면 추천해주시고 관련 대학, 학과 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차분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000님.

여러가지 검사를 하고도 아직 본인의 진로를 확정하지 못한 학생이군요.

반갑습니다.

1학년임에도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것 같아요.

진로를 명확하게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것은 많은 학생들이 바라는 것들이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학생들 중에서 본인의 진로를 명확하게 결정하였거나, 혹은 학과 선택에 의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고1이라면 아직도 진로탐색이나 여러가지 고민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000님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나름 여러가지 검사도구를 이용하여 검사에 참여도 해 보았지만, 딱히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학과를 통해서 진로를 결정해야 할지... 또 어떻게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보이는군요.

이러한 현상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스스로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의사와 과학자 연구원 분야는 매우 범위가 넓습니다. 물론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대에 진학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연구원이나 과학자의 경우 너무나 많은 분야가 있지요. 일반적으로 연구원 분야에 대학 정보는 커리어넷 직업사전을 찾아보시면 매우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연구원의 직업분야는 000님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가에 따라서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습니다. 위에 링크되어 있는 직업사전에서 연구원을 쳐서 검색해 보면 다양한 분야의 연구원 직종을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탐구. 개발 . 연구, 경영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한곳에 잡혀있는것이 아니라 좀 자유롭게 할수 있는것 먹고살수있는 연봉 남에게도움이 될만하고 부모님이 괜찮아 하실 직업 맞는 직업이 있다면 추천해주시고 관련 대학, 학과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분야가 너무 다양하고, 그 분야에 맞는 직업들 또한 많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선택하여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여러가지 검사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000님의 경우 스스로 많은 고민을 한 후에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제가 000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보다 000님 스스로 본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지요.

또한 직업에 대한 목표가 설정되면 대학이나 학과를 찾는 것은 매우 쉬워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더 고민을 통해서 직업에 대해 결정을 하면 그 직업에 합당한 학과나 대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로에 대한 사항은 000님의 몫으로



하고 그 후 다른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함께 해결해 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군요. 왜냐하면 진로결정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며, 이에 대한 결정권은 본인 스스로 가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시고 가급적이면 몇개의 직업을 선택하여 다시 상담을 요청하시면 그때에는 보다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진로에 대한 결정은 매우 중요하므로 많은 고민을 통해서 결정하시고, 가장 이상적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커리어넷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커리어넷 드림

【 5반 - 사례 9 】

성 명	장 귀 숙	소속 학교명	초연중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이것저것 두서없는 녀두리와 진로 및 학습이 혼재되어있기 때문
- 학습상담에 대한 해결방안 및 네트워킹체제를 안내받고자 하기 때문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진로상담과 학습상담이 혼재한 경우 해결방안
- 원하는것을 간단히 손에 넣을 수 있도록 해주는 요슬램프식 사이버상담 답변체제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어느 정도 잘 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하고 싶은 것 잘 맞는 것을 따져보면 사서가 나오거든요. 저 정말 사서 꼭 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사서가 되려면 앞이 좀 막막한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제가 만족하지 못한 점수가 나와서 고등학교 가서는 더 어려울까봐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도 사서하려면 인문계정도는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거기서 제가 잘 해낼 지 문제네요. 엄마는 데구에 있는 경북대에 가라고 하시는데 제가 뭘 잘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선 1학년 때만 한자수업을 했는데 사서를 잘 하려면 국어,사회,영어도 잘 해야하는데 한자도 잘 해야 하더군요. 그러면 한자는 어떻게 공부하나요?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이다.

장이님! 안녕하세요

사서는 여러 기관의 도서관과 자료실에서 도서 및 자료를 배치,보관하며 이용자가 자료를 편리하게 열람·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주로 하는데 한문, 외국어, 컴퓨터 활용 능력이 필요하며 이용자와의 짧은 상담으로 원하는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한자공부를 미리 준비해 두고 싶은 장이님에게 우선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한자공부라 !?

학습상담영역으로 가게 되네요 ^^

우리의 글자인 한글이 한자에 그 기초를 두기 때문에 한자공부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장이님은 중1때 학교에서 배웠으니 왕기초는 아니죠 ? 그러니 자기주도적 학습 방향으로 추천해 볼게요.

1. 사이버학습 : 카페가입, 동영상강의 활용하기

혼자서 하기보다는 한자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카페에 가입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동영상강의를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겁니다. 물론 학원을 다닐 수도 있으나, 장이님처럼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언제 어디서든 시간이 날 때 공부할 있는 동영상 강의가 적절할 듯합니다.

2. 목표설정 : 한자급수시험 도전하기

그냥 열심히 가기 보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급수시험에 단계적으로 도전해 보세요.

3. 짜투리 시간 활용하기

버스기다리고 타는 시간, 쉬는 시간등 그냥 흘러가 버리는 시간에 한자를 공부를 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10초만 있어도 한자 1개는 볼 수 있고, 계속 잔상으로 남겨 외울수 있으니까요. 한자는 많은시간에 수십개를 한꺼번에 외우기 보다 짧은 시간에 1-2개 외운 것이 혼동없이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어요.

4. 생활 속에서 한자 찾아 바꾸기 : 보이는 모든 단어와 문장을 한자로 바꾸는 놀이 즐기기

사서라는 직업에 대한 목표가 한자를 스스로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 시書라는 職業에 대한 目標가 漢字를 스스로 工夫하게 된 契機가 되었다.

라는 식으로 생활속에 나오는 한글을 한자로 바꿔보고, 확인하는 놀이를 즐기는 겁니다.

그리고 사서가 되기위해서는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서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등을 졸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미래전망도 눈여겨 보기 바랍니다. 지금은 워밍업으로 장이님이 생각하고 있는 경북대학교에 문헌정보학과 를 직접 검색해 보세요.

끝으로

사서는 쾌활하고 밝은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며, 서비스정신과 남에 대한 배려, 스트레스 인내, 사회성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고 하니 한자와 더불어 친구들과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것 또한 미리 연습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장이님에게 파이팅을 보냅니다.

커리어넷 드림

2012년 커리어넷 상담위원단 슈퍼비전 자료집

6반 사례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6반 - 사례 1 】

성 명	장 창 곡	소속 학교명	인천진산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수험생의 대학진학관련 추천 상담 진행 여부에 대한 논의 필요.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성적에 맞는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추천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가고싶은학과를 뚜렷히 모르겠어요, 그 학과가 있는 대학교도요..

보건쪽으로 대학을 정하고 싶고, 직업으로 삼고싶어요.

보건행정을 생각하고 공무원 시험을 쳐서 보건직공무원이 될려는 생각을 가지고있었는데,, 보건행정이란 꿈이 저한테는 잘 다가오지 않아요.(별로 하고싶지 않아요)

학교에서 입시설명회로 방사선학과나 의약과 등등 소개를 들었는데 자세한 정보가 없으니 답답해요 네이버에 뭘 어떻게 쳐봐야할지도 모르겠고.. 부모님도 잘 모르시고 상담할까 하고 물어봐도 그냥 보건행정 가라는 말씀뿐이에요..

여기서 좋은 정보를 찾고자 합니다..

제 내신성적이 3후반 또는 4초반 인데..

그에 맞는 대학과 학과가 무엇이있는지 알고싶어요.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보건관련 직업으로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은지님!

고등학교 3학년인 듯한데, 지원할 학과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하지 않아서 고민되겠네요.... 주변



의 다른 친구들이 어느 대학 어느 학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학과를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도 느낄 듯하고...

보건쪽으로 대학을 정하고 직업을 삼고 싶고, 보건직 공무원이 되려고 생각을 갖고 있군요? 우선, 보건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서 보건직 공무원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보건행정학과를 졸업하지 않아도 되지요. 즉, 보건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경력이나 학력의 제한이 없고,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해요. 따라서, 방사선학과 등의 다른 보건계열 학과를 졸업해도 보건직 공무원이 될 수 있고, 보건계열 전공이 아닌 일반 학과를 졸업해도 보건직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해요.

다만, 임상심리사, 응급구조사 등 기사, 산업기사 등의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을 받아서 다소 유리할 수 있어요. 공무원시험과 관련한 정보를 찾고 싶다면 [행정안전부 나라일터](#)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보건행정학과](#)와 관련한 사항은 우리 커리어넷 학과사전과 연결했으니, 보건행정학과에서 어떤 것을 배우고, 어느 대학교에 보건행정학과가 개설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신성적 3등급 초반이나 4등급 후반에 맞는 대학이나 학과를 추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주었으면 해요. 이러한 상담은 김은지 님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학교의 담임선생님이나 3학년 부장선생님과 내신성적, 모의고사성적,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자료를 참고하고, 그 동안의 진로탐색검사 등의 각종 진로나 적성관련 심리검사 결과 자료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는 상담을 해야 해요.

또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성격은 어떤지, 장점/강점은 무엇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잘 하는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 지에 대한 생각해 보면서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김은지 님을 잘 아는 친구들이나 부모님, 선생님에게 김은지 님이 어떤 사람이며 장점이 무엇인지를 말해 달라고 하면 아마도 김은지 님의 장점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김은지 님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일이나 최근에 열심히 읽었던 책은 어떤 것이었는 지를 보면 좋아하는 분야나 강점, 장점을 찾아낼 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 물어보거나 써보면서 자신을 좀더 깊이 탐색할 수 있었으면 해요. 그래야만 진로를 선택할 때 확신이 생기지요. 확신이 없으면 중간에 포기해버리기 쉽지요.

그리고, 직업이나 학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고 싶다면 우리 커리어넷의 [직업사전](#)이나 [학과사전](#)에서 해당 직업에 대한 정보도 찾아보세요.

고3이라서 뚜렷한 지망학과를 결정하며, 목표를 세워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단순히 성적만으로 자신이 지원해야 할 학과를 결정하는 것은 무모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탐색, 주변 사람들의 조언 등을 종합하여 지원할 학과를 결정해볼 것을 권해드려요.

무더운 여름날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을 김은지님에게 행운도 함께 해서 원하는 대학교와 학과에 꼭 합격하기를 기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커리어넷 드림



【 6반 - 사례 2 】

성 명	정 경 수	소속 학교명	용천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대학입학 전형의 변경 내용(특히 전문계고의 입학전형) 확인
- 중학생의 경우 해당 지역 고등학교 현황 확인의 어려움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인문과 자연 계통의 적성이 광범위하게 포함되는 직업에 대한 상담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경우 해당 지역이 아닌 경우 상담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고등학교-대학

안녕하세요 꿈이 PD인 중3입니다ㅠㅠ

솔직히 아직 꿈도 확실하지 않고 그냥 방송쪽일을 하고싶은데

그중에 가장 높은게 PD이고 해서 일단 PD를 목표로 삼고있는데TT

전 전문계고등학교를가서 먼저 배우고 하고싶은데

제가 그렇게 내신이 안나오는것도 아니고

인문계가서 마음먹으면 잘 할 수 있고 PD가 되려면 4년제에 in서울대는

기본이라는데TT

그것때문에 고민입니다 이번에 특별전형제도도 없어지고

전문계에가면 대학을 포기하라는 뜻인데

전문계가서 대학갈 수 있는 방법 정말 없는건가요?

그리고 PD가 아니더라도 방송쪽이나 미디어쪽과 관련된 직업에는 무엇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TT!

정말 인문계는 괜히 꺼려지고;

서울 강북에 있는 꽤 괜찮은 고등학교 (자율고/자사고/인문계/(지명도있는)전문계,등 모두 포함)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자신있게 PD의 꿈을 꾸세요!

안녕하세요, 배민님! 커리어넷입니다.

배민님의 꿈이 방송국 PD이군요. 중학교 3학년 단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해요. 전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PD가 되기 위한 과정을 먼저 배우고 싶기도 하고 한편으론 일반 계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성적이지만 서울소재 대학에 가야 된다는 것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요즘 고졸 취업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으로 전문계 특별전형이 재직자(현장 근무 3년이상) 위주로 바뀌어 대학 진학이 예전보다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네요.

전문계(특성화) 고등학교는 학교의 특성에 따라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실습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학 진학이 아무래도 불리하죠. 특성화 고등학교에서의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것 또한 만만찮은 내신성적과 경쟁률이 있어요. 지난해 서울소재 특성화고의 신입생 내신성적을 보면 20%미만 2개교, 20-30% 7개교, 30-40% 3개교, 40-70% 36개교로 보통의 성적으로도 진학이 힘든 경우도 많아요.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서울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에 성적우수자 몰리기도 해요.

방송연출가(PD)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학력, 전공의 제한은 없으나 대부분 4년제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PD에게 필요한 방송기술적인 역량이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입사를 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인문, 사회, 정치, 철학, 경제 등 전반적인 학문의 지식과 사고력, 창의력, 대인관계기술, 구성력 등인데 이러한 것들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기초를 닦고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하여 더 많은 것을 학습할 수 있어요. 문화컨텐츠산업이 주력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또 국내의 프로그램이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케이블 방송, 인터넷 방송, 디지털 방송 등 방송채널이 다양해지고 활동영역도 넓어지고 있어 방송연출가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방송이나 미디어 관련 분야의 직업은 아나운서, 편집기사, 조명기사, 방송설비기술자, 쇼핑호스트, 촬영기사, 더빙기사, 녹음기사 등 다양하게 있어요. 신문방송학과,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학)과, 사회학과, 연극영화(학)과, 광고기획과, 광고홍보학과, 언론홍보학과, 방송영상과, 방송제작과, 인터넷방송, 영상제작과 등에서 방송관련 전공 공부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커리어넷의 직업 및 학과 정보란에서 정보를 찾아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방송국에 PD(프로듀서)로 입사를 하면 조연출이라는 에이디를 거쳐 프로듀서가 되는데, 프로듀서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어야 해요. 예를들면 스포츠, 노래, 예능, 코미디, 개그, 드라마, 영화, 다큐, 보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열중할 수 있고 빠져들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교양을 쌓아 놓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정신이 강한 친구들이라면 프로듀서에 적합할 것이라 생각해요

서울 강북의 괜찮은 고등학교를 찾는 것보다는 어느 고등학교라도 진학하여 자신의 학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어느 대학(서울 지방 관계없이)이라도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거라고 생각돼요.

배민님의 꿈인 PD가 되기 위해 이제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역량을 키워보세요.
분명히 훌륭하고 인정받는 PD가 될 것입니다. 화이팅!!!!!!!

커리어넷 드림

【 6반 - 사례 3 】

성 명	정 영 현	소속 학교명	금오공업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진로고민중인데,.. 딱히 흥미 있거나 가고 싶은 과가 없다.
- 본인의 성적과 희망학과의 합격선이 많은 차이가 나는 경우.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진로를 고민 중인데,.. 딱히 흥미 있거나 가고 싶은 과가 없는 경우
- 모든 직업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모두 해보고 싶은 경우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진로고민..

진로고민중인데,.. 딱히 흥미 있거나 가고 싶은 과가 없네요ㅜ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외교학과가 유망하나요?..나중에 어떤 진로로 나가나요?..
그리고 /.. 경북대입학사정관제 이웃사랑전형.. 내신이중요한가요?
여태까지 내신 6.7.. 등급 정도 나올 거 같은데..
지금부터 올리면 가능성 있나요:?
입학사정관제 말고 그냥 정시 준비해야 될까요..ㅜㅜㅜ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지금처럼 자신의 흥미와 재능을 찾아 진로를 개척한다면 길이 열리겠죠?

안녕하세요. 콩이님.

고등학생이라면 진로문제로 이래저래 고민도 많고, 정확한 정보를 찾아서 그에 맞게 준비하고 싶은데 딱히 흥미 있거나 가고 싶은 과도 없고 그렇다고 성적도 높은 편도 아니라서 선택의 폭도 좁아서 답답함도 느꼈을 것 같아요. 자신의 특성 파악은 진로선택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



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뭘 하고 싶은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고 있다면 많이 답답하고 속상할 수 있어요. 진로를 결정할 때, 잘 하거나 좋아하는 게 없다고 생각될 때만큼 곤혹스러울 때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콩이님처럼 이제부터라도 고민을 정리하고 진로상담실을 찾아서 질문할 정도라면 앞으로 해결책도 스스로 잘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진로란 앞으로의 인생계획과 관계된 것인데 자신의 능력이나 흥미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어느 곳으로 방향을 정해야할지 막막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지만 진로는 다른 사람이 대신 찾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힘들더라도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분야에 흥미와 재능이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선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찾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탐색해보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굳이 직업, 학교공부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난 이것을 할 때 제일 신났었다, 평소에 친구들과 이런 것을 할 때 정말 재미있었다, 예전에 이걸 잘해서 칭찬 받은 적이 있었지... 등등의 사소한 것일지라도 관심 갖고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지요.

또한 관심분야 목록표 라도 만들어서 작은 관심거리라도 놓치지 말고 기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고민하는 것보다 사소한 것이라도 기록해놓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 스크랩하다보면 원하는 방향을 찾아 생각을 점점 더 좁혀나갈 수 있게 되니까요. 다음으로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찾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냈다 하더라도 그런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소용없겠지요?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게 된 직업이 있다면 그런 직업부터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커리어넷 직업사전, 미래의 직업세계는 콩이님이 직업정보를 찾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정치외교학과가 유망한지? 그리고 졸업 후에는 어떤 진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커리어넷 학과사전에서 '정치외교학과'를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정치외교학과를 졸업 후 진출하는 직업으로는 외교관, 기자, 정치학연구원, 국회의원, 국제기구전문가 방송기자 신문기자 정당인 등이 있어요. 앞으로 유망한지의 여부는 시대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사람마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좌우될 수도 있으므로 우선 본인의 적성과 흥미, 가치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또한 경북대학교 입학사정관제 '이웃사랑전형'에 지원할 때 내신의 비중이 높은지? 에 대해서는 경북대학교 홈페이지 에서 '입학정보 - 대학 - 입학사정관제 - 이웃사랑전형'에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어요. '이웃사랑전형'이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 자기인식을 가지고 관심(꿈과 학업)을 실현하려는 학생을 선발하려는 제도이며, 지원 자격은 '기초생활수급권

자 및 차상위 계층'이 대상입니다. 2012학년도에 경우 최저수학능력기준은 수능 4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이 모집단위별 등급 이내이며, 2012학년도에 정치외교학과는 1명을 선발하였고 기준등급은 '4등급'입니다.

현재까지 콩이님의 내신성적이 6~7등급 정도라면 2012학년도 최저학력기준을 고려할 때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최저학력기준을 통과했다고 해서 선발되는 것이 아니고 콩이님의 내신성적이 모집단위 지원자 중에서 선발인원 내에 들어야 하고, 모집연도에 성적의 등락과 다른 전형요소들도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하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2013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경북대학교 '이웃사랑전형'에서 '차상위 복지급여 비수급권자(가구)'는 지원자격에서 제외(폐지)될 예정이므로, 자세한 내용이나 경북대학교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사전에 입학전형실(053-950-7091~4)에 꼭 확인하기 바래요.

이 글이 콩이님의 궁금증 해결과 진로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궁금한 것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커리어넷 진로상담을 찾아주기 바랍니다.



【 6반 - 사례 4 】

성 명	조 도 재	소속 학교명	울산애니원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성적이 낮아 자신의 진로를 제대로 찾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선정
- 성적향상을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선정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성적 향상을 위한 학습코칭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논의하고자 함.
- 상담자의 성적 향상을 도울 수 있는 격려 방법들을 논의하고자 함.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공부

공부의 중요성은 알고 이번 기말고사때부터 열심히하려고합니다.
지금 제 성적은 노력을안해서 중~중상에 머물고있지만
목표를 정해서 열심히 해보려고합니다.
직업에 대한 상담과 목표,격려에대해 상담을받고 싶습니다.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공부를 잘 하려면...

중학생이 벌써 공부의 중요성을 알고 열심히 하려고 다짐하는 것을 보면서 먼저 칭찬을 하고 싶네요. 그리고 직업 상담까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한 것으로 보아 ‘자신의 진로개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대견하고 기특한 학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먼저 공부의 중요성을 알고 목표를 정해서 열심히 해 보려는 자세를 보면서 앞으로 상위권으로 성적이 향상 될 것으로 확신이 되네요. 계획대로 성적향상을 위해 목표를 먼저 설정하도록 권합니다. 목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지요. 예를 들면 주변에 있는 동네 조그만 산에 등산 할 때와 제주도 한라산에 등산 할 때는 준비도 마음가짐도 각오도 행동도 다르겠지요? 기말고사를 대비해 과목당 구체적인 목표설정을 하고 아울러 진학을 하고자 하는 고등학교도 미리 정해서 노력한다면 더 학습의욕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공부는 학(學) + 습(習)입니다. 배우고 익히는 것이지요. 요사이 많은 학생들이 배우기만 하고 익히지 않는 학생이 많아요. 학교수업, 인터넷강의, 학원수업 등 배우기만하고 복습을 하지 않아 성적향상이 안 되는 것을 많이 보곤 합니다. 어떤 연구사례에서도 학습 후 10분후부터 망각이 시작한다고 하며, 1일만 지나도 70%을 망각한다고 합니다. 3분 예습과 수업 후 3분 복습을 습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학습 후 3분간의 복습은 기억력을 두 배로 높인다고 합니다.

앞으로 00님이 학교수업을 가장 중요시 하면서 규칙적이고 올바른 학습습관(아침밥 먹고 등교하기, 내 주변 깨끗이 정리하기, 수업시간 집중하기, 휴무토요일·공휴일·일요일도 평일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휴대폰,mp3 등 전자기기 다루는 시간 줄이기, 오늘 배운내용 오늘복습 끝내기, 가급적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지 않기, 낭비시간 줄이기 등)으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 나간다면 크게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중상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00님 이야말로 상위권 진입이 머지않아 가능하리라 봅니다.

어떤 축구선수는 자신의 신체적 결함을 정신력으로 극복하여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고, 하루 19시간 연습을 해서 성공을 거두었다는 운동선수의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시절 주로 비빔밥을 먹으면서 시간을 절약하여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부할 때는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의 열정으로 그 목표를 꿈꾸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독서를 많이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독서는 가장 좋은 두뇌 트레이닝이므로 꾸준히 해 주기를 바라며,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기반이 될 거예요.

그리고 00님은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직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상담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 자신이 원하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네요. 중학교 진로탐색의 시기에는 자신을 이해하고 내가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직업이 뭔지 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00님이 검사한 직업적성검사, 직업가치관검사, 직업흥미검사, 직업상세능력검사 등에 관해 정확한 해석이 중요하죠. 이번에 실시한 여러가지 검사 결과에 대해 혼자서 면밀히 읽어보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학교의 Wee클래스 전문상담사나 지역상담전문가 등을 찾아가 검사결과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한번 들어보도록 권하고 싶어요. 모든 검사는 결과수치보다 정확한 해석이 매우 중요하니까요.아직 특별히 되고 싶은 꿈이 없다면 검사 결과에 나온 직업 중에 관심 있는 직업을 추려 각각의 직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요.

또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탐색해 봐야 하는 부분이 어딘지를 찾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변에 나를 잘 아는 사람들(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에게 '난 어떤 사람인가요?', '나의 장점 3가지만 칭찬해주세요.'라고 해보기, 어렸을 때부터 장래희망 써보고 왜 그것이 되고 싶었는지 이유 써보기 등을 통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 물어보거나 써보면서 자신을 좀 더 깊이 탐색할 수 있었으면 해요.



앞으로 성적향상과 올바른 진로선택은 상급학교 선택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주므로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해 준다면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걱려를 보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커리어넷 드림

【 6반 - 사례 5 】

성 명	조 병 금	소속 학교명	북평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사례를 접하고 어떻게 답변하는 게 좋을지 방향을 잡기가 곤란했던 사례임
- 상담자의 자기 개방을 삭제해도 좋지 않았을까 생각되었지만, 굳이 어설피게 자기 개방을 포함시켰고, 쉽게 답변할 수 있는 기계적 답변 틀을 인용사례로 포함하면서 과연 이것이 적절한 상담답변인가 고민이 되었음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사례마다 답변 할 당시의 상담자 심리상태가 같지 않은데, 교과서적인 틀을 가지고 일정하게 답변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함
- 본인의 상담 답변 형식은 내담자를 앞에 앉았다고 상상하면서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본 사례의 경우 답변이 기한 내 작성되지 않아 시간을 지키지 못했었고, 시간에 쫓기며 답변하였고, 게다가 슈퍼마이저가 있다고 생각하니, 부족한 답변인 줄 알면서도 정해진 시간 내에 답변을 올렸던 사례임. 본인의 독특한 상담 답변 패턴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되어 사례로 선정함.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TTT

제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TTT

검사를 해봐도 뭘지를 모르겠구요 TTT

제가 잘하는것도 없고 할줄아는것도 없어요 TTT

뭔가를 하려고하면 성적이 걸리거나 뭔가가 꼭 걸려요...TTT

커서 도데체 뭘 할지 정말 답이 안나오구요 TTT

제가 뭘하고싶은지 잘하는게뭘지 알수가 없어요

이것저것 검사해봐도 뭐 딱히 점수가 높게 나오는것도 없고 TTT

정말 슬프네요 TTT



상담답변 정말 꼭 부탁드립니다TTT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캥거루님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캥거루님!

많이 답답하시겠어요. 그런데.... 어떡하죠? 캥거루님의 답답한 글을 읽고 나니 ‘이렇게 답답해 하는 캥거루님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고민하면서 그만 내 마음도 답답해지고 말았어요.

참 나윈. 상담자가 같이 답답해지다니.... 생각해보니 실은 예전의 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나도 한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뭐든 해 보려고 하면 이것 저것 걸리는게 툭툭 튀어나오고... 다 집어치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지요.

하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처럼... ‘도대체 나는 뭘 잘할 수 있는거지? 어떻게 해야 나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하다보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서서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미래를 향해 뚜벅 뚜벅 걸음을 걷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캥거루님~! 힘내시라는 말 드리고 싶네요. 분명히.... 머지 않아서 캥거루님도 ‘이거다!’하는 걸 찾게 될테니까요. 중학생 나이에 이렇게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특하고 대견스럽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많은 아이들이 깊은 고민하는 걸 싫어하고... 대충 남들이 권해주는 걸 자기의 꿈인 줄 알고 무작정 끌려 가듯 살아가는 경우도 많지요.

캥거루님은 뭔가 분명한 걸 빨리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성적에 대해서는 불만족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심리검사 결과 뚜렷하게 한 쪽으로 특징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뱅뱅 돌기만 하는 고민... 고민... 그러다보니 마음은 답답해지고, 도대체 나는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한 템포 쉬면서... 고민의 틀 밖으로 빠져 나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캥거루님이 혼자 끙끙 더 이상 고민의 늪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커리어넷 상담실을 찾은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며,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다만, ‘누군가 나의 흥미를 찾아주지 않을까? 누군가 내가 뭘 잘하는지 찾아 주지 않을까? 어떤 검사를 받으면 쪽집게처럼 이거다 하는 답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는 내려 놓으면 좋겠어요. 될까요?

캥거루님~!

일단 하루하루의 정상적인 일과를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당장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몰라도,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 잘 몰라도... 어쨌든 정상적인 하루하루를 잘 보내는 일이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처럼 상담도 받고, 부모님과도 대화 나누고, 친구들에게도 고민을 주고 받으며 세상 밖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지금 캥거루님은 잘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른다고 답이 금방 딱딱 하고 나오지 않으니... 서두르는 마음은 내려 놓으세요. 가만히... 지금까지 살아 오는 동안 캥거루님이 좋아했던 것들, 좋아했던 책, 좋아했던 놀이, 좋아했던 사람, 좋아했던 드라마나 영화, 음식, 옷, 연예인 등등...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세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 잘 모르겠으면 나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 보는 건 어떨까요? 부모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도 캥거루님이 남들에 비해 좀 더 잘하는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캥거루님의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성적 때문에 걸린다고 했는데... 그 꿈이 간절하다면 성적을 올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만약 성적을 올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꿈을 바꾸는 것이 맞겠지요. 다시 한 번 말하면, 첫째 나는 간절한 꿈이 있는가? 그 간절한 꿈은 무엇인가? 둘째, 나는 성적을 향상시키는 것이 불가능한가? 아니면 좀 어려울 뿐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나서...

만일 꿈이 없거나 꿈이 불분명하다면... 먼저 꿈부터 꾸어야 겠지요. 꿈은 누구나 자유롭게 꿀 수 있는 거니까요. 어떤 조건이나... 제약을 염두에 두지 말고... 일단 꿈. 간절히 이루고 싶은 그 무엇. 꼭 되고 싶은 그 무엇. 꼭 갖고 싶은 그 무엇을 찾아보세요. 그런 것들이 꿈이니까요.

다음으로, 내 꿈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성적에 대하여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성적을 올리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고, 쉬운 일이 아니지만 결코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정말 죽기살기로 열심히 공부에 도전해 보는겁니다. 학습 방법도 바꾸어 보고, 학습 태도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나름대로 성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 후회 없을 만큼 열심히 공부해 보는 것도 한 번 권해 보고 싶네요.

아울러 커리어넷을 연결하여 진로상담 사례 중 캥거루님과 유사한 상담자료를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 **여기를 클릭해 보세요.**



캥거루님~! 좀 위로가 되었을까요? 캥거루님의 답답한 마음이 너무 커서... 정말 답변하는 것이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커리어넷 드림

【 6반 - 사례 6 】

성 명	조 정 자	소속 학교명	청주외국어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다회기 상담(3차)
- 자신의 정보를 제대로 개방하지 않고 단문으로 저에게 맞는 직업이 무엇인가요? 라고 성의 없이 질문하는 내담자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자신에 대한 정보(흥미, 성격 등)를 어느 정도 개방 필요
- 우리는 답변하기 위해 고심하고 정보를 찾기 위해 주력하는 데 학생들은 자신의 수고 없이 너무 쉽게 정보를 얻으려는 듯한 느낌
- 이 사례는 아니지만, 수업시간에 교사가 상담신청을 과제로 제시함에 따라 무성의하게 질문을 올리는 사례 --> 무성의한 만큼 그걸 답변하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 그 학생들은 의무감으로 질문하고 과연 '읽어봤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듦.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저한테는 무슨 직업이 맞을까요?

작가하고 개그맨 중 저한테 더 맞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알려주세요. 저의 유형을 잘 파악해주셔서요.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작가와 개그맨 중 자신에게 맞는 직업이 궁금하군요.

안녕하세요. 홍석님!

반가워요. 세 번째 만남이네요. 이제 구체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의사결정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군요. 지금까지 홍석님이 상담 신청한 내용으로 볼 때,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 좀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사실 제한된 정보만으로 홍석님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고요. 특히 심리검사 결과도 직접적인 상담을 통해서 짚어봐야 할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심리검사 결과만으로 홍석님에게 어



는 직업이 ‘맞다’, ‘맞지 않다’ 를 결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본인이고, 여러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직업적성검사에서 홍석님은 언어능력이 상, 손재능과 공간시각능력, 창의력이 중상으로 나타났고요. 직업흥검사 결과에서는 경영분야, 예술분야, 사회봉사분야 등에서 흥미가 높은 걸로 나타났어요. 가치관검사에서 자신의 능력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걸로 드러났어요.

두 번째 상담에서 홍석님은 작가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이번에는 개그맨에 대한 관심까지 드러내고 있어요. 작가와 개그맨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창의성과 언어능력이 뛰어나야 하는데, 언어능력은 특히 작가에게 더 필요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그러한 점을 작가는 글로 표현하는 것이고, 개그맨은 무대에서 다른 사람을 웃기는 말과 몸짓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개그맨에게는 특히 순발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둘 다 창의적인 표현이 중요하므로 엄청난 노력과 스트레스가 동반될 수도 있고요. 지난 2회기 상담에서 홍석님은 작가 중 특히 평론가에 대해 관심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그냥 ‘작가’ 라고만 표현했어요. 사실 작가도 어느 분야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구성작가, 시나리오작가, 소설가, 시인 등 다양하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홍석님이 개그맨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길 좋아하고, 때로 웃기는 능력도 있고, 무대에 서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작가 중에서도 방송에서 교양 및 오락 프로그램들의 기획과 구성, 대본 작성 등에 참여하는 일을 하는 ‘구성작가’ 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구성작가’ 와 ‘개그맨’ 의 직업에서 필요한 직무능력을 소개할게요.

<구성작가>

1. 적성 및 흥미 :

- 인간과 사물에 대한 세밀한 관찰력과 호기심, 그리고 관찰한 것을 글로서 잘 표현해낼 수 있는 문장력과 언어감각이 요구된다.
-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잘 견디어낼 수 있는 인내심과 대처능력이 요구되며, 아이디어를 명확한 논리와 풍부한 감성으로 문장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 출연자, 방송 연출자 등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들과의 원만한 인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2. 관련학과 : 신문방송학과, 문예창작과,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학과
3. 참고 사이트 : KBS 구성작가협의회 / MBC 구성작가협의회 / SBS 구성작가협의회 / 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
4. 커리어넷직업분류 : 언론/문학분야

<개그맨>

1. 적성 및 흥미

- 신속한 상황판단능력과 재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재미있게 웃길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 새로운 개그 또는 희극 아이디어를 창출해낼 수 있는 창의성이 요구되며,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내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잘 견디어낼 수 있는 성격의 소유자가 적합하다.
-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일에 적성과 소질이 있어야 하며, 끊임없는 자기 변신의 노력과 연기에 대한 열정이 요구된다.
- 예술형과 진취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스트레스 감내, 적응성, 혁신, 인내심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2. 관련학과 : 연극영화과, 연극영화학과, 연극학과, 연예연기과, 코미디연기학과

3. 참고 사이트 : 한국방송협회

4. 커리어넷직업분류 : 예술분야(전문직)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위에 ‘구성작가’와 ‘개그맨’에 대해 링크해 놓았으니 들어가서 살펴보고, 또한 관련 직업인 동영상도 참조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의 특성뿐만 아니라, 각 직업에서 요구되는 특성도 살펴보면 분명히 홍석님의 흥미를 끄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잘 살펴보고, 홍석님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기 바랍니다.

커리어넷 드림.



【 6반 - 사례 7 】

성 명	최 현 성	소속 학교명	여수충무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2회기 상담을 했는데 할 때마다 꿈이 다름
- 중학생 상담 시 용어 선택 및 사용의 어려움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진로 인식이 부족한 중학생의 적절한 상담 요령과 용어 사용
- 충분한 자기 이해를 통한 진로 선택 요령 안내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시각디자이너

저는 시각디자이너가 꿈인 중1입니다. 제가 꿈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제가 색채 감각과 조형 감각이 없는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나요?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시각디자이너가 꿈입니다.

꿈이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상담에서는 북디자이너가 꿈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시각디자이너가 꿈이라고 하였네요. 하지만 북디자이너와 시각디자이너는 유사직업으로 꿈이 크게 바뀌었다고는 보이지 않네요. 현재 꿈을 위해 할 수 있는 것과 색채감각과 조형감각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군요.

꿈이님, 디자인은 분야도 다양하고 재능과 번뜩이는 창의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야로서 재능만으로는 안 되는 분야이기도 하지요. 디자인 작업의 대부분이 단독으로 하기 보다는 협동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창시절부터 협동심과 단체 활동의 중요성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각디자이너는 인간의 행위, 사고 등을 시각적인 형태로 표현, 전달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도안하고,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디자인된 결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각디자인에는 광고디자인, 포장디자인, 편집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웹디자인 등이 포함됩니다.

시각디자이너가 되는 길은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시각디자인 관련학과와 사설 디자인 학원 등을 통해 관련 지식과 기술을 쌓을 수 있지요. 대학의 관련 학과에서는 색채론, 디자인론, 디자인 방법론 등의 이론을 배우고 또한 그래픽디자인, 편집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광고디자인 등에 대한 실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시각디자이너에 대한 더 자세한 것은 커리어넷의 직업사전을 찾아보면 많은 도움이 되겠고요. 꿈이님이 아직 중1이기 때문에 정말로 시각디자이너가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그리고 미래 직업 전망이 좋은지를 가까운 부모님 또는 선생님과 상담을 통하여 진로탐색을 꾸준히 하기를 바랍니다.

꿈이님이 궁금해 하는 색채감과 조형감을 키우는 방법은 선천적인 감각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꾸준히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보고 다양한 체험과 많은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여름방학때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국잡월드에 가서 직업 체험을 해보거나 가까운 미술관에 가서 작품들을 감상하고 감상문을 써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시각디자이너와 유사직업인 북디자이너에 관한 동영상을 보면 많은 참고가 될 수 있겠네요.

꿈이님 꿈을 향한 노력 기대하고요. 반드시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커리어넷드림.



【 6반 - 사례 8 】

성 명	홍 석 훈	소속 학교명	군자공업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답변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내담자 유형
- 자료를 구하여 제공하기 어려운 상담내용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내담자가 하울링이라는 영화를 보고 경찰견 조련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두게 되었으나 영화 속에서 직업과 현실에서의 직업에 대한 인식 수준 차이의 문제
- 경찰특공대의 탐지견 운용요원처럼 견관리와 특공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업무 비중의 문제를 내담자에게 느끼게 해주는 문제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경찰견을 다루는 경찰 부서에 들어가기 위해

1. 말 그대로 경찰견을 다루는 경찰 부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학에 가야 하는지 혹은 어떠한 시험을 쳐야 하는지 그리고 학과는 이과를 선택하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 경찰견을 다루는 경찰 부서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주로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3. 관세청에서 마약탐지견을 다루는 직업이 있다는데 정확히 어떠한 직업이며 1,2번에서의 내용과 같은 답을 해 주세요.
4. 위의 직업들을 가지기 위해 가야하는 대학의 학과, 따면 좋은 자격증
5. 현재 고1인데 내신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탐지견 운용요원과 탐지조사요원에 대한 진로 정보

○○님 그동안 잘 지냈나요.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가워요. 스스로 자기 진로에 대하여 알려고 노력하는 ○○님의 적극적인 자세가 대견스럽게 느껴집니다.

○○님은 미래에 탐지견 관련 부서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탐지견 운용요원과 관세청에서

마약탐지견을 운영하는 탐지조사요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경찰특공대의 탐지견 운용요원이나 관세청의 탐지조사요원이 되기 위한 시험과 취득해야 할 자격증이나 대학의 관련 학과 및 내신관리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고 있군요.

경찰특공대에서 폭발물 탐지견과 함께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탐지견 운용요원이라고 부릅니다. 경찰특공대 요원 특별채용 시험의 응시자격으로는 무도 공인 2단 이상자로 병역을 필했거나 군 면제자이어야 하고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여야 합니다. 또한 탐지견 운용요원의 자격 요건으로 해당분야 18개월 이상 근무경력자 또는 견훈련사 자격증 소지자로 여기에서 말하는 탐지견 해당 분야는 경찰특공대와 관세청마약탐지견센터, 삼성안내견학교나 청각도우미견센터 및 치료도우미견센터, 구조견센터나 탐지견센터, 제1군 및 3군견훈련소, 해군 및 공군견군대가 해당이 됩니다. 경찰특공대 요원 특별채용 시험에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채용공고에서 2012년 경찰특공대 요원 특별채용 시험 계획 공고로 검색하여 알아 볼 수 있어요.

경찰견을 다루는 부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경찰특공대 요원 특별채용 시험에 합격하거나 또는 일반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 합격하여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현직 경찰관 중에서 공모하여 선발할 때 지망하여 경찰특공대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특공대 요원 특별채용 시험은 실기시험, 필기시험, 적성검사, 서류전형,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되는데 필기시험은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등 5개 과목입니다. 경찰관이 되려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대학교의 관련학과로 경찰행정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해양경찰학과 등이 있으며 이들 학과는 인문사회계열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과는 문과계열을 선택하여 공부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커리어넷에서 학교.학과정보의 학과사전을 통하여 알아보세요.

경찰특공대는 특수임무 수행과 다양한 테러사건 예방 활동에 주력하며 사건 현장에서 인질을 구출하거나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경찰특공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또한 경찰특공대에서 탐지견 운용요원은 탐지견과 1조가 되어 함께 폭발물을 탐지하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며 탐지견 훈련 및 운용으로 양질의 탐지견을 양성하고 치안현장과 재난현장에 적극 활용하여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현재는 경찰특공대에서만 경찰견을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존 폭발물 탐지견에 한정된 경찰견의 운용을 다원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까지 대전에 경찰견 종합훈련센터를 신축하며, 마약탐지견과 실종자 수색견 및 다목적 전술견 등 특수 목적견을 양성하여 향후 살인이나 실종 등 강력사건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관세청에서 마약탐지견을 운영하는 사람을 탐지조사요원 또는 Handler라고 부르며 자격요건은 한국애견연맹이나 한국애견협회 주관 훈련사 2등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나 한국애견연맹이나 한



국애견협회 주관 훈련사 3등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세관, 경찰, 군, 민간기관 등에서 견관리나 훈련 실무경력 2년이상인 자 그리고 대학 축산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또는 세관, 경찰, 군, 민간기관 등에서 견관리나 훈련 실무경력 3년이상인 자 및 세관 탐지견 관련 9급 상당 경력 2년 이상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앞으로 개를 좋아하는 관세청의 직원이 탐지견을 운영한다면 근무 도중에도 좋아하는 개와 함께 할 수 있어 자발적이고 성실한 근무가 가능하므로 일반세관 직원 중 희망 직원이 있다면 탐지조사요원으로 근무하도록 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영종도에 있는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의 탐지견훈련센터에서 마약탐지견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약탐지견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자 한다면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탐지견훈련센터 홈페이지에서 견학을 신청을 받고 있으니 직접 방문하여 체험해보면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탐지견 운용요원의 자격요건으로도 필요한 견훈련사 자격증은 대학교에서 애견관련 학과를 전공하거나 사단법인 한국애견협회나 한국애견연맹에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애견협회에서 훈련사 자격증을 받으려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실기시험을 위하여 한국애견협회와 연계되어있는 훈련소에 들어가 견습으로 근무하여 훈련소 소장님의 추천서를 받는 경우도 있고 한국애견협회에서 주관하는 세계적인 훈련전문가 분들의 세미나를 모두 듣거나 애견을 직접 훈련시켜서 한국애견협회가 주관하는 훈련경기대회에 참가하여 합격점수 이상을 받으면 됩니다. 자격증 취득이나 훈련소에 대해서는 사단법인 한국애견협회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견훈련사와 마약탐지견 핸들러 자격증에 대해서는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고등학교에서의 내신관리에 대하여 크게 나누자면 교과영역과 비교과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교과영역은 고등학교 3년 동안의 교과 성적을 나타내고 비교과영역은 출결을 포함하여 봉사활동 및 특별활동과 행동발달사항 그리고 자격증 및 수상경력 등 시험성적을 제외한 학교생활의 활동영역을 의미합니다. ○○님의 진로가 결정되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내신관리에 대한 내용은 먼저 상담에서 안내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학 입학과 관련된 여러가지의 궁금한 사항을 안내해주는 대학입학상담센터 홈페이지의 진로진학상담실에서 온라인으로 대교협 1:1 입시상담을 받아보세요.

고등학교 시절은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한창 고민을 하는 시기예요. 자신의 미래를 향해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님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며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글을 남겨주세요.

커리어넷 드림

【 6반 - 사례 9 】

성 명	홍 성 미	소속 학교명	보은정보고
-----	-------	--------	-------

1. 사례 선정 이유

- 내담자의 질문 내용이 복잡하여 상담의 핵심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던 사례임.
- 성적이 우수하여 가능성이 많은 학생이라 심적 부담이 있던 사례임.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지역의 학교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원하는 학생인 경우 지역 선생님이 하시면 더 좋은 상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임.
- 상담내용이 두서없이 정리되지 않았을 때 상담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 요망.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고등학교를 못정했어요ㅠ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상담을 신청한 중학교 3학년 이**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3학년이 됐고 1학기도 거의 지나서 진학할 고등학교를 정해야되는데 아직까지 갈피도 못 잡고 있어요. 일단 제가 수학을 좋아하고 과학은 2학년때까지는 싫어했는데 3학년에 올라와서 좋아하게 됐고요. 영어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 꿈이 신경과의사인데 신경과의사다 보니 과학과 관련이 많은 활동을 많이 해야되는데 같은데 지금까지 쪽 수학과 관련된 프로그램만 많이 했거든요. 수학은 중학교1학년때부터 지금까지 영재학급, 시교육청영재, 도교육청영재교육원을 다녔고요. 교내경시대회는 1학년때는 장려상, 2학년때는 우수상, 3학년때는 우수상 이렇게 탔고요. 영어경시대회는 2학년때는 교내에서 1등, 시대회2등 3학년때는 교내에서1등,시 대회에서 3등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과학같은경우는 1,2학년때는 못했었는데 이번3학년 1학기때는 다 백점을 맞았고요. 영어는 1학년때부터 계속 석차는 1등유지했는데 수학이 내신이 잘 안나와서요. 평소에는 잘풀던것들을 시험되면 꼭 한개씩 틀려서 석차를 한자리수를 유지를 못했거든요. 국어는 이번에 다 백점 유지했고요. 역사나 사회같은 경우는 잘 못해서 10몇등정도 하고요. 제가 갈 수 있는 고등학교는 서산여고, 서산중앙고, 서일고, 충남외고, 충남과학고, 공주사대부고, 복자여고 등이 있어요.전국단위는 생각을 안한거고요. 충남과학고는 수학과학만 봐서 수하이...이번에 석차가 한자리수가아니라...과학은이번에 잘보긴했는데,,그리고 제가 과학고를 가더라도 잘할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사람들얘기들어보면 의사되려면 일반고를 가서 내신을 따야된다고 그러고..담임선생님은 고등학교어디갈거냐고 계속 물어보시고...그래서 상담을 신청해봤어요. 사실 지금생각해보니깐 제 꿈이 정확히 뭘 하는 지도 모르겠고 막연히 어떤 책을 보고 이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거거든요 일단 의사는 되고싶고..어쨌든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과학고와 일반고

안녕하세요? **님

저희 커리어넷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수학, 과학, 영어 등 친구들이 어려워 하는 과목을 좋아하고 영재교육을 받을 만큼 잘하는 **님이 막상 고등학교를 가려하니 과학고와 일반고 사이에서 고민이 되는군요? 또한 마음 한구석엔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있는데 막연한 생각인 것도 같고 고등학교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군요.

먼저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아보까요? **님이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확고하지 못한 부분이 있네요. 어떤 이유에서 의사가 되고 싶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사회에서 인정해 주고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라 좋은 것인지, 아픈 환자들을 치료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인지 다시 한번 **님의 마음을 정리해 보세요. 스스로 타당하고 올바른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앞으로 공부할 해나가는데 원동력이 되리라 생각되네요.

의사라는 직업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겠죠? **님이 관심있어하는 신경과의사는 환자와 상담을 통해 진료하는 일을 주로 하고, 외과의사는 직접 수술을 통해 환자를 치료 하므로 같은 의사라 하더라도 하는 일은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듯 여러 형태의 의사직업에 대해 자세히 검색해보세요. 또한 관심있는 분야의 의사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볼 기회를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님이 사는 지역에 신경과 의사선생님이 계시다면 직접 찾아가셔서 대학공부나 의사생활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음 사이트를 통해 의사에 대해 알아보세요.

의사 의사(직업정보센터) 신경외과 , 신경정신과

의사가 되는 과정은 의예과 2년 및 의학과 4년, 총 6년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의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전공에 관계없이 일반 학과를 졸업한 후 총 4년 과정의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의무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의사국가면허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현재 의학전문대학원은 다시 축소되어 가고 있는 형편이므로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방법이 유리 할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선택에 대해 알아보까요?

과학고와 일반고 중에서 어느 학교를 선택해야 할까 고민이 많지요?

우선 과학고는 과학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기 위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학교지요. 그러므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배우는 과목 중에 과학교과(생물, 물리, 지구과학, 화학 등)를 배우는 시간이 매우 많습니다. 주로 배우는 과목이 과학이므로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부족한 학생들이 과학고에 가서 공부를 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중학교때 배우는 몇개의 과학과목보다 훨씬 과학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과학고를 졸업할 경우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일반고에 비해 그 선택의 폭이 약간 좁다는 점도 생각해야 해요. **님이 생각하고 있는 충남과학고의 졸업생 중에 의과대학을 진학한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해보거나 직접 학교에 전화를 걸어 문의해 보거나 학교를 직접 방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일반고등학교에서 의과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문과, 이과 중 이과공부를 하는 것이 유리해요. 수학, 과학을 좋아하는 **님은 이과공부를 하게되면 재미있게 잘 할 수 있겠죠? 의과대학을 가기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혹시 성적이 의과대학에 진학할 만큼이 되지 않을 경우 차선책으로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약간은 넓은 편이지요.

과학고, 일반고 중 어느 학교를 선택해도 의사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학교로 진학했을 때 내가 공부를 재미있게 하면서 성적을 더 올릴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나의 특성에 맞는 학교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사이트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정보를 탐색해볼 수 있는 곳이에요. 관심있는 학교에 들어가 검색해 보세요.

고입정보포털

충남과학고 입학전형요강

충남과학고 교육과정표

학교선택에 있어서 혼란스럽다는 것은 우선 본인에 대한 이해가 아직 정확하지 못하다는 것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 정보가 부족한데서 옵니다. **님의 장점과 단점, 잘하는 과목과 못하는 과목을 써보시고, 내가 의사가 되고자 하는 이유도 써 보면서 자신을 이해해 보세요. 또한 내가 가고싶은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 선배들의 조언, 지역사회의 평판, 그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교육과정)등을 탐색해 보세요. 또한 학교를 결정할 때는 부모님과 상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관심있는 고등학교를 몇 개 정하여 부모님과 직접 방문해보는 것도 학교를 이해하고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수 있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사하다보면 자



연스럽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결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 되네요.

이렇게 커리어넷 상담의 문을 두드린 것처럼,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탐색해 보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으리라 믿어요.

이제 고민만 하지 말고 고등학교 선택을 위한 발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화이팅!!

커리어넷 드림.

【 6반 - 사례 10 】

성 명	홍 숙 기	소속 학교명	군산여자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내담자가 자신에 대한 탐색도 많이 하고, 능력도 많은 것으로 간주되는데도 불구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른(과학고-외국어고, 문과-이과, 연구원-기업인) 갈등상황에서 선택을 못하고 헤매고 있으며, 비현실적인 생각(대통령이 되어 정치적인 구조를 싹 엮어버리고 싶다)도 있어 어디에 초점을 두어 답을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던 사례...
- 따라서 상담 내용이 과연 내담자의 궁금점을 해결해 주었는지에 대한 자신이 없음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따라서 상담 내용이 과연 내담자의 궁금점을 해결해 주었는지에 대한 자신이 없음
- 비현실적인 꿈을 갖고 있는 내담자들에게 어느 정도까지의 현실적인 면을 짚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문과,이과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한 중3학생입니다. 제가 상담하고싶은 주제는 고등학교 진학입니다. 저는 특목고를 준비중인데 4월달 쯤 홀란드 검사를 해서 그저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기업형이 79.1 탐구형이 76.7 로 서로 매우 상반되는 직업군이 높게 1,2순위로 나왔습니다. 저는 원래 꿈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연구원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쪽으로 가려면 이과계열로 가야하는데 이과계열중 으뜸은 과학고 입니다. 저는 과학에 흥미가 많고 국방과학에도 흥미가 많아 처음에는 이쪽 학교를 선택을 하려고 했으나 저는 수학적 해결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 만약 과학고를 가게된다면 내신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적부터 사람들을 이끌고 지도하면서 관리하는 것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기업형이 높게 나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저는 과학고보다는 외교,국제고로 가는게 좋을것 같다고 하셨고 또한 그쪽 계열로 간다면 명확히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제가 원하던 길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이과가 뜨고있지만 사람을 다루는 기술을 여러가지 책을통해 배워왔기 때문에 국제고를 목표로 마음을 잡고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엄마가 부르시더니 저는 국제고를가서 무엇이 되려고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집이 한부모 가정인데다가 엄마는 인천이 아닌 원래 살던 경상남도쪽으로 서업을 다시 시작하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셨



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고를 간다면 외국으로 유학도 보내야 한다며 경제적 문제를 주요 요인으로 보고 반대를 하시었습니다. 저는 꼭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펼치며 대립을 하다가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강화시키기도 하고싶고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며 소통하는 직업사회를 만들고 싶기도 하며 대통령이 되어서 정치적인 구조를 짚아 버리고 싶기도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과보다는 문과가 더 적성에 맞는것 같고 이과는 많은 시간과 자본과 노력을 기울여야지만 될 수 있는 직업이 많기때문에 저는 사람들을 다루며 소통하는 기업,창조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직원들과 친구처럼 지내는 기업,나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업,우리나라 국방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기업을 만들고 싶지만 정작 꿈은 이렇게 큰데 구체적인 직업이 없고 당장 고등학교 진학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할지 두렵기도 하고 확신이 잘 서지 않습니다. 상담 선생님 제가 지금 많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글의 흐름이 많이 이상하다는건 알겠는데 이렇게 글로 표현하니 저의 복잡한 심정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글 읽으시는게 힘드실거예요 그렇지만 한번만 관심을 가지고 다른이들보다 더더욱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미래에 우리나라의 꼭 필요한 인재가 되어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일 자신감은 충분합니다. 부디 잘 읽어주시고 제가 혼란스럽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고등학교 선택으로 고민이 많으시군요..

멋진 **님!!

안녕하세요. 커리어넷입니다.

우선 능력도 많고, 꿈도 크고, 의지력도 강한 **님을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가워요.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꿈도 많은데 아직 딱히 하나를 정하지 못하겠고, 또 혼자 **군을 위해 애쓰시는 어머니와의 갈등문제로도 고민이 많군요. 홀랜드검사 결과에 따른 혼란도 있구요. 진로고민과 개척정신이 다른 중학교3학년 학생에 비해 많이 뛰어난 점 높이 사고 싶고, 대견하네요.

우선, **님이 홀랜드 직업흥미검사와 함께 적성검사도 실시해보았는지요. 흥미검사에 따른 결과도 중요하지만 적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어느 능력에 뛰어난지 흥미와 적성을 함께 놓고 판단해 보는 것두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가지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졌을거라 생각은 되지만 그 가운데 더 뛰어난 능력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가치관검사도 같이 실시하여 결과표를 같이 놓고 판단해 보면 뭔가 **님 스스로에 대해 조금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문과, 이과에 대한 갈등도 많군요. **님이 원하는 직업을 딱 정할 수 있다면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직업에 대한 갈등은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대학교 들어가서도 계속 고민하고 탐색해 보아야 할 거라 생각해요. 물론 하나를 정해 그곳으로 향해 지금부터 변함없이 한길로 갈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또 **님이 처하는 환경에 따라 그 목표점은 변하고 계속 탐색하고 고민하게 될 거라 여겨요. 여러 검사 결과에 따라 **님에게 제시된 직업군에서 3~5가지 정도 직업을 탐색해 보는 작업도 학과탐색이 같이 병행되면서 문,이과에 대한 판단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이런 다양한 탐색 후 이공계열이 맞는 것 같다면 홀랜드검사의 기업형과 탐구형의 접목한 직업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 **님이 이공계열로 전공을 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연구원의 길을 걷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겨 회사를 만든다면 국방 분야에 대해 잘 알면서 회사를 운영하는 능력있는 CEO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연구팀을 이끄는 리더로써 **님의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정말 멋진 모습이 아닐까요??

고등학교 진학문제에서는 일단은 학교알리미사이트 를 이용해 특목고와 일반고에 대한 탐색을 해보았음 해요. 더 자세하게는 **군 주변에 있는 학교이던지 아님 가고 싶은 학교 중 일반고와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네 학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그 학교의 교육과정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고등학교 3학년 동안 배워야할 교과목과 그 학교에서의 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만약 특목고로 목표를 정했다면 그 탐색범위를 좀 더 좁힐 수 있을 테지요. 어떤 학교를 들어가서 졸업해 어느 쪽으로 대학을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학교에 들어가 그 학교의 교육과정이 과연 나에게 맞을지 안 맞을지에 대한 탐색 또한 중요하다 생각해요. 과정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방향을 하게 된다면 바라던 결과점에 도달하지 못할 상황도 있을거라 생각되거든요.

수시가 대세인 요즘에 수학에 약하다면 **님 말처럼 내신문제를 무시할 수도 없을 거예요. 담임선생님께서 외고나 국제고를 추천해주셨다면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추천해주신 이유에 대해 좀 더 여쭙고 상담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왜냐면 가장 가까이에서 **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담임선생님이실 테니까요.

시간이 없고 바쁜 중학교 3학년의 시간이겠지만 고등학교에서의 방향과 갈등을 겪지 않기 위해선 충분히 고민하고 선택해야 할 거라 생각해요. **님의 학교를 졸업하여 각 계열로 진학한 선배님들과 만날 수 있다면 그 선배님들께 학교생활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예요. 특히나 특목고로 진학한 선배님들은 학교 선생님께 부탁드린다면 연락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님 자신이 문과와 이과에 따른 판단을 본인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가고자 하는 학교의 선배님들의 의견이나 그 학교의 학교교육 과정을 접할 수 있다면 내가 가능한 방향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능력이 많고 멋진 **님에게 맞추다 보니 답도 여러가지로 제시가 된 것 같네요.

**님의 바램대로 이 나라의 멋진 일꾼으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응원할게요. 화이팅!!

【 6반 - 사례 11 】

성 명	황 은 주	소속 학교명	김해임호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내담자의 상담내용이 주로 정보에 대한 궁금점 보다는 심리적 지원이나 상담자의 의견을 원하고 있는 경우가 답변이 어려움.
- 가장 최근의 것으로 보냄 ^^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내담자가 원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주어야 할까? 상담자 의견을 어느 한쪽으로 분명히 제시해 주어야 할까?(내담자는 지금이라도 좋아하던 음악으로 진로를 결정하라는 답변을 원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계속 됨)
- 상담답변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도 알 수 있으면 한다.(의무제도화)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안녕하세요.

중학교 때까지 멋도모르고 공부하다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내 갈길이 어딘가?라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고2때 까지 혼자 속으로 씩씩해서 우울해하고 심적으론 힘든시기를 보냈어요.(겉으론 멀쩡했지만) 순간의 감정으로 좋아 하는건가? 정말 좋아하는건가?라는 생각도 하며. 그러다가 결국 이제 고3이 되서 현실을 직시하고 단지 취직이 잘되는데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보건계열 쪽에 가려고 하고있어요. 음악을 제외 시키면 그래도 과학관련이 그나마 나아서요.

하지만 자꾸 미련이 남아요.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음악 분야 쪽을 좋아했거든요. 노래 춤 피아노. 혼자서 티비 속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한적도 있고..? 아 고2 때 축제에서 무대 공연을 한적이 있었는데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마음같아선 인서울해서 그 대학에 음악 관련 동아리에들어서 공부하면서 활동도 같이 하고 싶은데 성적이 태도 안되서 씁쓸하네요..그냥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야 할 것 같아요 고2때 정말 피크여서..성적이 딱..힘들었거든요. 뭐 지금은 괜찮지만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서 답답한마음 푸념 한번 늘어놓아보고 싶었어요. 제얘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하는 '꿈'

안녕하세요? 깨지님!

깨지님의 글 읽으면서 수능을 앞둔 깨지님의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절로 느껴져 그 마음을 따듯이 어루만져 주고 싶어요! 고 2 때 축제 공연까지 할 정도의 상당한 노래와 춤 솜씨를 갖추고 있고 그 방면으로 직업을 가지고 싶은데 여러 제약으로 주춤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마음일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홀로 많은 고민을 해 왔음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커리어넷 진로상담을 찾아 주어 정말 감사해요. ^^

어쩌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바람을 가슴에 간직하는 것,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하는 신비로운 힘. 그게 바로 꿈이랍니다. 깨지님이 보건 계열 쪽으로 진학을 하더라도 나의 꿈이 있기에 한층 더 멋진 미래를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가야만 음악 관련 동아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에게 적절한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음악 동아리에 들어가서 깨지님의 꿈과 흥미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어요. 대학동아리 발표회나 대학 축제 등 깨지님의 능력과 관심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요.

올해 8월 중반 이후부터 대학원서 접수가 시작되죠? 깨지님이 보건 계열 쪽으로 진학하고자 한다면 '단지 취직이 잘 되는 곳으로 가야겠다' 라는 다소 소극적이고 자학적인 생각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대학 진학을 했으면 해요. 그 분야에서도 이룰 수 있는 희망과 꿈, 관련 직종들이 정말 많이 있구요,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그리고 취업을 해서 일을 하면서도 깨지님의 음악에 대한 능력과 관심은 직장인 밴드 활동을 하거나 자원봉사(노래 봉사) 등을 하며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꿈꾸는 모든 바람이 꼭 직업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음악가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지요. 예를 들면, 시인을 꿈꿨던 사람이 과학자가 되었다 해서 '꿈'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뜻이죠. 오히려 보기 드물게 '시인의 마음을 가진 과학자'가 되겠죠?

깨지님!

멋진 앞으로의 미래 설계와 현재 최선을 다하는 생활 할 수 있도록 응원할게요. 깨지님은 결코 혼자가 아니고 부모님, 선생님,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상담을 나누고 있으며 선생님도 진심으로 깨지님을 지원해요! ^*^

깨지님의 답답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려서 남은 학업에 올인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남은 기간 편안한 마음으로 대학진학 준비 할 수 있도록 지원할게요.

커리어넷 드림